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6월 23일(음력5월 6일) 수요일 (주간) 제479호

문화재 보수 '시스템' 먼저 보수하라

관청 · 공사현장 곳곳 부실의 씨앗 투성이

건봉사 능파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문화재 보수공사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불법하도급 횡행, 문화재 보수 · 감독 전문 인력난을 비롯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소유 사찰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모순 등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약 10개월의 능파교 공사기간동안 부실 요인들이 방치된 것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수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예산 부족이다.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예를 보면, 2003년에 문화재청에 신청 접수된 1,540건(5,740억) 가운데 65% 수준에 불과한 1,001건(1,805억)만이 국고보조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당수의 문화재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비지정문화재는 그런 기회조차 없다. 비지정문화재 중에도 훌륭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비지정문화재라 해서 방치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불법하도급의 우려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이 이뤄지면 책정된 사업비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만이 집행되기 마련이고, 문화재 보수능력이 없는 업체가 시공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 자격요건을 별도로 두고 문화재청이 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하도급 적발이 쉽지 않아 규제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수리업자 데이터 관리가 엉성해, 등록 취소된 사업주가 다른 회사를 설립해 새로 등록하더라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연속성이 취약한 사기업보다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이나 공사를 두어 직접 인력과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편이 공사 관리나 사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두터워져야 한다. 문화재보존처리 분야를 예로 들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곳이 몇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소수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비용증가는 물론 업무 폭주로 인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무경험보다 필기시험이 주가 되는 현행 문화재보수기술자 · 기능인 자격시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기능인 양성 및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시험제도 개선과 교육과정 개발은 물론 기능인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찰소장 문화재 보수공사의 기획부터 시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법적 소유자인 사찰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이다. 현고 스님(문화재위원)은 "문화재 개 · 보수에 종단이나 사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서 사찰과 종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보수공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할 때다.

관련기사 13면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능파교' 계기로 본 부실공사 원인들

예산부족… '비지정'은 대상조차 안돼
불법하도급…무자격자가 시공하기도
감독부재…전문인력 배치 극소수

"사찰 의견 반영 길 조차 없어"

공사를 관리 · 감독하는 인력의 전문성 결여도 부실공사를 낳는 요인이다. 사업 관리 · 감독은 해당 시 · 군의 소관인데, 문화재 유형별로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은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다양한 공사를 효과적이고 치밀하게 감독하기는 힘들다.

건봉사 능파교 공사를 감독한 고성군청 관계자가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도 홍예(虹霓, 무지개 형태를 이루는 부분)의 특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야별 전문가 배치가 어렵다면, 보수공사 시행 전에 해당 문화재 특성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성공적인 보수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재보수 전문인력의 층이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추대

14일 원로회의서, "종단번영 이루겠다"



태고종 제17세 종정에 혜초(慧草 · 사진)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는 6월 14일 서울 봉원사 설법전에서 제4회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덕암 스님의 뒤를 잇는 새 종정에 혜초 스님을 추대했다.

혜초 스님은 종정으로 추대된 직후 "모든 종도들은 종단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부정 보다는 긍정을, 불평 보다는 참여를, 분열 보다는 화합을 도모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자의 신분과 역량에 따라 할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한국불교의 번영과 종단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라"는 유시를 내렸다. 스님은 앞으로 태고총림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선암사 율원 설립을 비롯해 도제양성, 수행풍토 진작 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1932년 경남 진양 生인 혜초 스님은 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靑峰) 화상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해인사 전문강원 대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임제대(현 화원대) 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해인사, 선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해 선과 교를 겸비했다. 또한 태고종의 한 맥을 형성해 온 대륜-덕암 스님의 청정수행 가풍을 이었다.

혜초스님 특별법문 24 · 25면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총지종 효강 종령 추대법회

7월 20일, 서울 총지사서

총지종 제9대 종령 효강(曉岡) 종사의 추대법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린다.

이날 법회는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종사를 비롯한 총지종 승직자와 불교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령의 권한을 상징하는 법통 전수식과 법의 수의식, 대종사 법계 서품식 등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부처님 말씀 부채에 새겨 시원한 여름을~

단오절을 맞아 시원하게 더위를 떨쳐줄 부채전시회가 열렸다. 6월 18~22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는 산사의 수행모습과 경구 등을 주제로 한 지묵 스님(법련사 한주)의 그림부채 50여점이 선보였다.

이번 부채 판매수익금은 '군불자 호신불 보내기'로 쓰여질 예정이라 호국의 달 6월을 보내는 의미를 한층 더했다. 18일 지묵 스님이 전시장을 찾은 새싹불자들에게 부채에 그림을 그려주며 부처님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신계사 복원추진위 19일 발족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이하 신계사 복원추진위)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거행하고, 총 4년에 걸친 신계사 복원 불사에 착수했다.

신계사 복원추진위는 신계사 복원 및 발굴 불사의 실무역할을 비롯, 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대외홍보, 사업 진행과 관련 남북한 교류를 위한 행정 실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이 추진위원장을, 원로의원, 교구 본사 주지, 종회의원 스님들이 고문 및 추진위원을 맡았다.

지난 4월 6일 금강산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올해안에 3층 석탑과 대웅전을 복원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혜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우연엠에스
" 만년의 불교역사가 열린다."
大役事 " 동판 팔만대장경" 제작에
우리의 온 기술과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메탈포토(금속사진) 개발에 이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속하는 국보 32호 팔만대장경을 1만년 이상 보존 가능한
인청동판으로 복원하는대역사의 주역, 우연엠에스는 시간을 뛰어넘는 금속사진
기술로 기록의 역사를 새롭게 써 가고 있습니다.
동판예술의 창조자 - 우연엠에스
1994년 설립되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우연MS(주)는 특허로 독점적인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 및 연구와 및 일본, 미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호주의 해외지사를 개설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속판에 사진을 새겨넣는 금속사진을 제작하는 우연엠에스는 1제곱센티미터 당 2만5000개의 작은 구멍을 금속판에 뚫는 '나노 테크닉 공법'을 통해 정교함을 더하고 있다.
죽림기념관 제6전시실
국내 외의 전시관, 유물관, 정부각 기관의 기관장사진 등 수를 셀 수 없이많은 사진과 기록을 영구 보존키 위한 공사작업 (2004년 미국 조달업체와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
부산아시안게임 테마거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테마의 거리로서 조형물의 벽면을 고급스럽고 보존성이 우수한 메탈포토로 시공
엘리베이터/방화문
엘리베이터/방화문에 정밀사진 등 이미지를 넣어 고급스로운 인테리어시공(독점적시장)으로 새로운 문화공간 창조 현재 OTIS-LG, 미쓰비시, 동양, 현대, 히타치와 엘리베이터 사업추진중
특수시장(장례석장)
장례문화의 변화로 납골당공사 대폭 증가, 영정사진, 묘비, 분골함, 납골단 제작, 추모관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시공 및 제작 (대규모 해외묘비 시장 진출 중)
공간 인테리어
기업, 학교, 교회, 사찰, 성당, 백화점 등으로 부터 일반주택에 이르기까지 벽면이나 천정 등의 공간을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금속가공 기술로 인테리어 시공
CD(연예인작업)
스타들의 사진과 기록을 영원히 간직할수 있게 제작하여 음반시장과 콘서트 기념품으로 대량 판매 스포츠 스타, 스페셜 카드, 스포츠 스타들의 사진과 메시지가 담긴 특별 입장권 제작
미니어쳐 병풍
미니어쳐 병풍, 징, 금속방패, 연 등 고급스러운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정교하게 각인하여 메탈포토로 제작 전통문화 상품으로 개발
관광상품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한국전통 소재에 세밀한 기법의 금속사진을 넣은 상품을 개발하여 한국문화의 기술을 홍보 및 제작
테마파크
국내 외 각 관광지 등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사진과 기록을 영구 보존해줌으로써 그 장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증대 시켜 관광명소로서의 역활을 하는 미래 비즈니스 테마파크 사업
웨딩시장
1994년 연예인 결혼식의 웨딩사인 제작을 시작으로 웨딩사인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축하메시지를 동판에 찍체 그대로 보존할 수있으며, 특수편집 기술로 한 장의 원판에 울긴 후 그대로 음양각시킨다.
WWW.koreamemo.com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1-30 준국빌딩 2층
TEL.(02)515-0050 FAX.(02)515-0035



'눈높이 불서' 안 만드나 못 만드나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받았던 충격은 20여 년 전 30대 초반 팔만대장경을 만난 일이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재미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깨닫고 느껴야 할 이야기들이 진작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가, 특히 어린이용 동화로 개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충격의 이유 중에 하나였다. 어린이들을 불교의 품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렇게 쉽고도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왜 여태껏 불교를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팔만대장경을 바탕으로 한 불교 동화는 다른 종교에 비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빈약한 현실이다. 지금 시중에는 필자가 어린이 눈높이로 고쳐 쓴 부처님 이야기 시리즈 15권 정도가 있고, 광덕스님이 쓴 연꽃마을 이야기라는 단행본, 신현득 선생님이 쓴 어린이 팔만대장경 등 몇 권이 전부이다. 년 중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지는 불서는 열 손가락을 꼽기 힘들다.

불교동화가 개발되거나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책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고, 어린이 포교에 너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 사찰 중에서 정기적으로 어린이 법회를 여는 절이 얼마나 되는가? 어린이 법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불교와 가까워질 사이가 없고, 불교 이야기를 접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팔만대장경 안에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지 모른다. 지금도 절에 가면 '000중창 불사…' 같은 플래카드가 커다랗게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런 중창 불사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에서 조금만 아이들에게 책을 사서 나누어 주는 그런 불사로 돌리면 안 되는지.

어린이 책은 어린이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경우가 많다. 절에 오는 불자들이 절 문을 나설 때 집에서 기다릴 내 아이들에게 책을 한 권이라도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면 절마다 상설 판매장이 들어설 테고, 절에서 책이 많이 팔리면 출판사에서도 서로 불교 동화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주지 스님이 이끌어주면 금방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법회 활성화 안돼 독서도 부재
소재 무궁무진…외면 말아야

또 절마다 어린이 법회를 활성화하고 대장경에서 개발한 동화를 읽히거나 들려준다면 어린이들은 대장경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 불서 발간도 활성화될 것이다. 역경원이 만들어져 팔만대장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했듯이 종단이나 불교계 신문, 방송 등 매스컴 같은 데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필생의 사업으로 어린이용 팔만대장경을 출판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먼 장래를 위해서 말이다.

"팔만대장경이 국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모르면 그거야 한낱 나무 판자때기일 뿐이다"라고 하신 어느 스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이슬기(동화작가 · 은석 초등학교 교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변하고 있다

내실 다지며 세계화 날개 활짝

국제 청소년친선교류 주관·문화재모니터링 인기
재가 이사 선임으로 전문성 확대… "발전의 힘"

"해외청소년교류? 문화재지킴이? 파라미타에 가면 모두 할 수 있어."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이하 파라미타)가 최근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내외 청소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한 · 몽 청소년친선교류캠프(8월 11~16일)와 2004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8월 17~24일), 한 · 중청소년지도자 초청프로젝트(9월 하순경) 등의 정부 국제청소년친선교류사업 주관단체로 잇따라 선정되는 등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것. 또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문화재모니터링' 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새로운 봉사활동의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제1회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시정참여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모니터링'을 진행해 파라미타의 대표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파라미타가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협회의 공신력 향상에 매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교계 청소년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부 · 지회 위주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화' '다양화' 에 발맞춰 국내외 청소년 문화를 창출, 선도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는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진 '제2회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 에서도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파라미타는 재가 이사 선임과 T/F팀 구성 문제를 합의하고, 합의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보다 전진하기 위해 협회의 내실부터 확고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가이사 선임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재가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라미타는 교육 및 정 · 재계 등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거나 그와 상응한 경력이 있는 사회인사 중 재가이사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5여 명을 재가이사로 내달안에 선임할 방침이다. 또 전국 교법사들을 중심으로 교원연수, 조직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해, 교원 연수의 상설화, 파라미타 분회조직 방법연구, 파라미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파라미타는 매년 중앙이 주최가 되어 열었던 '청소년전국연합캠프(8월 4~7일)'를 올해 처음으로 충북지부에 위임해 지부발전을 꾀하고, 일년에 한두차례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전통문화재지도자 양성과정'을 상시 운영해 학교교육 내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파라미타 회장 원택 스님은 "파라미타의 사업들은 한국불교문화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진행돼 국내뿐 아니라 국외청소년사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장점을 십분 살려 국내외 모든 청소년들을 부처님의 품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제8대 회의록 발간
조계종중앙종회

1984년 9월부터 1988년 3월까지 열렸던 <제8대 중앙종회 회의록>이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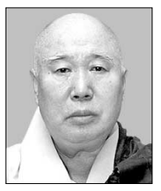
회의록에는 덕숭총림 설치 및 종단 고시법의 도입과정과 신흥사 사건의 극복과정도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은 "종도들에게 종단 제반사를 해결할 지혜를 제공하는 보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선학원 새 이사장에 도형스님

재단법인 선학원은 6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도형 스님(서울 기원정사 주지 · 사진)을 만장일치로 새 이사장에 추대했다. 도형 스님은 전 이사장 정일 스님의 잔여임기인 2007년 1월까지 이사장직을 맡게 된다.

도형 스님은 "화합하고 수행하는 선학원이 되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 직지사에서 관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형 스님은 직지사에서 운허 스님을 계사로 1960년에 사미계, 1969년에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 보살계를 각각 수지했다. 남동우 기자

중앙신도회 회장단 선임식 개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 회장단 선임식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포교원장 도영 스님, 중앙신도회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선임식에서 법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다종교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가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그 동안 양분화 있던 두 신도단체가 통합된 만큼 하나로 똘똘 뭉쳐 불교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롭게 선임된 회장단은 △명예회장 선진규 △회장 백창기 △수석부회장 명호근 △부회장 홍옥진, 정인악, 한이우, 이연숙, 손안식, 이재성, 윤소년, 김화남, 배조웅, 이춘호, 박준영, 여익구, 윤천수, 김한식, 김진관, 문명진, 조동룡, 김규범, 명재선, 김성호 △감사 김종욱, 유강근 등 25명이다.

중앙신도회는 회장단과 상설위원장, 사무처 부장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개최, 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과 상설위원회, 지역신도회 구성 및 임원 개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신행·교육도량 면모 갖출것"
조계사 신임재산관리인 원담스님



6월 15일 서울 조계사 새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원담 스님(종앙종회의원)은 17일 조계사 주지직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스님은 1978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2003년 옥천암 주지와 청주불교방송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소감은?

-원주 소임을 산다는 생각으로 왔다. 한달 내 조계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국장 및 종무원 인사는?

-화합 차원에서 다 끌어안고 갈 작정이다. 현재 공석 중인 2개의 국장 자리를 보강할 계획이다.

▲총무원과 조계사의 관계 정립은?

-총무원, 신도회, 종무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계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향후 조계사 운영 방침과 발전 계획은?

-수행, 교육, 쉼터 공간을 분리하겠다. 수행은 대웅전과 극락전, 교육은 교육관, 쉼터는 우정국로 등으로 분산하겠다. 특히 조계사 인근 지역을 문화벨트를 묶는 사업을 펼치겠다. 이를 위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상설화 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2004년 7월 11일 - 8월 30일(만 50일간)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2004년 8월 15일 - 8월 22일(만 7일간)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금주의 발원

참 회 게

원하오니 사생육도 법계모든 유정들이
다겁생래 지어온바 일체온갖 업장들을
저희이제 참회하고 큰절하여 드러내니
바라건대 온갖죄장 사라지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사생육도 법계모든 중생들이
다겁생래 심어온바 일체온갖 선근공덕
저희이제 공경스레 절하오며 펼치오니
이로인해 모든소원 이뤄지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사생육도 법계모든 생명들이
다겁생래 닦아온바 여섯가지 바라밀을
저희이제 정성스레 절하오며 아뢰오니
세세생생 보살도를 항상닦게 하옵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쓸쓸한 만해 열반 60주기



서울 망우리 시립묘지의 만해 스님 유택. 6월 29일이 스님의 열반 60주기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쓸쓸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이달 29일 간소한 제사뿐…참배객 줄어 묘지엔 적막감만

불교계 기념행사 거의 없고 종단도 무관심

올해는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입적한 지 60주년. 뜻 깊은 해다. 열반 60주기(6월29일)를 일주일 남짓 앞둔 6월 18일. 만해 스님을 모신 서울 망우리 묘지는 너무나 쓸쓸했다.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참배를 올리던 예전에 비해,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심지어 그곳에 스님의 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불자들도 많지 않다. 근대 한국 불교의 고승이자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 만해 스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도 미미했나 놀랄 정도다.

만해 스님 열반재 준비로 이곳을 찾았던 대한불교청년회의 한 관계자는 "유택은 부지가 좁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한번에 열명 이상이 참배를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다"며 "평소 근대 한국 불교의 고승으로 존경해오던 만해 스님의 위상을 찾을 길이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는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으로서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은 만해 스님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불교계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6월 27일 대한불교청년회가 거행하는 만해 스님 입적 60주년 기념 열반재를 제외하고, 불교계에서 만해 스님을 기리는 이렇다 할 학술대회나 기념행사를 여는 곳은 없는 형편이다. 불교계 스스로가 한국 불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고승을 기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만해 스님 문하에서 공부를 한 설산 스님(염불만일회 회주)은 "만해 스님의 열반일이 잊혀진 데는 유가족들이 혈육의 정에 매달린 것도 한 몫을 했다"며 "입적 이후 스님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뜻있는 불자와 제자들이 나섰지만 유가족 측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것도 개인을 떠나 공인의 삶을 살다간 만해 스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이유가 됐다.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외부와 연락을 피하고 있고, 열반일을 맞아 간소하게 제사를 받들고 유택 주변 정리를 하는 것 외에 별달리 스님을 기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다.

종단들 역시 만해 스님의 열반일을 무심하게 지나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불교 조계종의 후신인 조계종과 태고종은 이제까지 종단 차원에서 만해 스님의 열반일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거의 없다. 다만 한 때 만해 스님이 몸담았던 선학원과 고향인 홍성군만이 만해 스님의 열반을 기리는 제사를 간소하게 모시는 정도다.

서귀포시가 한국 전쟁 당시 2년 동안 머물며 창작활동을 했던 이중섭 화백을 기리기 위해 매년 성대한 축제를 열고 이중섭 거리를 제정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동국대 고재석 국어교육과 교수는 "만해 스님에 대한 불교계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의 승려 취처(僧侶 娶妻) 주장에서 근거한다"며 "많은 스님들은 그 때문에 만해 스님이 계율을 경솔하게 어기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만해 스님의 주장은 단재 신채호 등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자는 당시 지식인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은 것으로, 왜 스님이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 불교계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일어서라 불교청년들이여!

대불청 · 진각종 청년회, 7월 1~4일 수련회

"돌아가자 초발심으로, 일어서라 불청인들이여~!"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 이하 대불청)가 '제23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7월 3일부터 4일까지 진주 경남도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남강 야외공연장에서 연다.

'불청 제2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지구 8백여 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별 장기자랑 및 자유발언대, 퀴즈 골든벨 '불청 범종을 울려라' 등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서원을 담은 유등을 진주 남강에 띄우게 된다.

대불청 정상옥 회장은 "불청대회를 통해 대불청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조직체계 및 운영의 합리성을 강구해 불청 위상 정립과 포교의 대중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38-1920

한편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김윤현)도 7월 1~4일 충북 괴산 '숲 속 작은학교 솔휘네'에서 '제31회 하기수련회'를 실시한다. '실천함이 정도니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는 각 지역 청년회원을 비롯해 위덕대 불교학생회와 진각종 자성학교 전담교사, 교화직 종무원 등이 참석해 수행 · 생활 · 참여 · 화합 · 회향 등 5가지 부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종교비교체험은 심인당에 익숙한 진각종도들에게 타종단 사찰체험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다. (02)911-4509

박봉영 · 김은경 기자

한국종교연합 사단법인화 시동

발기인대회 총회 개최

한국종교연합이 사단법인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국종교연합(United Religions Initiative Korea, 대표 진월)은 6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연합 총회 준비에 들어갔다.

세계종교연합은 종교인들의 UN을 목표로 만들어진 세계 기구로, 한국종교연합은 1999년 5월에 창립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진월 스님과 세계종교연합본부 총화담당관 샐리 마헤 씨가 강연을 했다. 강유신 기자


국군 의장대, 취타대 등이 6월13일 호국및 순국선열 영가를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원광사로 이운하고 있다.

"호국영령의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군불총 천도대법회 열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대법회가 6월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열렸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권영기 · 국방대 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전쟁기념관에서 영가를 청혼해 원광사로 이운한 후 타종, 천도의식, 추모사, 영가봉송 등으로 진행됐다.

권영기 군불총 회장은 봉행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몰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하고 국가의 무운장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재단이사회 또 무산

파행 장기화 우려

6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동국대 제200회 재단이사회가 또다시 유회됐다. 지난 6월8일에 이어 두 번째.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신규이사 선임과 2003년학년도 결산 승인건 등이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 현해 스님과 영담, 영배, 현성 스님, 홍기삼 총장, 황창규이사 등 6명만 참석했다. 지난 199 차 이사회에서 갈등을 빚었던 필동 중앙대 부속병원 매입문제와 2003학년도 결산 승인 거부로 야기된 이사회 파행이 앞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6월 16일 동국대 법인으로 전용된 교비 419억원을 환수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국대는 2개월 내에 전용 교비 전액을 학교 회계로 환수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용수기자

"소규모 미신고시설 장점 살려

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그룹홈과 유사한 소규모 미신고 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조건부 신고시설 전환정책이 필요하다.'

내년 7월까지 미신고시설을 조건부로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발표 이후, 미신고시설장 및 관계자 4백여 명이 6월 16일 서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효율적인 향후 지원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김광수 회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지난 02년 발표된 정부의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은 지원 또는 활성화정책이 아닌 관리대책일 뿐이었다"며 "대규모 시설이 할 수 없는 미신고 시설의 가정적 · 인간적인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도 "대다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은 열악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사각지대를 그동안 충실히 메워 왔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해당 지역사회에 맞는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역중심의 자원조달과 연계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재호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조건부신고제는 그 과정에서 엄격한 실사와 평가를 거치지 않아 대규모의 조건부시설이 등장돼 민간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건익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조건부 신고시설의 원활한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로또 기금과 민간재원 등 행 · 재정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된 방법에 의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목탁소리

대형불사 신중하게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해인사 수행문화도량 건립과 장경각 담장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옛 삼선암을 복원하는 내원암 불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02년 수행문화도량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는 해인사는 2003년 6월에 환경을 감안한 설계 공모까지 열어 설계도면을 선정한 상태였고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수행문화도량 건립에 재정과 시간 등 힘을 기울여 온 해인사로서는 이번 지적이 비생산적인 비판이라는 생각도 가질 만하다.

그러나 환경훼손을 걱정하고 세계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언론과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않다.

더욱이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대형 불사는 공론 수렴 과정이 불가피하게 돼가고 있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비중있는 사안에 대한 공론 수렴은 중요한 단계이다. 그 과정에서 비판이 이루어져야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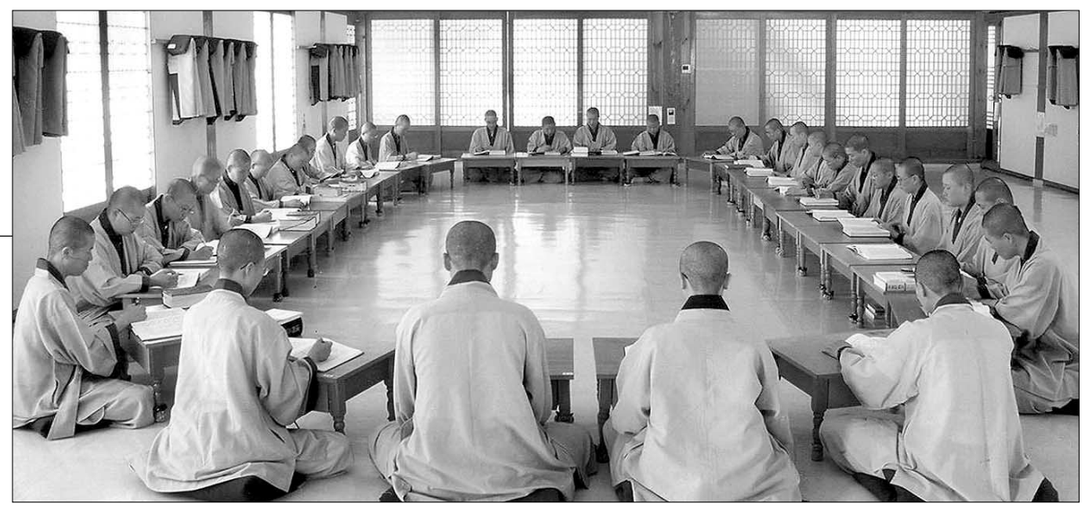
이제 사찰은 대형불사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배지선 기자



최근 비구니 승단의 성장에 대한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비구니를 주제로 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 학술세미나,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 등 국제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조계종의 경우 전체 스님(2003년 3월 현재)은 모두 1만2293명. 비구 4550명, 비구니 4512명, 사미 1874명, 사미니 1357명으로 비구니의 수적 비중이 상당하다. 이제 비구니는 승단 발전의 한축으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구니 승단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미니 강원의 현황을 짚어 본다.

조계종 사미니 강원의 현황

비구니승단 발전의 모태


사미니 강원은 교과나 학제가 매우 엄격하다. 학인들은 치문 · 사집 · 사교 · 대교 4년동안 고승들의 어록과 화엄경 등 교학을 공부한다. 사진은 동학사 강원의 간경하는 모습.

■사미니 강원의 현황

현재 사미니 강원은 동학사 · 봉녕사 · 운문사 · 청암사 · 삼선승가대학 등 5곳에 600여명의 학인이 수학하고 있다. 강사 등 교육원에 등록된 교직자는 22명이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의 승려기본교육기관 가운데 사미들이 수학하는 강원은 14곳이지만 사미니 강원은 5곳에 불과하다. 지


명성 스님 묘엄 스님 묘순 스님 일초 스님 지형 스님

1956년 비구니 강원 첫 설립

난해 행자교육원을 마친 여행자는 160여명. 강원 5곳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아직도 사미니 강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는 사미니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입방부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동학사 강원(강주 일초)은 불교정화가 시작되던 무렵인 1956년 주지 대현 스님이 경봉 스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을 개설한 것이 시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통강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근대적 개념의 강원이 세워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현재 130여명의 학인이 정진중이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졸업 동문 대부분이 수행, 포교, 교육 일선에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운문사 강원(강주 명성)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승가 교육기관. 1958년 통도사 강주 혜륜 스님을 강주로 모시고 강당을 개설한 것이 강원의 시작이다. 1970년부터 명성 스님이 강주를 맡으면서 300여 대중이 수행하는 대가람이 됐다. 올해 4회 졸업생을 배출한 전문교육기관 운문승가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초의 비구니 총림을 준비하고 있다.

봉녕사 강원(강주 묘엄)은 1975년 묘엄 스님을 강사로 승가학원을 설립하고 1983년 육화당을 신축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곳 2회 졸업생인 조계종 전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지금은 반듯한 도심 사찰이 됐지만 개원초기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오지에 물조차 귀해 학인들의 고생이 무척 심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100여 학인이 수학중인 봉녕사 강원은 기본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묘엄 스님의 지도로 비구니 계단 유일의 '금강율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곳서 600여명 수학

청암사 강원(강주 지형)은 1975년 현 강주인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이 개설했다. 엄격한 경학 연마와 매일 간경, 좌선을 통해 선교겸수를 강조하고 있다. 120여명의 학인들이 김천 지역 봉사활동과 어린이 법회를 통해 신도 포교에도 열성적이다. 최근에는 육화료를 전면 개보수하는 등 사격을 정비하는 불사가 한창이다.

삼선 강원(강주 묘순)은 1978년 의정부 약수선원에서 지광 스님과 강사 묘순 스님이 선원 수행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동국대 재학중인 탓에 상주강원을 가지 못하는 스님들을 모아 통학 강원인 '주림강원'을 개설한 것이 시초다. 1979년 강원의 자립과 통학의 편리성을 위해 서울 동소문동으로 이전하면서 삼선강원으로 개명했다. 통학강원이라고는 하지만 학사관리는 일반 강원 보다 더욱 엄격하다. 현재 40여명의 학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도심포교원이면서 교육기관이라는 장점을 특성화시킨 강원이다.

■비구니 강맥의 역사

운문사강원 강주 명성 스님은 출가한지 5년만인 1958년 선암사 성능복문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았다. 스님은 "어느 날 노장스님께서 '오늘부터 전강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좌복을 하나 밀어주시더라!"고 했다. 비구 스님들의 전강의식 같지는 않았어도 비구니 스님에게서도 교학의 강맥은 이렇게 이어졌다.

강맥의 큰 줄기는 '남진응 북한영'으로 불렸던, 한영정호(漢永鼎鎬)스님과 진응혜찬(震應慧燦) 스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한영 스님은 1926년 개운사 대원암에 불교전문강원을 개설, 학인들을 제접하면서 운허용하(耘虛龍夏), 고봉태수(高峰泰秀), 성능복문(性能福文) 스님 등에게 강맥을 이어주었다.

한영-운허 스님 강맥 전수

이어 운허 스님이 비구니로는 처음으로 1956년 동학사에서 봉녕사 강원 강주 묘엄 스님에게 강맥을 전했다. 당시 비구니에게 강맥을 전하는 것은 승단 내에서도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같은 시기 고봉 스님은 비구니 명륜, 일현 스님에게, 성능 복문 스님이 법계명성, 보월 스님 등에게 강맥을 전했다. 이들 스님은 근대 비구니 강맥의 사실상 1세대들이다. 이후 현재와 같은 현대적 강원 체제가 확립되면서 1970년대 이후 종단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제자들이 강맥을 전해 받고 있다.

삼선강원 강주 묘순 스님은 1974년 용인 화운사에서 대은소하(大隱素荷)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었다. 동학사 강주 일초 스님은 1977년 호경기환(湖鏡基煥)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어 받아 1986년부터 동학사 강주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가산지관(伽山智冠) 스님의 강맥을 이어받은 지형스님은 학문의 기초를 세운다는 이립(而立 · 30세)의 나이에 1982년 화운사 강원 강주로 취임한 후 1987년에는 청암사 강원을 다시 열었다.

한편, 올 1월에는 운문사 명성스님으로부터 세등, 영덕, 운산, 은광 스님이, 봉녕사 묘엄 스님으로부터 상일 스님이 각각 강맥을 이었다. 이 가운데 승가대학원출신으로 1980~90년대 이후 출가한 영덕, 운산, 은광 스님 등 젊은 비구니 학승들에게 강맥이 전해졌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사미니 기본 교육기관현황 (2004.5 현재)

강 원	학인현황					교직자현황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	합계	학장	교수	부교수
동학사(www.donghaksa.or.kr)	30	26	30	42	133	일초		명선, 수정
봉녕사(www.bongnyeongsa.org)	25	25	15	31	96	묘엄	혜정, 적연	동명, 설오
운문사(www.unmunsa.or.kr)	57	66	54	57	234	명성	흥륜, 일진, 진광	영덕, 운산, 은광, 법장
청암사(www.chungamsa.org)	29	33	31	23	116	지형	상덕	길장
삼선	9	14	7	8	38	묘순	도안, 수경	

"대화 · 타협이 중요 … 종단 발전에 힘 모을때"

조계종 종회 일부 · 총무원 대립 양상 불자들 우려

조계종 중앙종회 내 종책 모임인 금강회와 보림회가 조계사 주지 인사 문제로 6월 8일과 16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직영사찰(서울 조계사, 대구 선본사, 강화 보문사) 3곳을 총무원장 스님이 모두 관할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주장했다. 즉 종단 운영의 주요한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3사찰 중 "선본사 재산관리인으로 총무원장 스님 상좌스님을 임명한데 이어 보문사도 같은 문중인 수덕사 스님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이뤄진 조계사 주지 경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총무원장스님이 직영사찰의 재산관리인(주지직무대리)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직영사찰법은 재산관리인의 해임사유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총무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직영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임사유인 직무태만, 직무수행능력 부족, 보고의무 태만 중 어느 항목에 의거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7일 "주지 인사는 종헌과 종법에 따른 총무원장의 권한"이라며 조계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총무원과 대표적인 서울 도심 사찰인 조계사 운영을 연계시키는 것이 불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전 재산관리인 지홍스님과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흔히 갓바위로 알려진 선본사의 경우 "기도하는 신도가 많은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가 안돼 상좌스님을 보냈다"고 말하고, 보문사의 경우 "미납 분담금이 너무 밀렸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 "조계사와 보문사의 경우 수덕사 문중 스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의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많은 불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교계 관계자는 "옳고 그름을 떠나 94년과 98년 종단 사태의 악몽이 뇌리에 생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종회의원은 종헌종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종도대의자인 만큼 종회라고 하는 의견표출의 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선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법장 스님은 보림회와 금강회의 지적에 대해 "오해가 있지만 지적을 고맙게 생각한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 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모임 역시 "총무원장스님이 종무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시행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대천왕 복원 및 사천왕문 중수를 위한 모연문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으로 볼 때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이며, 부처님은 수미산 위 도솔천에 계시고, 사대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머무시면서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송광사 사천왕문과 사대천왕상은 서기 1462년(세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몇 번의 중수가 있었고, 세월의 풍랑 속에 많이 훼손되었던 것을, 이번에 송광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새롭게 사대천왕상을 복원하고 사천왕문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불사(佛事)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뜻있는 불법(佛法)의 인연(因緣)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크신 자비에 인연을 맺고,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이러한 모연의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 **동참방법 :** 송광사 방문 시에는 대웅보전 또는 종무소에서 신청하시고, 전화 동참도 가능합니다.
- **1인 동참금 :** 300,000원
- **동참 계좌번호 :** 우체국 501676-01-001352 (예금주 / 송광사)
- **연 락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0107 ~ 9)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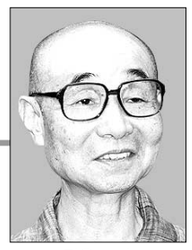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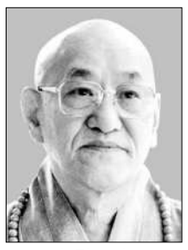


출고정가 15만 2천원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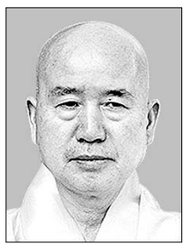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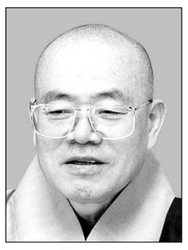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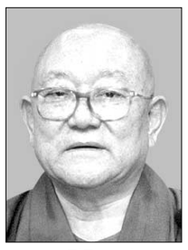

지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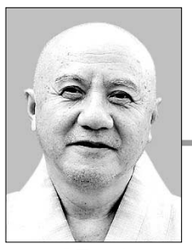

능가 스님


대성 스님


정관 스님


고산 스님


무진장 스님


흥교 스님

범어사 출신 열두 선지식 법문 듣는다

고승대법회, 7월 5~10월 14일 12회
현장 포교·수행담 듣는 소중한 기회
"이같은 법석 지속적으로 마련"

선찰대본산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범어사 출신 선지식들을 한자리에 초청, 법문을 듣는 고승대법회를 연다.

7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열리게 되는 고승대법회의 초청법사들은 동산 스님의 제자들로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범어사 출신 선지식들이 한자리에서 법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 불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를 말끔히 씻어줄 감로법문이 설해질 고승대법회는 백일 지장기도와 함께 봉행돼 일반 불자들의 기도와 선법문이 더해져 수행열기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7월 5일 백일기도 입재법회에서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이 법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7월 14일),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7월 17일),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7월 24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8월 3일), 조계종 前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8월 13일), 서울 대각사 주지 흥교 스님(8월 23일) 등이 차례로 법좌에 오른다.

동산 스님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그동안 포교, 복지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생생한 포교담과 수행담이 담긴 법문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소중하지만 특히 그간 대중 법문을 거의 하지 않고 원효암, 내원암 등 산내 암자 법회만을 열어왔던 지유 스님, 능가 스님 등 범어사 어른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 법회의 의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범어사는 백일기도 6재(9월 2일)부터 막재(10월 14일)까지는 5차례에 걸쳐 범어사 출신 스님이 아닌 노스님들을 초청하는 법석도 마련할 계획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범어사가 부산 경남의 선불교를 이끌어 가는 중심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큰스님들과 선지식들을 초청하는 이같은 법석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508-363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마음이면 거뜬합니다"


삼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삼원나눔회 결성식 전에 가진 쌀 전달식 모습.

노인 봉사자 모임 '삼원나눔회' 결성
체계적 활동 기대, 쌀 전달식 가져

"마음만 있다면 어떤 봉사든 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모아 앞으로 좀 더 봉사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6월 15일 창원의 사회복지법인 삼원 재가노인복지센터(이사장 민소현)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년 정도 봉사활동을 펼쳐온 20여명의 봉사자들은 '삼원나눔회'를 결성하고 유급봉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봉사를 해왔던 송승희(48)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창원지역에서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봉사 모임이 결성돼 의미를 더했다. 이들 봉사자들은 법인이 운영하는 무료급식, 경로식당, 노인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삼원나눔회' 결성으로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봉사자 모임 결성에 앞서 삼원 자체 경비와 창원 봉림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쌀 10포대를 관내 독거 노인 10가구에 전달하는 쌀 전달식이 열렸다. 참여문의(055)275-9875 천미희 기자

도롱뇽측 '팽팽' 터널측


지율 스님을 응원하기 위해 도롱뇽 소송 항고심 법정에 출석한 '도롱뇽의 친구들'.

항고심 6월 14일 열려
양측에 '양보·상생' 주문
지율 스님 한때 구속돼

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를 놓고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켰던 '도롱뇽 소송' 항고심이 6월 14일 오전 11시 부산고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11일 천성산 공사현장에서 연행돼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지율 스님은 22시간만인 13일 오후 풀려나 법정에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이날 뜨거운 취재열기를 감안한 듯 심리가 시작되기 전 재판정 촬영을 잠시 허용한 뒤 심리를 시작했다.

특히 김종대 재판장은 "이 법정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양측의 양보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심리가 시작되자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는 "1심에서 도롱뇽의 원고자격이 없다고 각하되었지만 환경선진국들이 자연 그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연과 인간의 윤리적 공동체라는 개념에 근거 인간의 존재 기반인 자연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절차상 흠결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공단 변호사는 "최신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하면 가장 친환경적임에도 전문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자연보호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기본적이 입장 확인과 참고인 채택, 현장 검증 채택 등에 합의하고 향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열기로 하는 등의 재판 절차와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마무리됐다.

한편 천성산 공사 현장에는 지율 스님의 반대운동을 지켜보던 개곡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지율 스님은 "도롱뇽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사가 진행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사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끝까지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김해 대법륜사 대웅전 봉불식

김해 대법륜사(주지 금강)는 6월 17일 법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신 가운데 대웅전 봉불식을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봉불식에서는 50여평의 대웅전에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의식이 진행됐다. 2층의 대법륜사 대웅전은 1층은 콘크리트 건물로 공양간, 강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은 전통 목조양식의 법당 불사를 추진 중이다. 천미희 기자

인터넷 카페 '하루헌' 회원전

인터넷 카페 동아리 하루헌(何陋軒, cafe.daum.net/haruhean)이 6월 26일까지 대구 남구 대명2동 불교문화전문 갤러리 목연에서 하루헌 회원전을 연다.

하루헌은 대구 수성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다.

2001년 개원이래 종교, 예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생명, 평화, 환경이라는 주제로 활동하던 하루헌은 이번 회원전을 통해 25명의 회원들이 시, 서, 화, 전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배지선 기자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본 민생아동협 결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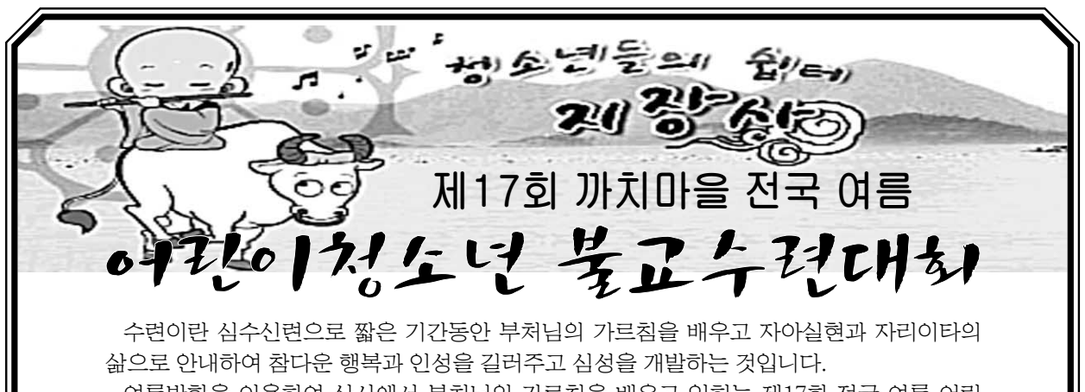
6월 16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을 방문한 일본 구마모토시 민생아동위원협의회장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35명이 자매결연 추진의사를 밝혔다.

한국 복지시설 견학차원에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이들은 이날 복지관 사업 소개와 기관을 견학한 후 복지관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쿠니다케 회장은 부관장 신행 스님의 자매결연 제의에 차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고 결의했다. 배지선 기자

포항 해병대 천마사서 수계식

포항 해병대 전차부대 천마사는 6월 13일 해병1사단 일각법사와 지역 포교사와 죽림사 신도 등 사부대중 200명이 동참한 가운데 죽림사 주지 종문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를 통해 해병장병 100명이 부처님의 불제자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죽림사 주지 종문 스님과 신도들은 수계법회를 맞아 햄버거와 피자, 음료수 과일 등을 300명의 기관병들에게 회향했다. 배지선 기자



제17회 까치마을 전국 여름
어린이청소년 불교수련대회

수련이란 심수신련으로 짧은 기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아실현과 자리이타의 삶으로 안내하여 참다운 행복과 인성을 길러주고 심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산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제17회 전국 여름 어린이청소년 불교수련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바랍니다.

일 정 안 내

- 언 제 : 1차 어린이청소년 2004년 7월 28일(水) ~ 8월 1일(日)
  2차 어린이청소년 2004년 8월 4일(水) ~ 8월 8일(日)
- 장 소 : 까치마을 대성암 수련원(오후 2시까지 도착)
- 대 상 : 1. 2차 어린이청소년
- 인 원 : 1. 2차 각50명
- 참가비 : 70,000원(교통비별도)
- 내 용 : 참선수련, 경전독송, 참회정진, 인성 및 심성개발, 물놀이, 산행(야간산행), 캠프-화이어-등
- 준비물 : 쌀1되,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슬리퍼, 양말, 수건
- 마 감 : • 1차-2004년 7월 20일 • 2차-2004년 7월 30일
- 접수처 : www.jijangsa.com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 전 화 : 수련원 ☎043)542-5882 지장사 ☎ 02)856-1558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사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언 제 : 하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연수
※ 동참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한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 수련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 전공자), 다도강사 2명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8월말까지 제2회 연꽃축제를 여는 보성 대원사. 연꽃 100여종과 수련 108종을 관람할 수 있다.



탕카 고승진영전을 열고 있는 보성 대원사(왼쪽)와 탱화초본전을 갖는 김제 청운사의 도원 스님.

"연꽃 만발하니 마음 풍성"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 축제' 탱화초본전 열어
보성 대원사 '세계각국 수련' 탕카 고승진영 볼만

최근 연꽃축제를 기획해 일반인이 쉽게 사찰을 찾아 쉬어가도록 하고 있는 김제 청운사와 보성 대원사. 불교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의 사찰에서 여름내내 꽃을 피는 연꽃의 특성을 이용해 축제기간동안 각종 전시회와 문화공연을 마련해 큰 반응을 얻고있다.

지난해 하루 3000명 연인원 30여만명이 찾은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는 금년에도 '하얀마음 맑은세상'을 주제로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소백련축제를 연다.

3회째 맞는 하소백련 축제는 6월27일 소리꾼 장사익씨 콘서트를 시작으로 국악과 현대음악가들의 연주회, 퍼포먼스, 설치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5000여평의 백련지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해 서예(전옥균), 시화(문충곤 외), 탱화(도원 스님), 하늘새(이강식), 사진전(선암 스님 외)이 축제기간 내내 열리고, 백련어린이 미술제와 백련을 이용한 천연염색체험, 백련차 시음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주지 도원 스님(전남도 무형문화재 27호 탱화장)의 탱화초본전. 탱화초는 탱화를 그리기 위한 초벌작업으로 이번 전시회에는 오방색 원지에 약간의 색채를 가미한 불, 보살, 달마 초본 20여점이 소개된다. (063)543-1246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도 8월말까지 '제2회 연꽃축제'를 열고 있다.

대원사 연꽃축제는 '연꽃 생태사찰'을 테마로 각종 연꽃과 수생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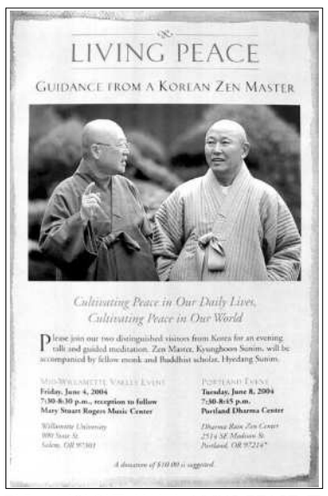
연꽃생태사찰은 대원사를 칠지가람(七池伽藍)으로 조성해 연꽃 100여종과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수련 108종, 50여종의 수생식물을 식재해놓았다. 축제기간동안에는 '하늘호수연꽃 명상캠프'(7월3일)와 불교예술의 꽃인 '영산재'(8월30일)가 이어진다.

또한 대원사는 연꽃축제를 기념해 경내에 자리한 국내유일의 티베트박물관에서 '고승진영전'과 '인도 이슬람 세밀화' 전시회를 함께 열고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승진영은 티베트 탕가기법으로 조성된 초의, 성철, 구산, 청화, 서옹 스님 등 5분의 진영이다.

(061)852-1755 이준엽 기자

★★★★★ 아마존 닷컴 독자 최고평(별5개)

경훈스님 영문 선시집 선정



경훈 스님의 영문 선시집 <LIVING PEACE>표지. 표지사진 오른쪽이 경훈 스님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amazon.com)에 한국 선사의 시집이 독자 평가에서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아 화제다.

이 책은 6월 4일 미국 IRIS출판사가 펴낸 <LIVING PEACE(살아있는 평화)>로 저자인 경훈 스님(전남 무안 약사사 조실)의 선시를 영문으로 출간한 책이다.

출판사 초청으로 10일간 미국 오리건주를 방문하고 6월 11일 귀국한 경훈 스님은 "출판 후 며칠만에 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 의외다"며 "물질문명에 짓눌린 서구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감로수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몇해 전 맑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에서 수시로 떠오른 선상(禪想)을 시집으로 정리했는데 이번에 영문으로 번역하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영어문화권에서 불교와 동양사상,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 4일, 윌러미트(Willamette)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 특별강연에서 스님은 "이 세상의 존재는 모두가 필요한 조건 속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귀한 존재다. 풀 한포기, 먼지 하나까지도 다 필요로 하는 전체속의 조직이며 연속성의 역할이기에, 내 몸이 귀하듯 상대도 귀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산사에서의 생활을 소개했다.

경훈 스님은 또한 미국 방문기간 중 지역 교도소를 방문해 '사형, 무기수와의 대화'를 갖고 "참회와 사무량심으로 수행하면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좁은 감옥에서도 해탈할 수 있다"고 불법을 설하자 사형수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한편 영문판 선시집 <LIVING PEACE>는 경훈 스님의 선시를 혜당 스님(담양 금타선원)이 영문 번역한 것으로 미국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지낼 때 인연맺은 출판사 대표 모리슨 박사의 원력으로 출판됐다. 이준엽 기자

담양 용흥사, 주말수련회 열어

담양 용흥사(주지 진우)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사체험, 주말수련회'를 개최한다.

'산사에서 편하게 머물다 가는 쉼터'를 주제로 6월 26일(토) 오후 3시 입제식을 갖는 수련회는 매주 토, 일요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일반인에게 산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용흥사 주말수련회는 주지스님이 강독하는 경전강의, 참회정진, 담론(불교토론 및 상담), 참선, 포행(산행), 다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61)382-0574 이준엽 기자

장흥경찰불자회 12일 창립

전남 장흥경찰서 불자회(회장 위성철)가 창립됐다. 6월 12일 장흥 경찰서 불자 50여명은 보림사 대적광전에서 오계를 받고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암도(前 조계종 포교원장), 영조(송광사 주지), 선경(장흥서 경승회장), 현광(보림사 주지)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이병욱 장흥경찰서장, 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불자회 출범을 축하했다.

수계식에서 암도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율을 생활화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홍천 연화사

부처님 품에 안긴 듯 편안한 절



지상 36m 높이의 연화사 아미타대불. 불상 안으로 들어가면 7층까지 올라가며 부모은중경, 극락도, 지옥도 등을 참배할 수 있다.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 본 기분이 어때?"

"극락이 따로 없더군. 어머니 품에 안긴듯 좋았어요."

6월 16일 강원도 홍천 연화사(주지 화담)에는 높이 36m(아파트 12층 높이)의 아미타부처님의 친견을 기다리는 참배객으로 북적거렸다. 20여 명이 먼저 부처님 몸안 7층 높이까지 올라가며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등을 관람하고 내려오자, 기다리고 있던 다른 불자들이 줄을 지어 올라간다.

주5일 근무제 등이 확산되면서 연화사가 '포교 휴양 도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근지역은 물론, 멀리 대도시에서 온 시민들이 산수 아름다운 연화사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요법회에도 참석하고 있는 것. 연화사가 최근 전국에서 답지하는 관광객과 불자들을 위해 인근 연엽산(蓮葉山)을 활용한 숲체험 프로그램, 22개에 달하는 요사채 객실을 개방한 주말 템플스테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6m 아미타 부처님, 숲체험 등 다양
지역단체 애경사에 절 공간 적극 개방

이런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새는 서울 대전 대구를 비롯, 멀리 부산에서까지 관광버스를 마련해 연화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번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연화사 매니아'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 사찰측의 설명이다. 불자들을 위해 매월 초하루와 보름, 조계사, 청량리 로타리, 7호선 상봉역 등을 순환하는 관광버스도 운행 중이다. 또한 지역 단체들에게 생일, 결혼식, 회갑 모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연화사가 세워진 것은 지금부터 12년 전. 구리시 은선사에서 31년 동안 포교를 해온 주지 화담 스님이 수행기도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부터다. 서울시가 팽창하면서 은선사는 도심 포교당의 구실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적당한 사찰 부지를 물색하던 중, 신라 말 도선국사가 사찰을 건립하려 했다는 인연으로 '연합절골'이란 지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 불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대지 1만 2천평을 마련하고 연건평 680여 평 3층 규모의 법당과 삼성각, 한국 최대의 아미타불 봉안 불사를 차례로 시작했다. 올 가을에는 아연과 구리로 주조할 2000여간 아미타범종 불사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 관념이 점점 희박해져 우리사회 효가 무너져내리고 있어 큰일"이라는 화담 스님은 "향후 연화사에 청소년 수련센터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예절을 배워 효사상을 새롭게 고취시킬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033)433-1815

홍천=강유신 기자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하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와불사,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백마사,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화엄사,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토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영암사,잠산사) ₩ 390,000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성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 (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팁,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뿌리깊은 신심 발전의 '열쇠'

충남 논산·연기

신 행정수도 후보선정… "발전 역량 모으자"
훈련소 등 軍기관 많아 포교도 '정예화' 추진
문화·복지·교육 등 분야별 차별화 방안 마련

논산시와 연기군의 불교는 기복성향이 강하고 포교 여건이 열악해 불교세나 불심이 상당히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도들의 활동도 미약하고, 신행단체는 극소수이며, 그나마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사찰과 스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하다.

하지만 두 지역 불교는 '희망'을 꿈꾼다. 그냥 버텨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해 보겠다'는 열의가 있는 희망이다. 특히 두 지역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지역 불교계 역시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무속신앙 강세 이미지 벗어

논산은 인구 15만에 사찰 수는 50여개. 교회수가 400여개나 되는 것만 보아도 논산 불교가 얼마나 약세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논산은 전통적으로 유생이 득세하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이곳은 계룡산 자락에 토착화된 무속신앙이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한마디로 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셈이다. 특히 이런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이 지역 불자들은 기복신앙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어 신도단체나 신행단체 활동은 침체돼 있다.

육군 제2훈련소, 육군부사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데다 논산구치소가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의 상당수 스님들이 군부대와 구치소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독교에 비하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 불모지나 다름없는 논산. 하지만 논산의 스님들은 의외로 지역불교 발전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논산 불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법륜종 총본산인 지장암이 지역 복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불교 우호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 석림사의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성과를 거두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관촉사를 포함한 다른 사찰들도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 강화'. 최근 법륜종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시내에 충남불교문화대학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신도교육에 뛰어들었다. 제대로 가르쳐야만 올바로 신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지역 불교의 기반이 탄탄해진다는 것이다.


경전 공부를 하고있는 논산지역 신도들. 지장암은 매주 한차례씩 신도들을 위한 기도 및 경전공부 법회를 열고 있다.

관촉사 주지 탄우 스님도 특성화된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해 내년쯤 본격적인 신도교육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기본교리 교육에 치중하면서도 각자의 소양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또 몇 년 전까지 불교대학을 운영하다 중단했던 석림사도 신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불교대학 재개를 계획하고 있고, 영주사 등 다른 사찰들도 여건이 닿는 대로 신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은 상당수 사찰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진행해 온 불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포교에 나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복성향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지만 도량 정비에 따라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포교에 주력할 수 있는 내부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사암련 조직정비 "5년후를 기대하라"

여기에다 조만간 사암연합회를 재정비해 조직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 스님들이 말하듯이 5년 후 논산 불교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기군 불교는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불교문화원과 송림사 등 일부 사찰들이 불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역부족이다.

이곳 연기 불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 사찰에서 대를 이어 다니는 신도가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는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불교활동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찰 간의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연기 불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도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기복적 성향을 보이는 신행형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스님들이 뜻을 모아 군 포교와 지역 복지에 나서고는 있지만 조직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고, 사암연합회의 활동 역시 미약하다.

하지만 연기군을 대표하는 일부 사찰들이 지역 불교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신도교육이나 포교 방안 마련 등을 고심하고 있어 이 지역 전체 사찰들이 힘을 합칠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암사 주지 정엽 스님은 신도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고, 또 불교문화원 원장 적인 스님과 송림사 주지 덕운 스님 등도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논산·연기=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돋보기

관촉사

논산 시내를 조금 벗어나 건양대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한 전통사찰. 쌍계사, 개태사와 함께 '논산 8경' 중 한 곳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경내가 인상적이다. 일명 은진미륵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석불인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8호)이 있다. 이 석불은 자연의 화강석 암반 위에 허리 아래 부분, 상체, 머리부분을 각각 하나의 돌로 조각해 연결돼 있다. 경내에서 탑정호수가 한 눈에 내려다보여 시원함을 더해준다. (041)736-5700

쌍계사

은은한 경치가 일품인 사찰이다. 충청과 전라를 잇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곳 불명산 계곡을 따라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쌍계사 종소리는 불심을 더해준다. 주요문화재로는 섬세하고 정교한 꽃살문이 조각돼 있는 대웅전(보물 제408호)과 부도(문화재자료 제80호)가 있다. (041)741-2251

개태사

대웅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유난히 높게 느껴진다.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개국하기까지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 40년에 걸쳐 개태사를 건립하고 절 이름도 손수 지었다. 그러나 고려말 왜적의 침입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었다. 개태사지석불입상(보물 제219호)이 있다 (041)735-0197


국내 최대 석불인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한쪽의 수채화같은 절 비암사


지장암 납골당인 연화대 내부

지장암

지장기도도량인 지장암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납골당인 '연화대'다. 6년전 건립된 연화대는 19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깔끔하면서도 현대식으로 조성돼 있는 것이 특징. 연화대 바로 옆에 납골탑이 20여기 가량 들어서 있다. (041)733-5628

비암사

연한 색 물감으로 채색한 수채화 같은 절. 주변 경관과 사찰 앞마당에 수놓아진 넓은 잔디, 그리고 대웅전과 극락보전 등의 전각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름답다는 표현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산사의 풍취가 뛰어나다. 통일신라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전통사찰. 화려하고 아름다운 극락보전과 아미타불 삼존석상(국보 제106호) 아미타여래제불보살석상(보물 제367호) 미륵보살반사석상(보물 제368호)이 발견된 3층 석탑(충남도 유형문화재 제79호)이 있다. 연기군 전의면에 위치. (041)863-0230

연화사

주변에 배나무와 복숭아 과수원이 밀집해 4월의 연화사는 꽃향기와 과일향기로 가득찬다. 연기군에서 연화사→고복저수지→향토사료관→비암사로 이어지는 1일 관광코스를 정해놓았을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전통사찰. 특히 신라인의 조각솜씨 돋보이는 전통문화재가 많다. (041)862-1009

논산·연기 불교 이끄는 주역들

논산불교 발전에 헌신

창법 스님
논산 지장암 주지
법륜종 총무원장



2000년부터 법륜종 제6·7대 총무원장을 지내면서 법륜종을 내실있는 종단으로 견인했다. 지역에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논산시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오면서 논산불교발전에 기여해왔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이곳에 지장암을 창건, 지금은 법륜종 총본산이자 논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찰로 자리잡게 했다.

어린이 포교에 뜻을 두고 1996년 '선재어린이집'을 개원해 현재는 원생이 100여명에 이를 정도가 됐으며, 13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논산과 공주 지역의 노인들을 초청해 효도관광을 실시하는 등 지역 노인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양로원을 개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근 군부대 포교 앞장

덕운 스님
연기 송림사 주지
연기군사암련 부회장



불교문화원 원장 적인 스님과 함께 지역 포교를 이끌고 있다. 35년 전 송림사를 창건한 뒤 군 포교, 지역 복지, 장학 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금도 매달 일정액을 지역 군부대 법당에 후원하고 있다.

6년 전부터는 논산 석림사 주지 성공 스님과 불교문화원장 적인 스님 등 군 포교에 뜻을 같이 하는 10여명의 스님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군부대 수계법회를 해오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복지에도 공헌을 해왔다. 군 포교 영역을 더 넓히고, 가능하다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꿈이다.

창건 1천년 행사준비

탄우 스님
논산 관촉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12년째 관촉사 주지 소임을 맡아 오면서 창법 스님과 함께 논산 불교를 이끌고 있는 핵심이다. 무슨 일이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평상시 스타일. 지역 복지에 참여하더라도 신도회 이름으로 할 정도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꺼린다. 스님이라면 상 내지 않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소신 때문. 12대에 이어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무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관촉사 창건 1천년을 앞두고 지역 불교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구상중이다. 또한 사하촌을 정비, 신도들과 관람객들이 친근감을 갖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기군 '새불교바람' 주역

정엽 스님
연기 비암사 주지



연기군 불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스님으로 꼽힌다. 비암사 주지로 부임한 지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손수 도량을 정비하고 신도들의 견해를 청취하면서 포교 및 신도교육 방안을 구상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벌써 신도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있을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다.

가장 좋은 포교는 신도들과 사찰 관람객들에 대해 성심을 다하는 것이라는 신념아래 비암사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뒤 조치원, 대전, 청주 등 인근 사람들이 주말에 하루 이틀 정도 마음 놓고 수행하며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책벌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새싹 포교의 대명사

성공 스님
논산 석림사 주지
연화 어린이집 원장



논산 불교를 얘기하면서 빼놓은 수 없는 스님이다. 지난해 말 손을 뗀 충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6년간 운영했으며, 15년 전부터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교화연합회 논산지부장을 지내는 등 논산 지역의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주도해 왔다.

뿐만 아니라 논산 사찰로서는 유일하게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6년 전부터 논산 운불련 지도법사를 맡아 운불련의 신행을 도왔다. 한 달에 한 번 사찰 강당에서 경로잔치를 여는가 하면 신도교육에도 열심이다. 현재 운영중인 '연화어린이집'을 확장해 어린이 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꿈이다.

인재불사에 남다른 열정

적인 스님
연기 불교문화원장
보현정사 주지



연기군 스님들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0년 전 신도들의 도움으로 교회 건물을 지금의 불교문화원으로 바꾸고, 어린이·청소년·청년·신도 법회를 개설해 불교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곳에 포교의 불을 지폈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매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데리고 캠프를 다니기도 했다. 더욱이 지금까지 30여명의 청소년들을 절에서 먹이고 재우며 공부시켜 대학에 진학시키는 등 인재불사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9명의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다. 조치원 경찰서 경승을 지내면서 경찰 포교에도 기여했으며, 군 포교에도 애정이 많다.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소망이다.

불교문화 활성화 견인

법원 스님
논산 대현사 주지
충남불교문화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동국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6월16일 첫 강의를 시작한 충남불교문화대학의 학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젊은 스님이다. 불교를 올바로 알고 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법원 스님은 법당을 짓는 것보다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충남불교문화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수를 늘리고 학과목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합창단·봉사 활동 분주

최정희 보살
연기사암연합회
합창단장



8년 전 사암연합회 합창단이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합창단 단장을 맡아오면서 연기 지역에서는 가장 활발한 신행단체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 연기군 각 사찰의 30여 신도가 모여 결성된 합창단은 매주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연습하면서 연기군은 물론 다른 지역의 사찰 행사에까지 참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해오고 있을 정도로 신심이 두텁다. 불교문화원 신도이기도 하다.

천태종 해외포교 팔 걷었다

덴마크 이어 加 · 몽골에 포교당 건립…파키스탄과 교류 추진

천태종이 '세계속의 천태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개성 영통사 기와 · 단청 지원을 통해 천태종의 위상을 높인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로 발을 넓히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주목된다.

2002년 4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처음으로 포교당을 개설한 이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캐나다와 몽골, 파키스탄 등지에도 포교당 개설을 추진한다. 캐나다와 몽골은 이미 건립불사를 진행중이거나 부지확보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올리고 있다.

천태종의 유럽지역 포교거점인 덴마크 포교당(주지 월장)은 문을 연지 2년만에 정기법회에 50명이 참석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뿐만 아니라 8월부터는 덴마크내 한국입양인이 다니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도 천태종 종단 차원으로 이뤄진다. 천태종은 덴마크를 발판으로 삼아 독일, 프랑스 등지의 유럽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한다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있다.

이에 앞서 천태종은 덴마크내 한국입양인 50명을 7월말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초청해 총본산 구인사와 금강대, 서울 관문사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들을 포함해 세계입양인대회 참가자 6백여명에게도 서울 관문사에서 사찰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천태종의 두 번째로 개설된 해외 포교당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평화사(주지 춘광). 교무부장 춘광스님이 초대 주지를 맡아 올 10월께 정식 점안 · 개원을 목표로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신도회가 구성돼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몽골과 파키스탄과의 교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몽골과의 교류는 생필품 지원과 포교당 개설로 방향이 정해졌다. 천태종은 지난 4월 총무원장 운덕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몽골정부로부터 수도 울란바토로에 포교당 부지를 제공받기로 약정, 2만여평을 확보한 데 이어 2차 포교당 불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몽골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천태종은 첫 교류의 일환으로 6월 23일 구인사에서 '생필품 보내기운동 원만성취 법회'를 열어 의류 이불 신발 내의 등 3만8천점의 생필품을 페렌레이 우르쥔훈데브 주한 몽골대사를 통해 몽골 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교류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총무원 집행부는 7월 14~21일 파키스탄을 방문해 불교유물 교환 등 교류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천태종은 파키스탄이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출생지이며 대승불교와 간다라 불교의 발원지라는 한국불교와의 연관성 때문에 교류를 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천태종의 파키스탄과의 교류는 대승불교를 전파했던 파키스탄에 한국불교를 다시 전하는 불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덴마크 포교당 주지 월장 스님은 "해외포교당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 국가에 천태종과 한국불교를 알리는 포교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며 "한국불교와 천태종의 씨앗을 심는 의미있는 불사로 회향될 수 있도록 해외포교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태종은 6월14일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상월 원각 조사 30돌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종단 대표들이 헌향한 뒤 3배의 예를 올리는 모습.

상월조사 원적 30돌 열반대재
2만여명 참석… '유훈 잇자' 다짐

천태종은 중창조인 상월 원각 조사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6월 14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2만여명의 참석자들은 중창조의 원적 30돌을 기리며 상월조사의 유훈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추모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야말로 무상대도를 성취한 각자요, 새 교화운동을 전개해 정법중흥의 일대사 인연을 수행하신 대종교가였다"며 "대조사의 가르침과 유업이 역사에 빛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45년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 조사는 67년 법화 수행을 근간으로 하는 천태종을 중창하고,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등 새 불교운동을 주창했다.

이후 애국 · 생활 · 대중불교를 3대 지표로 91개소의 말사와 152개소의 포교소, 8천7백여명의 신도를 확보하는 등 왕성한 불사를 전개해 천태종의 제도적 틀을 정착시켰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종단화합 법적 토대 마련
총무원장 연임금지 등 종헌 개정·사찰법 제정

태고종이 종단 재산 보호를 위한 사찰법을 제정하는 등 종헌종법을 대폭 손질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는 6월 15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89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 · 종법 제 ·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개정된 종헌은 법인 설립과 관련해 총무원의 승인조항 삽입과 주요 종무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과 지방교구 종무원장 등의 연임금지 조항과 부정선거로 선출된 당선자의 자격상실 조항을 포함시켜 윤리성을 대폭 강화했다. 중앙호법위원회는 중앙사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설사암이 대부분인 태고종의 사찰 재산과 주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찰법도 새로 제정했다.

사찰법에는 종단 소속 사찰을 재산소유 및 운영의 형태에 따라 역사적으로 전래된 기성사찰과 종단명의로 등기된 종유사찰, 사찰명의의 사유(寺有)사찰, 사설사찰, 총림사찰, 직할사찰, 직영사찰, 법인사찰 등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사찰을 사격에 따라 총본산, 대본산, 본산, 일반사찰, 암자, 포교원 등으로 구분해 분담금 책정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주지의 임명절차와 권한, 해임 등의 기준도 포함됐다.

태고종은 이번 사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단 소속 사찰들의 분규와 다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던 종단 소속 사찰의 소유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설사암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해 승려의 재산소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앙종회는 총무원내에 문화부를 새로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부로 변경하는 등 총무원법도 손질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이번 종헌종법 제 · 개정은 종단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태고종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종책을 세워 일관성있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6월9일 실시된 종도 대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종단화합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원효사상실천승가회장 가은 스님(왼쪽)은 6월11일 일본 닌노지에 <교정국역 열반경종요>가 포함된 <원효성사전서>를 선물했다.

日소재 필사본 삽입 '열반경종요' 출간
원효사상실천승가회, 가은 스님 번역

종조 원효 스님의 저서 <열반경종요>를 연구해 온 원효종이 일본에 남아 있는 필사본을 우리말로 풀이한 <교정국역 열반경종요>를 발간했다.

원효종(총무원장 무진)은 "국내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일본에만 남아있는 '열반경종요' 필사본을 원문의 형태 그대로 영인해 일본에서 들여와 이를 번역, 책으로 발간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회장 가은) 주관으로 <열반경종요>에 대한 번역 · 연구활동을 벌여온 지 4년여만의 성과다.

<열반경종요>는 열반경의 핵심을 열반과 불성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서로, 고려속장경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에 기록돼 있을 뿐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1478년 편찬된 <동문선>에 서문이 남아 있으며, 일본에는 닌노지(輪王寺) 소장 필사본(1124년)이 신수대장경 속에 활자화되어 전하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필사본은 닌노지 필사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지만 출처가 불명확하다.

이번에 발간된 <교정국역 열반경종요>는 기존의 번역본과 차별을 두고 있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가 지난 2월 일본 윤왕사에서 선사받은 필사본을 함께 실어 놓았고, 원문의 문장을 끊어서 번역한 내용도 그대로 담았다. 또 일본 닌노지에서 입수한 필사본을 부록으로 담아 비교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도 높다는 평이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는 6월 11일 일본 닌노지에 이책 6권을 전달했다.

원효사상실천승가회장 가은 스님(원효종 포교부장)은 "지금까지 열반경종요의 자료로 사용된 신수대장경 활자본은 닌노지 필사본을 교열해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주를 달아 놓지 않았다"며 "<교정국역 열반경종요>의 출간을 계기로 원효사상을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원효 스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위탁
진각재단 용문복지관내 설치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이 6월 11일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각복지재단은 서구 용문동에 소재해 있는 용문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장애아 교육기관인 '용문어린이집'을 마련했다.

용문어린이집은 복지관내 87평을 활용해 보육실, 목욕실, 조리실,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원아모집과 부모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중증 장애아 10명, 경증 장애아 10명 등 총 20명을 모집하며, 7월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042)537-0615

종단소식

7월13~15일 종도수련회

미타종 전국종무원장 산중회의가 6월 15일 광주 무등산 혜룡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종단 간부스님들은 수계식을 겸한 종도 수련대회를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본산 봉암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또 8월 18일에는 창종 62주년 기념법회를 봉암사에서 열기로 했다. 수련대회장은 부종정 혜우 스님이 맡는다. 이날 혜우 스님은 "내실 있는 종단운영을 통해 종단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27기 행자교육 접수

조계종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제27기 행자교육원 입교 지원 서류를 각 해당교구 본사 종무소에서 접수한다. 직할사암 소속 행자는 교육원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산해 4월 15일까지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행자교육원 입교명령을 받은 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27기 행자교육원은 9월 1~23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열린다. (02)732-4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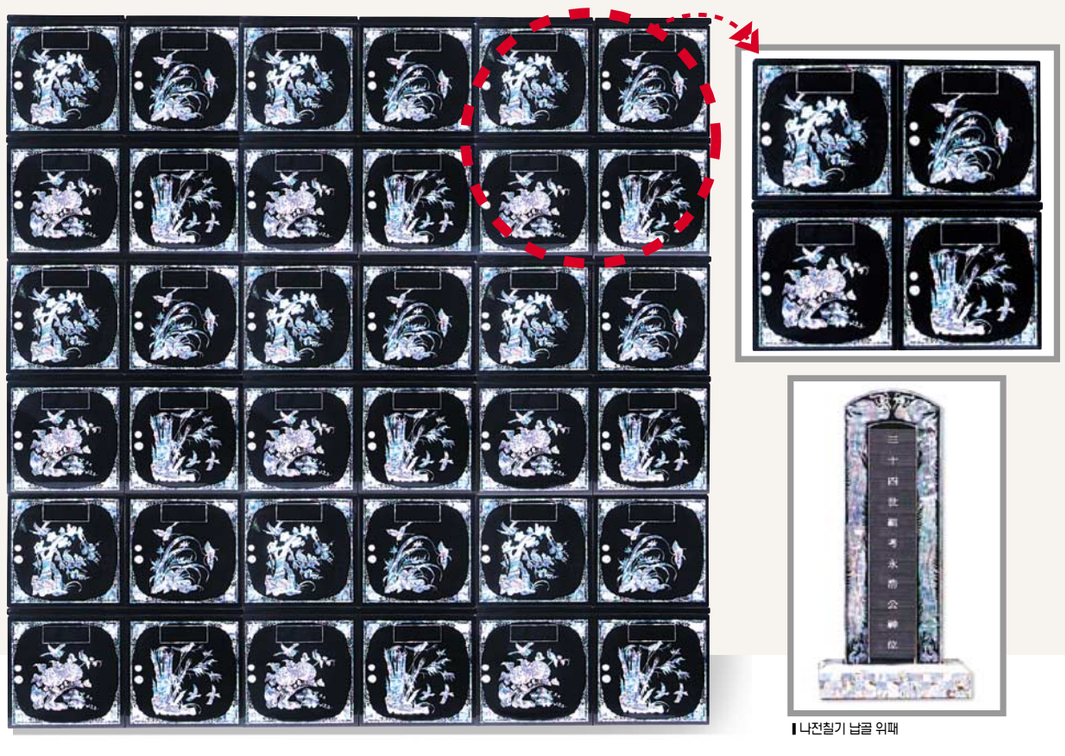
온 생명존중 수륙재

태고종은 6월 24일 전북 완주 봉서사에서 '온 생명 존중 실천 영산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기존의 무분별한 방생법회를 지양하고 생명존중사상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새로운 틀의 방생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1부 방생법회와 2부 영산재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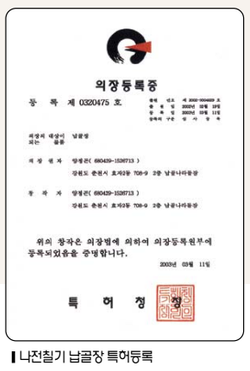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종단 간부, 중진 스님, 신도 등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382-7361

납골장 나전칠기(사군자) 공법으로 제작한 고급 모델

수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 장엄한 전통나전칠기공법으로 납골장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납골장의 미려함과 습기, 결로현상의 완전 제거 기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전칠기 납골 위패



나전칠기 납골장 특허등록

전국 사찰, 법당안에 납골당 설치 정당 (합헌 결정)

지장보살전, 명부전, 기존 건축물 … 납골장 설치 가능
행정기관이 「건축 후 납골당 용도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사찰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주지 임연구)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법당에 대한 건축허가임에도 동구청이 '납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부관을 부서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집회장인 사찰에 납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해당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납골시설 설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해 그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무등산에 위치한 문빈정사는 2001년 9월 29일 극락전 법당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증축한 뒤 이듬해 1월 4일 법당안에 약 900기 규모의 납골함을 설치하려고 신고를 했으나 동구청이 건축허가 당시 '납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조건에 위반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돌잠 DOLJAM
납골장, 납골묘 제작 시공 전문업체
나전칠기 납골함, 위패 제작판매
(의장등록증 발급)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8-52번지
납골나라 돌잠 080-232-4444
H·P 011-365-0202
※ 나전칠기 및 상감기법 납골장 전시관 상시운영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확인하십시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깨달음' 스스로 찾아보자

■ 조계사 '하안거 <백일법문> 재가논강' 현장



◆재가논강 계획표◆

날 짜	주 제	논주 및 논사
6월 3일	입재법회-인사말 및 특강법문 '생활인의 마음 공부법'	특강:원택 스님 법문:고우 스님
6월 15일	<백일법문>의 역사적 의의	논주:서재영(동국대 강사), 지정토론: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김상일(동국대 교수)
6월 29일	대중토론: 불교란 무엇인가?	논주: 송도근(건설교통부 국장), 지정토론 :미정
7월 13일	중도란 무엇인가? 법문과 문답	증명법사 고우 스님
7월 27일	뇌과학적 입장에서 본 '마음 연구	논주: 신희섭(한국과학기술원 학습 · 기억현상 연구단장), 지정토론: 미정
8월 12일	대중토론: 선사상에 대하여	논주: 김광수(한양여대 교수)
8월 24일	선이란 무엇인가? 법문과 문답	증명법사 고우 스님
9월 11~12일	종합수련회	전통사찰 1박2일 수련회(법문, 좌선법 지도 및 실참, 토론)



정부 관계자, 기업 CEO, 이웃종교인 등 참석자 다양 재가논강 새로운 신행운동 확산·정착 계기 되길…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1960년대 정화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던 한국불교계가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근기에 따른 법문불교의 경계와 참선 제일의 수행풍토 등을 진작시켰습니다."

"아닙니다. 60년대 말과 그 이후의 한국불교계 현황은 수행자들이 불교의 핵심사상인 중도를 몰라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백일법문>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해진 것도, 또한 그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월 16일 저녁, 조계사 극락전. 토론이 뜨겁다. 재가불자들의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마련한 '하안거 <백일법문> 재가논강' 그 두 번째 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만큼 무더운 날씨지만 120여명의 참가자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백일법문>의 역사적 의의' 토론에 몰두했다.

'어? 이게 이 뜻이었구나.' '성철 스님이 강조하신 중도는 생활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지?'

참가자들은 이날 논주와 논사로 나선 서재영(동국대) 강사와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김상일(동국대) 교수와 함께 <백일법문>의 개요와 의의, 교학관과 선학관 등을 살펴보며 성철 스님의 법문 내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백일법문> 재가논강'은 스님들의 전통수행방식인 안거를 빌어 '재가논강'라는 새로운 수행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논강은, 참가자들이 불교와 선이 무엇인지, 논강의 교재인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강조하는 중도가 무엇인지 등 각 주제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눈 뒤, 궁금증과 그 실천방법 등은 4회, 7회에 진행되는 증명법사인 고우 스님(태백산 각화사)의 법문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동안 법문위주의 사찰법회와 실참 중심인 수련대회의 한계를 극복해, 재가불자 스스로가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홍기삼 총장(동국대), 신희섭 박사(한국과학기술원 학습 · 기억현상 연구단장)와 변양균 차관(기획예산처) 등의 저명한 인사들이 논강의 좌장으로 나섰고, 신행단체장, 정부부처관계자, 기업 CEO,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사회 각층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참여했다.

늦은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휴식을 취할 시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일에 지쳐 파김치된 몸을 이끌고 조계사로 향하게 하는 것일까.

대불련 서울지부장(1975년)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경남(51 · (주)코엑스 이사)씨의 경우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다. 성철 스님 생전에 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3천배를 하고 직접 가르침을 듣기도 했지만 막상 실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지만, 늘 부족한 느낌이라는 것이다.

하루 종일 증시 관련 데이터 속에 파묻혀 일하는 증권맨 우승택(46 · 삼성증권 종로 FNhonors 부장)씨는 부처님과 <백일법문>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사상이 어떻게 현실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참가했다.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불교학 전공자뿐 아니라 국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해석과, 그에 대한 참석자들의 여러 시각과 의견들을 들으니 이번에는 중도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디 불교신자들 뿐일까?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도 여럿 눈에 띈다. 특히 천주교 신자인 방일자 씨의 겨우 혜국 스님의 반야심경 테이프를 50번이나 듣고, 불교TV를 시청할 만큼 불교 공부에 목말라 있다. 이런 방 씨에게 이번 백일법문 논강은 절호의 기회.

"불교의 염불처럼 천주교에는 묵주기도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묵주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 그것을 풀고자 불교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히는 방씨. 매일 <금강경>을 칠독하고 논강에 참여하며 불교를 하나둘 이해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기쁘다고 한다.

한혜진(48), 서해석(46) 씨 같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반가워 친구와 이웃의 손을 잡고 논강으로 향한 이들과 아이를 재워놓고 참여한 주부 등 많은 재가불자들이 성철 스님의 법문을 빌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작은 증과(證果)에 현혹돼 깨달음을 선언하고 수행을 포기하지 말라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가 쌓아놓은 '허상'을 무너트리고 깨달음을 향해 쉼없는 정진을 함께하는 이들은 때이른 무더위가 무색한 열의로 공부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

과연 7회의 논강이 끝났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02)733-7277

글=김은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왼쪽부터 논강의 공동 좌장인 신희섭 박사(한국과학기술원 학습 · 기억현상 연구소), 열심히 필기를 하며 논강을 듣고 있는 재가자들. 천주교 신자인 방일자 씨도 불교공부에 동참했다.

부처님은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무심(無心)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참된 웰빙을 맛본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맑고 시원한 경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출간 2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책이름 : 무심(無心) - 시중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지 자 : 문 화 영
펴낸 곳 : 도서출판 수선재
펴낸 날 : 2004년 5월 6일
가 격 : 9,300원
본 문 : 240쪽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6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직장불자들

멘토링으로

신행 활력 배가!



"선배님, 어제 학생들을 집으로 보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오늘 조례시간에 화를 낼까, 벌을 줄까. 14살 녀석의 거짓말을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할지,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안영삼(36) 서울 대신중 교사〉

"안 선생,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해. 앞으로 이 아이가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줘야 해. '사섭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지 않나. 일단 눈높이를 더 낮춰 녀석의 눈을 들여다보라고."

〈조건균(48) 서울 대신고 교사〉

◀최근 일부 직장불자회가 1:1 상담기법인 '멘토링'을 도입하면서 선·후배 직장불자들의 신행상담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서울 대신고 교무실에서 선배인 조건균 교사(사진 왼쪽)가 안영삼 교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모습. 사진=김철우 기자

도란도란 불심 꽃피네

마음의 경계 허물고 대화로 지혜와 신뢰 쌓기 활용

선배 '코치'에 후배들 '성장' … 업무효율도 높아 각광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선·후배 불자간의 일상적인 대화. 직장인과 재가불자로서 수많은 고민들을 쏟아낸다. 집안일에서부터 자녀교육 문제, 동료들간 불협화음, 심지어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오가는 화제 영역이 폭넓다. 그럼 직장불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어떤 대화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을까?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멘토링'이 직장불자회에서 새로운 신행상담 기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멘토링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선배가 후배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켜주기 위해 조언·충고·코칭 등을 하는 활동으로, 일종의 '후견인 제도'.

달리 말하면, 선배는 '부디스트 코치'가 되고 후배는 '자기 성장의 계기'를 가지게 되는 상담방법이다. 그렇다면, 일터불자회에서 멘토링이 도입되는 이유와 그 개념, 그리고 불교적 의미의 멘토링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살펴본다.

▮일터에서 '멘토링'을 도입하는 이유

직장생활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가족 구성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동료들과 지낸다. 때문에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 친밀도'가 여느 관계보다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셈이다.

현재 직장불자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화방법은 불자회 소식지,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이중 사이버 공간에서의 홈페이지가 일터불심의 대화 방식을 이끌고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세무사불자회, 선재마을의료회,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20여 곳의 직장불자회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교·직원 불자모임 불이회의 경우, 홈페이지 내 불교에 대한 질의방을 마련, 인터넷상에서 활발한 신행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존의 대화방식은 지속적인 신행담 교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 사람과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은 실질적인 상담활동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멘토링은 철저히 1:1의 관계 속에서 상담이 유지돼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같은 이유로 멘토링은 요즘 직장불자들 사이에 새로운 상담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멘토링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선배처럼 굴지 않고 도반처럼 가르친다'는 의미다. 멘토의 기원은 이렇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가면서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멘토에게 맡겼고, 전쟁기간 동안 멘토는 텔레마코스를 친구, 선생,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돼 잘 돌봐줬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이다. 즉 관계가 하나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멘토링의 유연성'은 요즘 기업체 등이 신입 사원들의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돕고 성장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제도로 활용, 그 진가를 톡톡히 인정받고 있다.

멘토링의 장점은 단연 '마음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걸림 없는 감정의 드나듦이 상호간 신뢰감을 높여 조직 활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또 단체의 핵심 가치나 문화를 강화·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이 밖에 멘토(상담자)와 멘티(내담자)간 원활한 지식 이전, 정서적 지지 효과 등도 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사섭법(四攝法)이 바로 불교적 멘토링

불교에는 가장 효과적인 멘토링을 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다. 이들 간의 공통분모는 바로 모든 인간관계를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렌즈라는 점이다.

우선 멘토링은 현장 훈련을 통한 인재육성 활동으로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준다. 이런 점에서 불교도 마찬가지다. 멘토링이 불교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불교의 '사섭법(四攝法)'이다.

애어(愛語:자상한 말로 노엽지 않게), 보시(布施:재물과 법을 공양하는 일), 동사(同事:남과 고락을 함께하는 삶), 이행(利行:이웃을 이롭게 하는 행동). 이 네 가지는 보살핌의 마음을 불교적 행동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불교적 멘토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불교식 멘토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노련한 코치'가 헌신적인 멘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험이 있어야 코치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멘토링 관계의 확장성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주문한다. 멘토링에서 멘토는 단순한 선배 기능뿐만 아니라 친구, 부모 등 무한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직장불자회내 개별적인 멘토링 관계의 직장불자들이 공통된 '신행활동'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직장불자회의 조직 기틀이 단단히 다져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조건균 사무국장은 "충실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 그리고 아낌없는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노력을 한다면, 직장불자들의 대인관계가 튼튼해지고 더 나아가 직장불자회 조직활성화에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훌륭한 멘토링을 위한 핵심 포인트 10가지

1. 자신의 가치관을 항상 인식하는가.
2. 자기 인식을 잘 하는가.
3. 항상 배우려 하는가.
4. 현실적으로 낙관적인가.
5. 변화에 대해 열정적인가.
6. 행동 지향적인가.
7. 융통성이 있는가.
8. 직설적일 수 있을 만큼 용감한가.
9. 진정으로 돌보려는 마음이 있는가.
10. 신뢰할 만하고 존경을 받는가.

우리불자회는요

경남 함양군청 공무원불자회

'함양', 불심 깊은 불교의 고장입니다. 예부터 고승대덕 스님들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구도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관내 60곳 넘는 사암과 7곳의 전통사찰이 이를 말해줍니다.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 우리 함양군청 공무원 불자회원들은 이 말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국민의 봉사자로 부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창립은 지난 2002년 1월에 했습니다. 유구한 불교역사를 가진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며, 늦은 감은 있지만 공무원 불자로서 세운 서원은 대단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 실천과 일터신행의 생활화를 위한 불자회원 37명의 발원은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신행활동은 창립과 동시 매월 한 차례 관내 사찰 순례법회로 시작했습니다. 지역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순례법회를 통해 차근차근 불심을 키웠습니다. 초창기 땐 불교에 '불'자로 모르는 초짜였지만, 지금은 자칭 '불교박사'가 다 됐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또 문화소외 지역인 우리 고장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함양불교사암연합회와 연합신도회와 함께 연등축제는 함양 산골 구석구석에 자비의 연등을 밝혔습니다. 그때의 환희심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등축제의 열기는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연등축제 수익금을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려는 우리 불자회의 초발심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지혜의 빛 자비의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연등수익금 총 1천여만원을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함양군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열한 구도열을 불태웠던 선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음력 9월 9일 용추사 주변 부도군에서 '헌다식'을 봉행했습니다. 특히 우리 불자회는 산골 노스님들의 찾아 '나무해주기' 봉사활동을 펼쳐 나눔의 실천행도 펼쳤습니다. 올 2월에는 함양군 서하면 약사암을 방문해 1년간 뗄 나무를 창고에 재워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해 1월 열린 경남 함양군청 공무원불자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일상적인 신행활동 이외,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산골 노스님 방문, 관내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펼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월 2회 토요 휴무일에 맞춰 산사체험과 수련회에 참여해 신심을 다지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올 음력 9월 9일에 열리는 '선승 부도탑 헌다식'을 여법하게 준비해 함양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경택 회장(건설과장)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진희이 소강절 두 분 선생의 비급!

▸후천을 연 대한민국

주역으로 풀이한 대한민국 100년사
무극시대(1910~1944)
→태극시대(1945~2004)
→황극시대(2005~)
※ 신국판 384쪽, 16400원.
저자: 건원 윤상철.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운명인가?
54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초봉의 혼란
45년 8월의 광복부터 2004년 8월말까지의 60년은 태극시대에 해당하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다(1편).
6.25동란은 음과 양이 교류하여 이이를 잉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170~175쪽)
올 8월말까지 막가파식으로 다투어야 나라가 잘된다(280~282쪽)
9월 2일 신시의 사작경신의 행사가 시작되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길러지고 통일을 열 庚金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다(3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水路, 신의주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陸路, 나진에서 북극으로 뻗어가는 精神路의 삼태극이 이루어지면 人極人尊시대가 열린다(3편).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더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져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자미두수 전서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자미두수의 완결판, 진희이선생의 비급 자미두수전서를 완전번역. 역자: 이두 김선호.
『자미두수 입문』『심곡비결』이 7월 초에 출간됩니다.

▸하락리수(河洛理數)



4×6배판, 총 1900여쪽
상하 1질 100,000원
저자: 김수길·윤상철
(부록:하락리수 쉽게보기)
진희이 선생이 창안하고, 소강절 선생의 완성한 하락이수의 상세한 해석과, 작괘 풀이법을 설명. 자신의 사주에 따라 일생의 운과 년운 월운 일운의 길흉을 판단할 수 있는 학문으로, 정이천 같은 철학자와 소동파 같은 문인도 그 정확성에 감복하여 일생의 지침서로 삼았다는 놀라운 적중률의 주역활용서.

CD 하락리수(河洛理數 프로그램)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과 선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첨괘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 가격 300,000원
총괄: 윤상철,
2004년 6월 증보.

▸편해매화역수(編解梅花易數)



※ 4×6배판 증보판
20,000원
저자: 김수길·윤상철
2004년 3월 20일 증보판 발행.
"열기는 소강절"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주역의 대가이지 정의 최고봉이었던 소강절 선생 그 점학의 진수와 대가들의 비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점법에 따른 점치는 방법과 해석을 실전위주로 정리. 기존 편해매화역수에 소강절선생의 절자수, 글자점, 황극책수조수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여 소강절 점학에 대한 이해를 넓힘.

▸근간안내

자미입문
심곡비결
비서삼종
주역입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장묘문화사업할분

- 위치: 경북군위, 집단묘지지역 11만평
- 현4만평사용, 년관리비 3억이상
- 화장장설치운영, 납골시설조성 허가득
- 묘지 납골당 분양시 200억이상
- 인수금액 35억 (5년내 회수가능)

02)423-6212
016-569-9852

예수재, 49재, 천도재, 화청, 바라, 나비무, 점안식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91-5692
범음범패 이수자 성불암 용산 합장

계란 노른자 기름
냉한수족, 중풍치매, 협심증, 간장, 변비, 비만, 치질, 정력증강을 위한 건강식품
※ 1개월분 5만4천원
H.P 011-557-2773
017-608-3385
우체국(예금주)조순자
611038-02-019728
※ 특히 스님들께 권합니다. 光法寺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평생직업 「역학상담반」 33기 모집요강
※ 확실한 곳에서 제대로 배웁시다!
▶명리학을 배웠으나 상담을 못하시는 분(책임지도)
▶교육이수후(수료) 역학자격증, 법사자격증, 대학졸업증 수여
◎ 역학상담
● 교육기간: 4개월 (화, 목, 토)
● 교육시간: 주 13:00~16:00 야 19:00
● 입학자격: 연령, 학력, 남녀 구별없음
● 교육과목: 사주, 성명, 잡학, 불교학(책임지도)
● 교육 이수후 취업 안내(ARS 전화상담 및 창업개설지원)
범왕불교대학 교무처 02)444-3459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77 모던빌딩5층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www.SAJU college.com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 착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비구니기도스님 구합니다
▷경기 포천
011-9491-92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관음도량
▷포항 자장암
011-584-0888

칠보사 부전스님 모십니다
약사암 기도스님도 모십니다
▷경력: 승려생활 10년 이상
▷대구 초래산 칠보사
053)963-89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절에서 요양하고 수양하실 나이 60대초 보살님 모십니다
010-2856-92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가족처럼 지내실분
▷50~60대 ▷경남 고성
055)674-6625
055)674-6673

사찰에서 일자리를 원합니다
50代 독신처사
▷1종대형면허소지
011-262-6861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공부 요양 하실 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땜 옆
055)932-5706

기도스님을 구합니다
054)833-2324
054)834-6934

서울과 서울근교 사찰 토굴 포교원 운영 수행하면서 생활할 비구, 비구니스님 초빙
017-390-0909
019-9108-0909

부산 영도 사찰에서 50~6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994-4125

토굴, 작은 암자, 외딴 촌집, 불사 가능한 터 (땅) 시주해 주실 분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1-9122-0509
011-9416-2261

가족처럼 함께 할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기화성
▷조계종 무우사
011-9205-5679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45~55세
▷경기도 일산
017-361-4513

기도 노전이나 개인사찰 주지 원함
019-590-3558

산 삼
스님이 심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을 불자님들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판매 합니다
016-804-1717

자기 전생미래를 보는곳
전생체험 여행이야기
현재 일어나고있는 일들이 전생과의 무슨인연일까!
▷부산 사상구 주례1동 도불사
051)327-0477
019)556-6047

일침기요법 특강
(一針氣療法)
그 동안 한의사, 의사, 침구사 여러분이 갈망하던 일침비법을 전수 공개합니다
◆장 소 : 금강선문 대강의실
◆개 강 : 2004.6.27(일)09시
◆특강료 : 50만원
◆인 원 : 선착순 10명
◆문 의 : 02)468-5388
사단법인 금강선문

실버하우스 오픈
산좋고 물좋은 경기 양주땅 감악산 율림선원에서 여생을 가족처럼 지내실 인연을 찾습니다
031)867-1801~2
011-792-0550

백혈병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대원사 어린이 불자(김선정 엄사초등5학년)가 불치의 백혈병에 걸렸으나 막대한 수술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경을 해매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의 정성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원사 주지 조석용
●후원계좌 : 농협 461083-51-009439 예금주 대원선원
문의전화 011-436-7529 / 042)841-7830

탈종공고
●사찰명: 보광선원 ●주지: 보광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2 영신빌딩 203호
상기사찰은 귀 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합니다
불기2548년 6월 7일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뻑뻑함.
* 침침함, 눈부심, 가려움, 이상하게 보임.
* 당뇨등 다른 질병으로 인한 눈 이상.
* 눈 수술전후, 기타 눈의 불편증세



눈에 좋은 물질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日本 (주) MERCURY-MK
일본 성인병 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국제 보살계 수계법회
계는 만복의 근원이요 수행자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보살계를 이미 받으신 분이라 하드라도 계는 받을수록 좋은것이니 특히 국제 수계법회는 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생을 통해 3번만 수계를 받으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수계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다겁생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지금 큰 공덕을 성취하는 복락을 누리십시요.
▶ 일 시 : 2004년 6월 27일 오전 10시~ 15:00까지
▶ 장 소 : 부처골 지장선원 노천법당(군위고을 화목 2리 인각사 절 못가서)
▶ TEL 054)383-8553, 011-9585-4908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 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또는 숫자 8228 참조
대한불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조 계 종 (053)474-8228 납골당 운영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7. 5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월 첫주 금요일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증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 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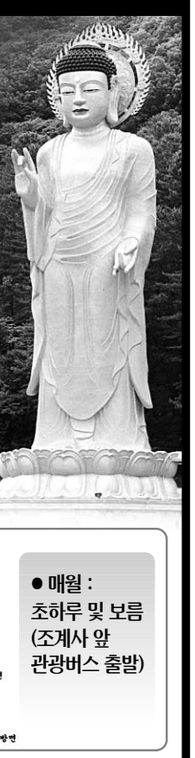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불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3평
- 요사 : 6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8억

- 위치 : 대구
- 법당 : 35평
- 요사 : 12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북봉화
- 법당 : 토굴 15평
- 요사 :
- 부지 : 3600평
- 가액 : 9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대전시 중구 대흥동
- 평수: 3층 70평
- 법당 25평, 방 5개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011-438-9893
041)732-422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온천3동
- 71평 3층
- 법회즉시가능
- 가액: 전세 7천만원
  (5천만원에 월20만원)
- 포교당 15년 됐음
- 시설비 없음

011-9571-171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9848-3178
016-603-0160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 4층(40평)
- 방 2개, 주방(단독주차)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특징 : 주변 주택 및 APT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436-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부지 : 900평
- 법당 : 33평
- 요사 : 6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 대지 및 임야 20,500평
- 건물 : 대웅전,극락전,요사채3동 및 다수(연못2곳,석탑,불상등)
- 특징 : 1. 조경수려
  2. 예산시내와 인접하여 교통매우편리
- 가액 : 35억
- 실소유 하실 분만 연락요망

017-433-4525
011-422-2909
011-9883-0008 주인직접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2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041)753-813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시내 10분거리, 도로변
- 평수 : 30평 독채
- 큰방 2, 주방, 샤워실
- 가액 : 전세 1천3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무
- 역학 하실분 적당

055)386-2376
017-563-4602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02)481-36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 대지 : 85평
- 3층 : 법당 30평
- 2층 : 요사 50평
- 1층 : 임대 50평
- 지하 : 임대 50평
- 양도가 : 4억3천(융자있음)
  (3억인수가능)

[포교당]

- 위치 : 경기도 일산
- 평수 : 105평
- 법당 : 40평
- 요사 : 50평
- 보증금 : 2천 월1백5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건설팀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버스정류소앞 지하철 1분)
- 평수 : 55평 4층 전관,법당 20평 온돌방 6개, 삼존불, 삼존탱화, 욕실크고 주방2, 엘리베이터有
- 내부한옥식으로 잘 꾸며져있음
- 전세합 7천만원, 월50만원

011-9678-2979
018-801-2566

절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 (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9415-6831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시설비 포함 6천만원에 월60만원
- 살림일절, 몸만오셔서 포교하실분 따로상담가능

031)432-74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건물 4층 콘크리트
- 1층 법당. 2층 공양채. 3,4층 주택
- 산을 끼고 있으며 용도변경 가능함
- 법당 부분 주불 관세음보살 호신불 305불 조성되어 있으며 단청되어 있으며 법당 시설비는 일체 받지 않음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051)343-5689
011-597-888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시 은평구(북한산)소재
- 부지 : 250평
- 법당 : 40평(임법당)
- 가액 : 8억(전세가능)
- 특징 :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사찰임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북 안동시 소재
- 법당 : 35평(임법당)
- 가액 : 3천만원
- 특징 : 시내에 인접한 조용한 토굴로 공부할 스님과 기도정진 할 스님에게 적합합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운양면
- 건물: 일반 한옥 사찰
- 요사채, 총건평 45평 대지 159평 삼존불, 각단 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교통편리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
- 모든시설 사용이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 철학관 최요지

- 위치 : 부산 거제동 아파트 단지 법원 인접
- 6층건물 중 5층
- 평수: 50평
- 학원 운영중 용도 변경 가능

011-837-9823
051)502-7227

사찰안내

- 위치: 수원시내 주택지
- 대지 61평, 건평 50평 2층 법당 요사 겸
- 후불탱화,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 법회시설완비
- 가액: 1억6천만원

031)254-6425

사 찰 안 내

- 위치: 정동진(바다바로옆 위치) 전망최고
- 오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1동은 건물등기 되있음
- 몸만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33)644-5797
011-9918-5251

사 찰 안 내

- 경남 마산시 화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부지, 대웅전 31평, 목조, 상포, 오포, 금단청 필 명부전 10평, 단청 필, 요사 80평, 방 10칸 주방 2개, 거실 주지실 10평, 기타 창고 약 6평, 주차장 100평정도
- 가액 : 9억(건물완공 약 7년)

※ 소개인 사절함

055)294-4889 / 011-554-0102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신축사찰-1억3천5백만원 (전세 4천5백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산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 상가 2층 법당 실평수 20평 (사정상급매)
- 방2개, 넓은 응접실, 편리한 구조
- 시설비 : 300만원
- 가액 : 전세금 2,500만원

011-519-080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대 전철역 부근
- 평수: 32평
- 옥상 사용가, 방2개, 주방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1-9178-636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 법당 12평(목조),
- 요사채 25평(현대식)
- 가액: 9천만원 (불기 및 비품 일체)

016-652-7547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의정부시 시청앞 공영주차장 앞
- 5층 건물에 4층, 42평
- 방1, 주방1, 도시가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약정

031)873-8171~2
011-258-643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 대지 : 60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공양간, 사무실
- 가액: 4억5천만원

011-9387-4446

암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 법당, 요사, 산신각, 용화전, 용왕전, 정각2
- 경치 좋고 산세 수려함
- 평수 : 2530평 (평당 30만원)
- 실버타운 가능

011-9126-2266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30만원 권리금 1500만원

051)503-0908
019-219-555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 IC근처
- 대지 : 500평, 법당1-80평, 신축회관, 한옥 23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 임야 6천평-3천만원 (동해바다가 보임)

033)661-1375
011-202-8288

토굴(급)안내 (작은암자)

- 위치: 경북 영천
- 평수 100평, 건평 30평
- 가액: 37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560-919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역앞 초량2동
- 3층법당 공양간 대중방 주지실 법당 종무실
- 삼존불 후불탱화 70평 산중탱화 104위 70평, 산신탱화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51)466-7237
019-9116-3399

사찰(급)안내

- 위치: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에서 5분거리)
- 대지: 380평, 법당 23평 목조 단청, 입불석조약사여래불, 칠층석탑,
- 산신당(목조단청), 종각(단청), 용왕당
- 요사채 2동 반지하 150평이상(방7개) 보일러시설
- 특징: 성산일출봉이 법당에서 보이고 우도 섬이 보이는 봉긋한 동산위의 아담하면서 깨끗이 단장되어 있는 절
- 가액: 5억, 바닷가에서 3분거리
- 연락처: 011-858-8892 064)782-4365
- 제주시 중심가 불교선원, 포교원 3층 40평 년세 권리금 비품포함 총가액 2500만원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월평동
- 평수 : 3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011-9585-9899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 평수: 1000평 (등기상 500평)
- 옆에 하천(수량 풍부) 해발 300고지

011-501-8310
053)767-4303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천8백만원

032)511-4974
부전스님 필요하신곳 연락바랍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 12m 도로 인접
- 전철역 2분거리
- 평수 40평, 법당 25평, 방2개, 주방, 화장실
- 가액: 평당 280만원

016-574-0437
051)512-0437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포교최적지)
- 평수 : 25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절충가능)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 있음

032)543-9245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재산면
- 명당터, 산세수려
- 불사할 석재 있음, 석간수, 계곡
- 평당 2만원 총평수 2252평

054)674-1832
011-9398-1832

사찰안내

- 위치: 동작구 사당동 7호선 남성역 부근
- 평수: 약 45평 2층 건물중 2층 전체
- 가액: 보증금 1천5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 구조: 법당, 큰방2, 공양간, 접수실

011-9808-010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4층 중 2층
- 방3, 부엌1, 화장실1, 법당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822-6104

비구니스님 토굴안내

- 위치: 경주시 근교
- 대지: 두필지 240평
- 임법당, 예날 흙집
- 교통편리, 욕심을 벗어두면 공기가 너무 맑고 조용한 시골마을입니다
- 보살님도 가능 주변 땅 매입이 용이
- 가액: 답사 후 절충

011-9211-6385

포교당최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 평수 : 45평
- 큰법당1, 방2, 부엌, 목욕탕 삼존불(후불탱화), 지장불(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용왕불
- 전세 :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사정상 급 안내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살림)

051)327-0477
019-556-60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2층 건물
- 시설: 삼존불, 각단 탱화
- 평수: 전체50평 중 법당 20평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사정상 급 안내

016-640-81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 찰 안 내

- 위치 : 포천시 경기 승마공원 입구
- 부지 1천3백평
- 건물 53평, 25평
- 17평 3개동
- 가액 : 3억5천만원
- 서울강남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 서구 배재대 부근
- 3층 건물에서 2층
- 평수: 50평
- 법당 25평, 방3개, 주방1, 창고, 화장실
- 전세 2천2백만원 시설비 1천4백만원

019-699-2201
010-440-7161(키관리)

사찰안내

- 위치: 팔공산 갓바위 밑 아늑한 소나무 숲속
- 텃밭있고 주차장 넓은 신축법당
- 삼존불 넓은 거실 방4개
- 스님 대불사 관계로 급매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7-537-1739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 (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대흥동 보문산 입구
- 평수 : 25평
- 시설 : 2층에 위치, 법당 (삼존불), 탱화, 거실, 부엌 살림 일체 있음
- 즉시 양도 입주가능함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절충가능함

042)527-3800
017-403-3800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 충남도청 앞 (대전역 5분거리)
- 평수: 70평(지하1층)
- 법당 30평, 방 4개
- 보증금 3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

011-9546-8868
041)732-4226

고판화 전문박물관 원주 명주사에 오픈

2천5백여점 소장 … 선학 스님 8년간 수집

목판본 위주, 불정심다라니경 등 진귀본 많아



고판화 박물관 소장품 중 하나인 불정심다라니경.

우리나라 최초의 고판화 전문 박물관이 강원도 원주 명주사에서 문을 열었다.

명주사 주지 선학 스님이 8년간에 걸쳐 모은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등지의 고판화 2천5백여 점을 소장한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20일에 개관식을 가진 것. 박물관이 세워짐으로써 유실되기 쉬운 고판화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소장품은 주로 목판이 많은데, 조선시대의 <불정심다라니경>을 비롯하여 원 · 명 · 청대의 수륙제판, 삼존불경변상도판, 대세지보살판 등 오래 되고 예술성까지도 갖춘 작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소장품 중 하나인 조선시대의 <불정심다라니경>의 경우 호림미술관에 소장된 다른 인출본이 보물 제1108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국립춘천박물관 최응천 관장은 "문화적으로 낙후된 곳에 이처럼 훌륭한 개인 박물관이 세워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고판화의 가치를 일찍 깨달은 선학 스님의 안목을 높이 평가했다.

선학 스님이 고판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호국원광사(국방부 군법당) 주지 시절 중국 항주의 야시장을 방문했다가 고판화의 매력을 발견한 것이 계기.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출신인 스님은 예술적 감각과 열정으로 판화를 수집했다.

스님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은 '중국 오대산 성경전도'다. "인출(印出) 솜씨가 워낙 뛰어난 작품인 데다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얻어온 곳이 오대산"이기 때문이다.

평소 자연, 명상, 문화가 있는 사찰을 지향해왔다는 스님은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명주사에 문화적 요소를 갖춘 셈"이라며 "일반 사회인에 포교할 수 있는 방편을 갖게 됐다"며 기쁨을 피력했다. (033)766-7886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건봉사 능파교 옛모습 복구"

지원단 구성, 주변환경 개선 등 대책 세워

보수공사 도중 붕괴된 보물 1336호 건봉사 능파교(본지 478호 3면 기사 참조)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 건봉사 보안원에서 문화재청 주도로 복구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문화재청과 고성군청의 관계자들과 철현 스님(건봉사 총무) 등 20여명의 참석자들은 능파교의 옛 모습을 최대한 복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건봉사 능파교 복구지도단(단장 정영호, 전 문화재위원)'과 실무지원팀(팀장 이만희, 문화재청)을 구성했다.

이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일제 강점기에 변형된 부분을 좀더 폭넓게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호안석축과 하대석까지 해체해서 변형된 부분을 조사할 필요성은 애초부터 제기되었으나 사업비 한계로 제외된 바 있다.

손영식 한국전통건축연구소 소장은 복구 가능성은 낙관하면서도, "충분한 조사와 풍부한 토의를 거쳐, 다리뿐 아니라 주변환경까지도 개선하는 제대로 된 복구가 필요하다"며, 인근에 공사 중인 육송정 홍교(보물 제1337호)의 꼼꼼하고 정밀한 시공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했다.

실무지원팀장 이만희 사무관은 "안전하고 완벽한 복구로 능파교 원형을 복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축사 3층석탑 복원 청신호

원형 근접 도면 완성, 제작연대 파악

결실 부재 발굴 · 형태 추정 등도 순조

울산시 유형문화재 11호인 동축사 3층석탑 원형 복원의 길이 열렸다.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3개월여의 동축사 3층석탑 복원 사전조사를 통해 탑의 결실된 부재를 발굴하고, 남아있는 부재를 실측하여 원래 용도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부재를 찾아내는 데 성공, 원형에 근접한 복원 도면을 완성했다. 도면을 토대로 연말까지는 이 석탑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조사는 없어진 부재 형태 추정을 통해 원형을 찾아내고, 제작연대가 통일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라는 것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다. 한정호 수석학예사는 "복원이 완료되면 방치되어 있던 유물이 제자리를 찾음은 물론 사찰은 상징물을 되찾게 되는 것이며,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울산시 용역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유적이 많지 않은 울산시가 공들이고 있는 동축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동축사 3층석탑은 1970년대 이래 동축사 외곽으로 이전되어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동축사 3층석탑.

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9>

생명과학의 윤리와 불교

과학 연구는 인간의 인식 한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제 작게는 분자구조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크게는 몇 백 광년이 떨어진 먼 곳의 별들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예전의 좁은 인식 범위에서 생긴 여러 기준들은 과학 지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생명과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생명과학이 개체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생명체를 연구하고 있지만 생명과학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지녀온 우리의 인식 한계를 넓힘으로서 과거의 좁은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들의 관계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생명과학의 연구결과가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학이나 인문학에 영향을 미치며 또 우리의 윤리, 도덕, 관습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연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연구결과는 인간사회에 큰 영향 줘

전체적인 관계와 조화 속 연구돼야

최근 네이처(Nature)라는 학회지에서 한국에서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성을 거론하였고 국내 일간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에서 실행되어 발표되었던 연구는 그 방법에 있어서 240여개의 건강한 난자를 사용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것이었다. 기존의 인간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그 실험 과정에서 결코 윤리적일 수 없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험 과정에서도 윤리적인 면이 엄밀하게 준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과학자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은 지극히 불교적이다(불교가 과학적이란 말은 우스운 말이다). 진정한 과학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야기된 국내 연구에 대한 국제 학계의 문제 제기를 보면서 단순한 개체 연구를 하는 생명과학이 너와 나 상생의 생명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나중도 좋아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정 자체가 동시에 곧 결과임을 아는 불자이기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연구 과정이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식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과학자는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왜 이 연구를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도구로서의 과학은 맹목적이며 또한 사물을 지극히 잘게 잘라 분석적으로 행한 특정 연구 결과를 종합함으로서 전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에 과학연구는 항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상황이 존재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닌 과학자라면 모든 생명의 인드라망으로 표현되는 연기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어 전체적인 관계와 조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면이 불교가 진정한 생명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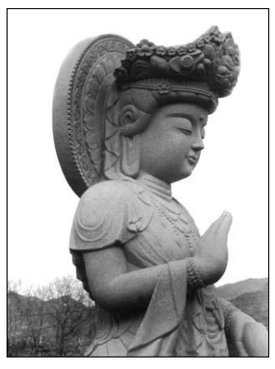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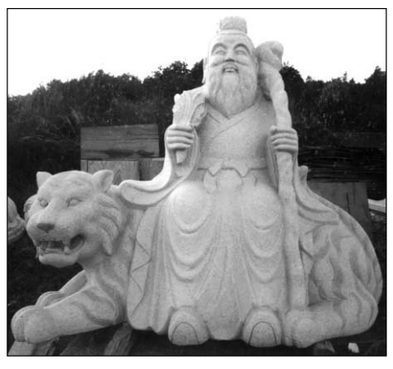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세계불교 법왕종)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흥사 주지 구천 합장

일주문



거제 장애인시설 '반야원' 개원
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정련 스님은 6월 26일 오후2시 장애인요양시설인 거제도 '반야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051)242-0691



관음사 청신사회 7돌 법회서 법문
수원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6월 26일 송광사 부산 분원 관음사 청신사회 창립 7주년 기념법회에서 특별 법문을 한다. (051)294-9300



'승찬대사 신심명' 강의
서울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7월 1일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승찬대사 신심명' 강의를 갖는다. (02)733-5322



인터넷상담봉사자 전문화 교육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6월 30일 개발원 상담실에서 인터넷상담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02)737-8803



혜초 스님 주제 강연
고려대 강사 정수일 씨는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교전문강당에 초청돼, 6월 29일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혜초 스님을 주제로 강연한다. (02)732-4923



익산 미륵사지로 석불친견순례
한국석불선양회 이귀인 회장은 7월 4일 전북 익산 태봉사, 미륵사지 일대로 50회 석불친견순례법회를 떠난다. 016-267-7945



통도사서 하계수련회 개최
전국전력인불자연합회 이인규 회장은 6월 19~20일 양산 통도사에서 2004년도 정기 합동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BBS 사장에 이성언 씨

진흥원 이사회서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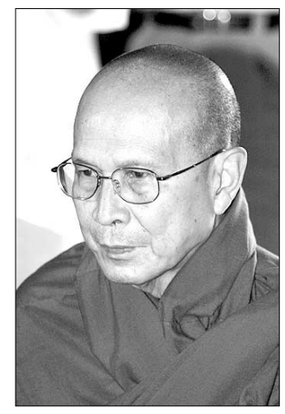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6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이성언 씨(주식회사 GS인터내셔날 대표이사·사진)를 만장일치로 선출, 15일 불교방송재단에 추천했다.

이성언 사장 후보는 1949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1년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 일본홍콩영사관과 대사관 공보관을 역임했다. 95, 96년 공보처 광고진흥국장과 신문방송국장을 역임하고 1999년 문화관광부 관리관(1급)으로 명예 퇴직했다. **김원우 기자**

"정진과 집중이 사념처 수행의 근본"

우 실라난다 미얀마 불교대 총장

동국대 정각원서 특별강연



"정진과 마음집중, 확철은 사념처 수행의 필수조건이며 몸, 마음, 느낌, 법을 중심으로 전심전력해서 명확히 깨닫는 것이 사념처 수행의 근본입니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은 6월15일 미얀마 아비담마(논장)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우 실라난다(U Silananda·사진) 스님을 모시고 '미얀마의 아비달마 연구'를 주제로 특별 법회를 열었다. 초기 불교의 이론적 지침이 되는 아비담마 철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열린 이번 법회에는 일반 불자와 교직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상좌부 불교는 강하고 균형 잡힌 정신력과 주의력 그리고 통찰력을 통해 생사윤회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탈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팔리어로 쓰여진 남방 상좌부 경전 중 장부 2경인 <사문과경>같은 경전이 인간의 정신과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미얀마 불교의 특징을 설명했다. 스님은 "한국의 아비달마 연구 수준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아비담마 상가해>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로 번역된 것을 알고 놀랐다"며 한국불교학의 연구 수준을 높이 평가 했다.

스님은 지난 6차 세계불교도결집대회에서 팔리삼장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 미얀마 불교대학 총장으로 미얀마 현지의 사원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선원에서 위빠사나 명상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신계사·영통사 복원 남한 불자들 호응에 감사"

6·15 4주년 대회참석 심상진 조불련 서기장



"남·북한 모두 내 나라 내 민족입니다. 고향에 온 듯 편안합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돼,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불교도련맹(이하 조불련) 중앙위원회 심상진 서기장(사진)이 6월 14~17일 인천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우리민족대회'에 북한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심 서기장은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과 함께 남북 불교 교류를 통해 가장 널리 알려진 북한 불교계 인물이다. 그의 남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

용천사고 관련 정토회 도움커

"금년 안으로 개성 영통사 복원 공사를 마무리짓게 됩니다. 남한 천태종이 기와와 상당량의 자재를 지원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계사 대웅전과 3층 석탑의 복원 공사도 조계종의 도움으로 올해 내에 끝맺을 생각입니다. 모두 남북 불교계가 공조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남한 불자들께 감사합니다."

심 서기장이 남한 불자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다. 심 서기장은 최근 북한 불교계의 움직임을 전하며, 특히 최근 룡천역 사고 복구에 남한 불교계가 도와 준 것에 대해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룡천역 사고가 발생한 직후 남한 정토회가 보내준 의약품과 물자가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북이 하나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과 정토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라영식 조선불교신도회 회장과 함께 남한을 방문한 심 서기장은 인천에 머물며 남한 불교계 대표들과 만나 불교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 대중화 밑거름 쌓기 지역 언론인 불심 모을터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송병국 회장



"언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특별한 만큼 불교계에서도 지역 언론불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도 출범 5년을 넘겼으니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불교에 대한 일반사회의 관심을 모으겠습니다."

6월 10일 불교TV 대구지사에서 개최된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3대회장 송병국 건설위원(대구문화방송 아트센터건설본부·54·사진)은 "회원 모임중심의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 활동을 한 차원 높여 불교의 대중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계와 대화를 갖고 회원들과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부·사회활동 적극 전개 방침

송 위원은 또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의 교육과 수련활동을 정례화해 불교언론회원들의 신심을 깊게 하고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신행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인 중에는 진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며 회원 중에는 처음 불법을 접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송 회장은 이들에게 깨달음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불교언론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개개인이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 불교언론인회의 대 사회적 활동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는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의 방송과 신문 11개사 소속 7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송 위원은 대구문화방송 보도국 제작부장, 편집부장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호국영령·은평구민 위한 기원법회



서울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구청 불심회는 6월 1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구청 대강당에서 '제16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보훈단체 회원 및 청빈공무원 자녀 17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대한경불회, 창립3주년 기념 수련회



대한민국경찰불교회는 6월 12~13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창립 3주년 기념 수련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강화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 등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우리말 의식 수련, 참선, 임원단 정기 회의 등이 진행됐다.

위덕대, 1학기 평생교육원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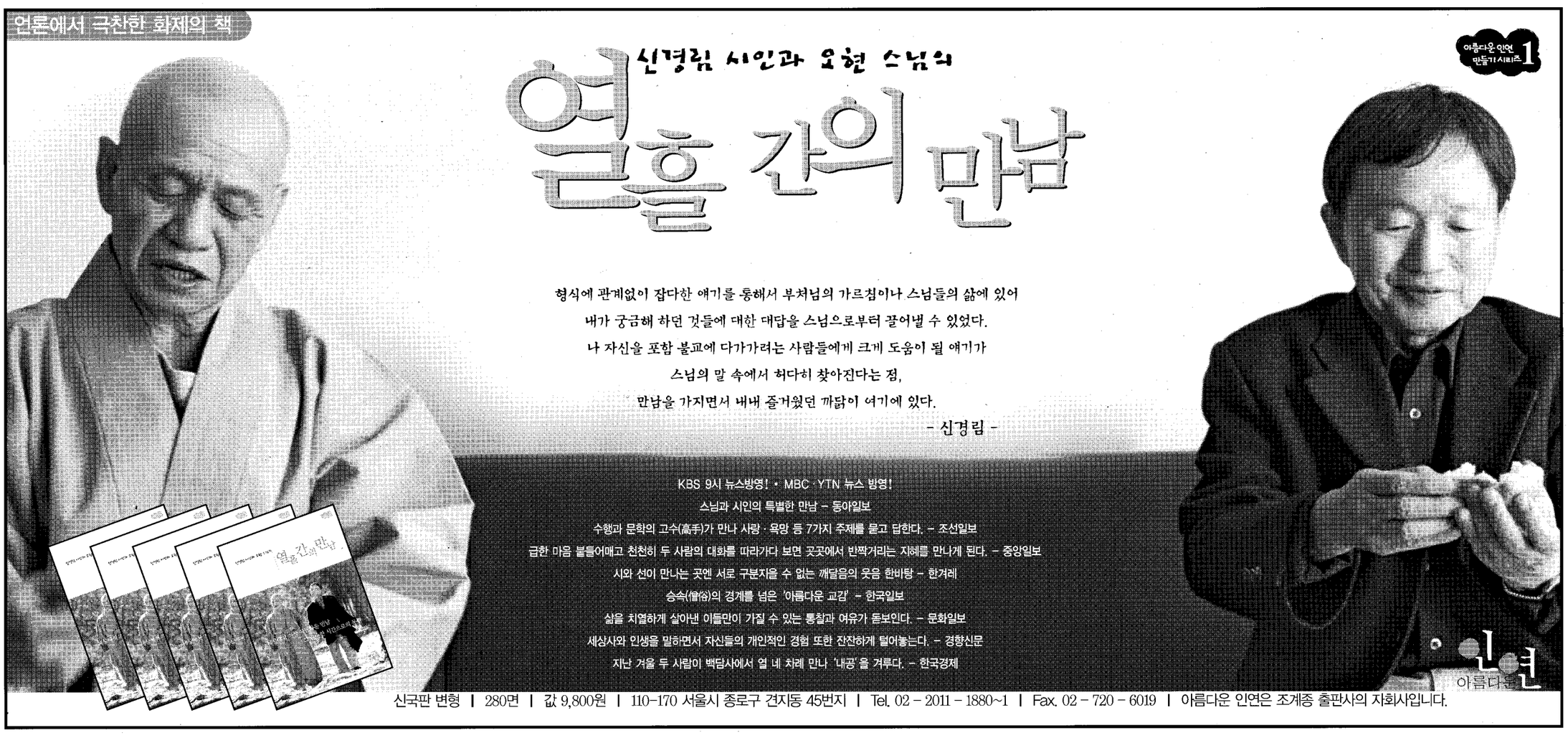


경주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이영기)은 6월 10일 지혜관 대강당에서 2004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실시했다. 총 45개 과정 860여 명의 수료생들이 참석한 수료식에서 이영기 원장은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불기협, 공주 마곡사서 상반기 연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6월 12~13일 공주 마곡사에서 상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불교기자협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에서는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법' 강좌,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불자 세상보기

김 영 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여성빈곤의 내막

빈곤은 그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런데 빈곤의 거울 속에 언젠가부터 여성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남성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무능력한 여성가구주들, 홀로 사는 여성노인의 얼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하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남성을 떠올리곤 한다.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피부양자로 생각하는 현실속에서 여성은 빈곤에서 일정부분 비껴나 있었다.

최근들어 계층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매스컴 등 사회일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빈곤과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현상을 주목하게 했다. 그것은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빈곤의 여성화'라고 하며 세계화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들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부터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약자에 대한 보호등 보살피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는 거의 평가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정에서의 보살피는 자의 역할과 유사한 유치원교사, 간호사, 보모,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등 특정직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직업은 핑크칼라직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특정한 기술 없이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여성의 저임금과도 관련된다.

현재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2년 8월 현재 여성노동자 중 70.7%가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우선 해고 또는 비정규직 전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이며 여성의 1차적 역할은 가정에 있다'는 해묵은 이분법적 성역할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리함은 사회복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아내와 두 자녀를 가진 정규직 남성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부양자인 남성배우자가 없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사회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현재만이 아닌 미래에도 노령, 실업, 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거의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빈곤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여성운동의 활성화, 여성부 신설,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제정 및 시행 등으로 일견 여성의 권익이 상당히 신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 뒤에는 또 다른 여성의 문제, 즉 여성빈곤이 가려져 있었다. 현재 여성빈곤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됨에 따라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부르디외(Bourdieu)는 <세계의 비참>에서 어려운 삶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해 '통탄해 해서도 안되고, 비웃어도 안되며 오직 이해하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탈빈곤을 위한 대안마련은 우선 엘리트가 아닌 가난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세계 각국에서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여성 불자들이 이달말 한국에 집결한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샤캬디타)'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여성 불자의 교육과 수행 : 현재와 과거'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와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어우러지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61명의 세계적인 여성 불교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서는 이번 대회는 적지 않은 규모의 국제 행사로서, 무엇보다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학술 발표에서 소개될 논문들은 대부분 여성 불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의 중심 학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불교생태학과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논문도 눈에 띈다.

세계여성불자대회에 부쳐

그동안 한국 불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에서 여성 불자의 지위는 결코 열등하지 않다. 대만을 제외하고는 한국만큼 비구니 교단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개신교나 가톨릭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한국 불교만큼 양성 평등에 근접한 종교도 없다 할 것이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은 비구 스님과 대등하게 직접 설법에 나서고 의식을 주관하는 등 활동 범위가 넓다. 비록 불교에 팔경계법이 있지만, 이 법의 본질은 남성 우월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가에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생존 당시 인도는 폐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시대적 · 사회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출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혁명적인 일이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팔경계법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치러진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 국제학술대회에 이어 열리는 세계여성불자대회가 한국 불교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여성 불자의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불교 국가들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경준(동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대화의 힘

'만일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열어 모인다면, 만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으리라' 〈중아함 우바새경〉

6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해발 112m 고지 위 가로 4m 세로 3m짜리 초대형 확성기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분계선(MDL) 155마일 선상에서 연일 남북간 '입씨름'을 벌이던 확성기와 '눈싸움'을 벌이던 전광판 · 입간판 등이 철거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6월 12일 개성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16일 오전 0시부터 8월 15일 오후 7시까지 MDL 지역 내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눠 철거키로 합의한 후 첫 신호탄인 셈이다.

분단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지 4년이 흐른 지금, 육로를 통해 금강산 여행을 갔다 오는 세상이 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계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봉행됐다. 남측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전통사찰인 금강산 신계사를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4월 6일 신계사 터에서 착공식을 거행한 후 일련의 후속작업인 것이다. 천태종도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기왓장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 한국으로 가기 위해선 여러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 중 남북이 상호 비난을 자제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주 모임을 열고 일을 함께 하는' 길을 택한다면 통일 한국의 미래는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을 것'이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茶 기준 제시하는 품평회로

경주에서 7월 중순경에 차 품평회가 열린다는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보았다.

나는 다인(茶人)이라고 자처하기엔 부족함이 없진 않지만 평소 우리 차를 즐겨 마시고 있어, 차 품평회에서 전문가들이 좋은 차를 골라준다니 참 반갑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내 입맛에 좋으면 좋은 차려니' 하고만 생각하면서도, 좋은 차는 어떤 것일까 항상 궁금했었다. 차를 사러 가면 좋은 차라고 구분을 해놓았지만, 정작 내 입맛엔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가격이 아주 비싸 좋은 차라고 파는 것들만 마시기에는 부담이 많이 됐었다.

차 품평회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의 행사라고 들었다. 그런 만큼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맛 좋은 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길 바란다. 또 시중에 나온 차 가운데 좋은 것만 가리지 말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혹시 차 가격에 거품이 있지는 않은지, 품질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높이 책정된 적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준다면 우리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강식(서울 성북구 석관2동)

사찰 시스템 변화 절실

요즘 사찰이 사찰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 이제는 사찰도 포교든 수행이든 사찰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분화되고 있음에도 일부사찰은 구태의연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절을 처음 찾아온 이들에게 무조건 신심만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어, 새 신자가 찾아오면 그들을 안내할 안내소를 설치한다거나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사찰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도량 내에 마련해 놓는다면 아이들을 떼어놓고 절에 올 염려를 하지않아도 좋을 것이다.

요즘은 사찰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무뚝뚝한 직원이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는 사찰에 누가 가고 싶겠는가.

이런 진지한 고민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한국불교와 사찰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로 사찰로 향할 수 있게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재희(대구 수성구 범여동)

독자의 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차피'란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쉽게 포기하려 하거나 그렇게 하고 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차피'가 '어느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분주하게 보낸 얼마의 시간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잦은 비와 바람을 뚫고, 환경을 뛰어넘은 소망과 신념, 그리고 안개꽃과 같은 희망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것은 한개, 두개씩 무너지고 잃을 때마다 조금씩 불교의 향기가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땐 누군가에게 "지금의 제 마음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위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같은 어두운 곳에 빛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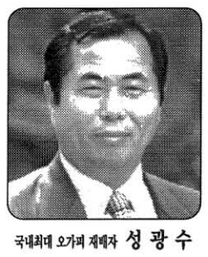
원주교도소 불교회장 박진선 드림

'현대' 만평 심 민 섭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신제품 발매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2004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中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내가 가진 모든것 가난한 이웃과 함께”

본지 신행수기 대상 받았던 차정연 보살의 나누는 삶

10년째 매월 첫 주 무료급식·목욕·수지침 봉사
때론 딸처럼 어머니처럼 어르신들 보살펴





차정연보살이 11일 부산엄궁동 동사무소 2층에서 수지침(사진위)과 무료급식(사진 아래) 봉사를 하고있다.

“어무이!”

경상도 사투리로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다. 6월11일 부산시 엄궁동 동사무소 2층,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무료급식소에서 차정연(52) 약수자비원 원장은 수도 없이 ‘어무이’를 불렀다. “어무이! 밥 더 잡수세요.” “어무이!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한끼 밥을 해결하러 온 어르신들이지만 차 원장은 일일이 손을 맞잡고 반기며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있었다. 그것도 잠시, 차 원장이 어르신을 “아가야”로 부르며 “우리 아가야, 오늘 아침에 목욕했나?”하고 묻자 어르신들은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듯 “응”하고 대답하며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때론 딸처럼 때론 어머니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보살펴 온 차원장의 일상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무료급식이 있는 날이면 이른 아침 차 원장과 혜향봉사단 단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목욕시키는 목욕봉사도 함께 한다. 봉사단원 일부는 차 원장이 일궈놓은 약수암 도량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일부는 목욕봉사에 나선다. 게다가 수지침과 뜸 무료 봉사도 있어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라곤 없는 나이의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차 원장이 이처럼 매월 첫째 주 무료급식, 목욕봉사, 수지침 봉사 등을 해 온 것도 벌써 10년째. 오랜 세월 한결같이 봉사하는 차 원장과 봉사단을 지켜본 어르신들의 칭찬이 대단했다.

“최고지. ‘아가야’ ‘아가야’ 하며 우리를 목욕시켜주지, 침 놔주지 너무 고마워.” 손은님(86),남준이(76) 할머니는 “좋아! 좋아!”을 연발했다. 배종명 동장도 “어르신 섬기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동사무소 수지침 강의료를 받으면 전액 또 봉사에 쓰는 걸 보면 대단하다”고 말했다. 20명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엄궁수지회, 자비신행회, 삼선회, 약수회 등의 조직을 갖추며 2백 여명의 봉사단으로 자리잡았다.

본인의 속옷에 구멍이 나고, 몸살로 앓아 눕고, 고물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가난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지 못하는 차 원장. 차 원장의 봉사이유는 간단 명료했다. “부처님 공부해보니 행복해집디다.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린 시절,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서 밥을 해주고 병자를 보살피는 어머니를 보며 자란 차 원장이 나눔의 삶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셈이다. 물 한 모금조차 스스로 마실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며 불교공부와 인연을 맺은 후 1112일 동안 이어진 기도 끝에 나눔의 삶에 눈을 뜬 차 원장. 그 과정을 적은 글이 현대불교 신문 신행수기 대상을 받기도 했던 차 원장의 봉사행은 내 가진 것 모두를 내어놓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불보살의 원력을 닮아 있다. 천막법당에서 시작해 7기 째를 맞은 불교교양대 운영으로 정법의 기초를 다지고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약수자비원, 혜향봉사단을 만들어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장을 만들어왔다. “워낙 가난한 동네라 절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 나선 것이 봉사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곧 포교”라고 강조하는 차원장은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동의대 사회복지과에서 공부 중이다. 보다 폭넓은 봉사를 위해 오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생활시설 건립과 혜향봉사단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장님 생활하시는 것만 봐도 저절로 닮게 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처럼 하루를 쪼개어 어르신들을 찾아가 보살피는 차 원장의 삶은 나눔의 보살행이요, 불법을 전하는 전법의 다른 모습이었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찬불동요 CD·TAPE 40세트 어린이 교육단체에 전달

찬불동요 테이프와 CD, 찬불가 동요집 20세트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 전달됐다.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 청계사 주지 · 사진 오른쪽)는 6월 12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 연수회장에서 3차 CD 보내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풍경소리 대표 성행스님은 찬불동요 CD와 동요집 30세트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은 본지와 벌이고 있는 찬불동요 CD 보내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폭넓은 찬불동요의 보급을 요청했다.

이어 풍경소리는 6월 19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연수회를 열고 있는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협회에도 찬불동요 CD와 동요집 10세트를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서울 서대문 길상사– 5만 2,520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44만 8,330원
의정부 광동여고–30만원
(북한용천 지정 기탁)

▌알립니다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 저금통 회수(6월1일~ 16일)

6월1일부터 16일까지
36개의 나눔저금통이 회수됐습니다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서울 양평구 신월동 용기사(주지 수성 스님)
저금통– 200개
스티커– 200장

경남 사천시 축동면 탑리 58–4번지 법륜사(주지 도각 스님)
저금통– 10개
스티커– 200장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북한동포들에게 옷 전해 주세요

1천여벌 보시한 남대문 상가 김영란 보살



“북한동포나 해외동포, 불교국가 불자들에게 전달해줬으면 합니다.”

6월 16일, 여성의류인 스웨터와 그라운드 티등 니트류 1천여장을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전달한 서울 남대문시장 대도아케이트 707호 한양니트 사장 김영란 보살(사진). 김 보살이 보시한 의류는 시가로 2000~3000만원을 상회한다.

김 보살은 “최근 운영하는 의류공장의 물품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서, 일부제품의 특별할인판매를 계획하다 본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보고 의류를 보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편과 함께 출가한 시누이의 수행처인 작은 포교당에 나간다는 김 보살은 “현대불교신문을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가르침을 알게 됐지만 실천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어려운 이웃과 해외동포들을 돕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현대불교 신문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본사는 김 보살이 보시한 여성의류 1천여장을 7월경 (사)지구촌공생회(상임대표 월주 스님, 前 조계종 총무원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구촌공생회 이남재 사무국장은 “현재 아시아지역 불교국가 불자들과 북한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8월경 북한 용천이나 1937년 스탈린의 민족차별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러시아의 고려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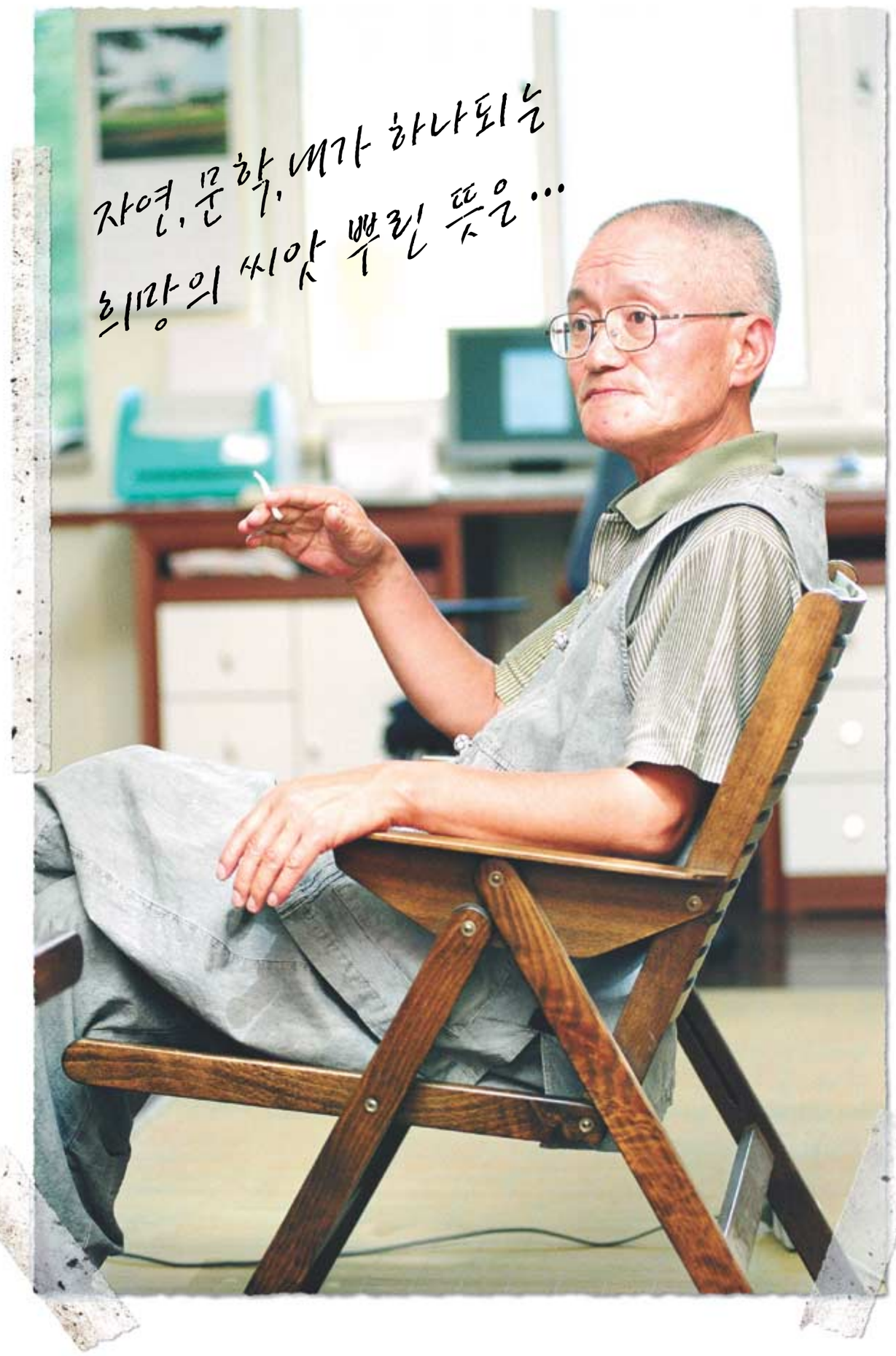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원서문학관' 오탁번 교수

낙향후 제천에 '원서문학관' 설립
지역문인들과 한마음되어 집필몰두
교정 가꾸고, 어린이 시인학교 운영
천진스러운 '할아버지 선생님' 인기
산에 항아리 암자 만들어 '觀' 생활화

조선시대 문인들에게는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이 하나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출세(出世)'가 아니었다. 사대부들은 노년에 이르면 임금의 청도 물린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자연의 품에 안겨 후학양성으로 여생을 회향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그와 같은 선비의 뜻은 충북 제천 '애련분교'에 오롯이 남았다. 폐교된 모교 애련분교를





문학관 내에 마련된 문학가들의 초상과 육필원고들.

인수한 이후 '원서문학관' 단장에 골몰하고 있는 오탁번(고려대 국어교육과 62) 교수는 "노욕(老慾)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며 욕망을 털어낸 낙향생활 3년의 서두를 열었다. 오 교수는 20대에 동화, 소설, 시 세 분야의 신춘문예 당선작을 발표한 이래 29세부터 지금껏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해온 한국 문학계의 거장. 그런 그가 조계사 앞에서 장만했다는 목탁을 두드리며 제천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자연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 같아. 나는 열등생이고. 하지만 배워나가다 보면 무한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이란 말야."

그는 자연을 화두삼아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다만 욕심이 있다면 제천을 담고 기른 지역의 문인들과 그 마음을 함께 키우고 싶은 것이란다. 그래서 문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학관을 마련했고, 매주 한차례씩 지역문인들이 참여하는 문학워크숍을 열어 그 뜻을 함께 나눠왔다. 그 덕에 20여명에 이르는 제천의 문인들은 작품 구상을 위한 집필실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문학가들의 생생한 자필원고가 비치된 자료실을 가까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간마련이 전부가 아니었다. 오 교수는 문인들의 마음속에 자연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선사하기 위해 그는 두 팔 두 발 걷어부치고 나섰다. 허허벌판이었던 운동장 한 곳에 수련이 자라는 예쁜 연못을 들였고, 잡초만 무성했던 풀밭에는 초롱꽃, 애기동자꽃 할 것 없이 수십 종의 야생화가 다투어 크는 꽃밭을 꾸몄다. 뿌리가 튼튼한 소나무 위에는 바람소리를 닮은 풍경을 곱게 매달았고, 수돗가 한켠에는 물과 술과 곡식을 수시로 담아낼 돌확도 마련했다. 천석고황(泉石膏　)을 노래하던 오 교수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 문학관 곳곳에서 형상으로 피어난 것이다.

그가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 시인학교(7월 26~30일)'를 열게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문명의 이기에 찌든 아이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미덕을 소리없이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에 담긴 자연을 읽고 자연에 숨은 문학의 멋에 다가갈 수 있는 문학교실을 준비했다. 문학교실 과정에는 50년 된 나무의자에서 진행되는 글짓기 시간, 울타리밖 800여 평의 텃밭에서 체험하는 작물재배의 시간 등 신나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그리고 내로라하는 문인강사진과 오 교수만의 프로그램 해법 또한 독특하다. 그의 시 속에 천진스럽게 녹아든 동심이 꾸밈이 아닌 듯, 지난 시인학교 기간 동안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불리던 그의 인기는 빨갛게 익은 앵두열매보다 뜨거웠다고 한다.

그런 오 교수가 최근 새로운 발원을 했다.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을 미리 체험하면서 깨달음에 다가설 수 있는 '자각의 공간'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항아리 암자를 만들 생각이야. 너구리, 산토끼를 이웃삼아 정진할 수 있는 크지 않은 나만의 수행처 말이야."

그는 문학관에서 멀지 않은 산에 이미 공간을 마련해 뒀다. 그리고 성인 한 명이 웅크리고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항아리 또한 그곳에 몰래 묻어놨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무의 상태로 '나'와 '세상'을 준비하던 것처럼, 그는 항아리 속에 들어앉아 끊임없이 '관(觀)'하겠노라 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문화를 언어로 복원해내는 '시작(詩作)의 목표'에도 천천히 다가갈 것이다. 도반이 생기면 항아리를 한 개 더 묻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문학관과 인근 텃밭을 중심으로 문학공동체를 꾸리면 된다나.

자연과 문학, 그리고 내가 하나되는 삶이 시작될 충북 제천의 '원서문학관'. 아직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전부지만 새로운 문학마을의 태동을 기다리는 시선들은 변함없이 기대에 차 있다. (043)653-0978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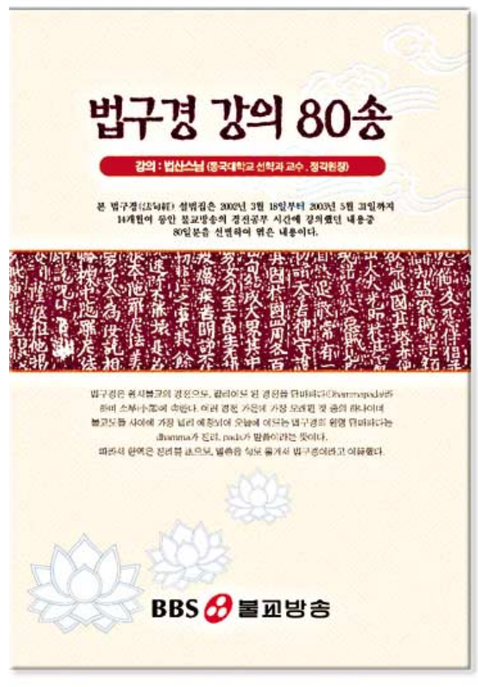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5>



결정된 믿음과 安心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정토문은 고뇌와 죄장으로 불안해하는 생명에게 안심과 희망을 부여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원효도 일심증득을 수행의 궁극으로 삼았지만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믿음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신성취(信成就) 발심은 십해(十解: 보살계위 제11~20위)의 자리에 있으면서 겸하여 십신(十信: 보살계위 제1~10위, 범부단계)을 취합니다. 십신의 자리 가운데서 신심을 닦아 익혀서 신심이 결정되어 결정신심(決定信心)을 일으켜 십주(十住=十解)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성취 발심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결정된 믿음이 없으면 지혜를 얻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보리심 일으킬 수 없고
깨달음도 얻지 못하니 믿음이 우선

그런데 선근이 깊고 예리한 근기는 쉽게 믿음을 성취하고 발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탐진치와 오욕을 떠나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결정하여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신론>에서도 "업의 과보를 믿어 능히 십선을 일으키고,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여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친히 받들어 공양하고 신심을 수행하여 일만 겁을 지나서 신심이 성취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범부가 신심을 성취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 중생이 쉽게 일심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수행문이 정토문과 염불수행이며, 원효는 그 뜻을 더욱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효는 범부를 위해 간단명료하게 가르침을 펴보였으니, 부처님 지혜의 궁극은 "일체 경계는 일심"이라는 것이며,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진실로 믿고 염불하면 일심의 바다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직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였고, 일심을 증득하는 길이 요원할지라도, 자신이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을 성취하여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수행에서 믿음이란 첫째는 모든 수행의 궁극인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이며, 둘째는 "무량한 자비광명"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결정하여 믿음으로써 안심(安心)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확신하고 안심을 얻습니다. 염불수행을 통해 정토에 왕생함으로써 반드시 일심의 바다에 나아갈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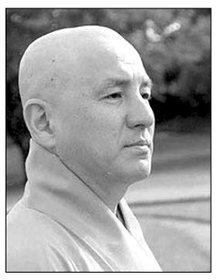
믿음을 성취하여 안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행생활의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수행문에서 일념으로 정진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거나, 현실적 기복을 말하는 곳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안일하게 다음 생을 기약하는 등의 신행 태도는 모두가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오늘날 의혹 많은 범부들은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불안한 이 시대에는 우선 깨달음 이전에 결정된 믿음으로 안심을 얻는 법이 무엇인지 궁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천 수 경

마음으로 읽으면 글도 뜻도 '생생'

'천수경 禪解' 펴낸 묘봉 스님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라는 것의 의지는 무엇인가?"

"해저생연(海底生煙)이니라."

<천수경>을 선(禪)으로 풀이할 수 있을까. 대전 국은사 주지 묘봉 스님은 <천수경>을 본격적으로 선해(禪解)한 <눈 달린 돌사람이 글자 없는 책을 읽는다>(소울음)를 통해 '죄무자성종심기'를 이렇게 해설한다.

"이는 없는 죄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도리이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건만 삼라만상이 다 마음 심(心)자로부터 일어나고 여기에서 열반에 드니 성스러운 적정(寂靜)에 든다는 말입니다. '없는 죄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도리'를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연기와 같다'고 일렀습니다. 그 '없는 마음이 적멸하여 버린다면 바로 그 때에 죄도 또한 없어져 버린다'는 법문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을 지낸 혜암현문 스님의 전법제자로 알려진 묘봉 스님은 "<천수경>은 천, 만가지 부처님 법문을 요약하고 그 핵심을 드러낸 경으로 염불과 경전, 선의 요지를 두루 섭렵하여 전하고 있다"며 출간 동기를 밝혔다.

눈으로만 읽으면 뜻과 글자를 모두 잃지만 마음으로 읽으면 글자도 살고 뜻도 산다는 <천수경>. 묘봉 스님은 이 경이 전하는 핵심을 이렇게 말한다.

"일심 법계(一心法界)가 부처님의 몸이니 늘여 펼치면 두루하여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좁혀 움츠리면 바늘 끝조차 허락하지 못한다. 존재의 세계 그대로가 일심 법계요 불신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시절에 수덕사 만공스님의 법제자인 덕산(悳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묘봉 스님은 동국대와 상명대 강사를 역임하고 미국 밴더빌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능인선원(서선사)에서 외국인에게 선을 지도했다. 81년 귀국해 수덕사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판치생모(板齒生毛)' 화두를 타파한 후 전법게를 받았다.

> 머리에 짊어진 화두 글자부터 버려야
> **원칙이 있는 공부는 이미 죽은 수행**

"그가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답변은 군더더기가 없이 시원시원했다. 스님은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살아있는 부처(自性佛)'가 바로 그것임을 밝혔다. '달마가 전했다는 심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한 것이 없기에 받은 것도 없다'는, 즉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자각(自覺)하는 것이 심인임을 분명히 했다.

선의 종지는 결국 '마음'이란 두 글자에 있기에, 다시 질문을 던졌다.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 입이 곧 화근입니다."

"이 마음은 부처와 중생이 함께 가진 것인데, 중생은 왜 깨닫지 못하나요?"

"깨닫지 못하므로 중생이란 이름이 붙었지요."

마음이란 것도 부득이 하여 붙인 이름에 불가한 것이기에, 마음을 입에 올릴 수록 도(道)와는 멀어질 뿐이다. 이 마음이란 것은 부처와 중생이 함께 갖춘 것이기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평등하다 했다. 다만 망상과 분별심으로 인해 '본래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중생'이라 불렀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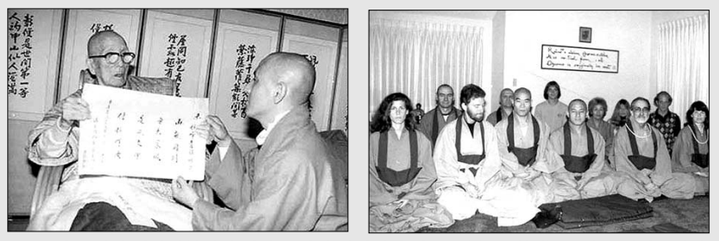
스님은 "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원칙이 있는 공부는 벌써 죽은 수행이다"고 답했다. 고정관념과 분별심을 철저히 거부하는 선 수행에서 이런 말이 성립될 리 없다. "간화선을 닦는 요결은 무엇인가"라는 우문에도, "간절히 참구하면 된다"는 현답이 돌아왔다.

"어떤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일체 화두가 다 부처님의 몸이라 여기에 이르러 분별하지 마세요. 머리에 짊어지고 다니는 화두 글자부터 버리는 것이 사교입선(捨敎入禪)입니다."

묘봉 스님은 참선 지도와 관련,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버리지 않는다"면서 "목숨 내놓고 묻는 님 대답하여 주리라"는 소신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984년 수덕사 염화선실에서 혜암 스님의 전법게를 받는 묘봉 스님(위). 83년美 캘리포니아 주 적묵선원에서 외국인 제자들과 함께 한 묘봉스님.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이론 없는 수련은 위험
수련 빠진 이론은 공허
홈페이지 : www.binmaum.org
한글인터넷주소 : 빈마음

고집멸도 명상상담 수련회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스님)은 제1차 고집멸도(苦集滅道) 명상상담 여름수련회를 실시한다. 서울경기 지구는 8월 6~8일 남양주 봉인사(031-574-5585)에서, 부산경남 지구는 8월 13~15일 경주 동양유스호스텔(054-748-6577)에서 각각 연다.

연수회 프로그램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위빠사나 명상의 이론과 실습(임승택 동국대 연구교수,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분석적 관찰(고) : 명상상담의 이론적 기초-유식불교의 아뢰야식과 연기관법(인경스님) △성격의 유형분류(집) : 에니어그램의 이론과 실습, 베어의 작업단계를 중심으로(이순자 교육학 박사) △미해결과제 드러내기(멸) : 심리극의 이론과 실제(박희석 원광대 예술치료대학원 교수),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습(이지영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상담원) △실천의 과제(도) : 고집멸도 명상상담과 염지관명상(인경 스님) 등.

'사띠, 위빠사나, 참선' 수행

경남 김해 다보선원은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8차에 걸쳐 '사띠, 위빠사나, 참선'을 주제로 집중 수련회를 연다. △6월 26일~7월 2일(대학생) △7월 7일~7월 11일(일반인) △7월 14일~7월 18일(일반인) △7월 21일~7월 25일(일반인) △7월 30일~8월 3일(초중고생) △8월 4일~8월 8일(일반인). 문의 (055)331-2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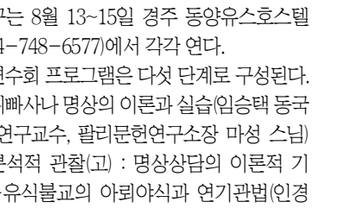
삼보선원, 좌선·벽암록 강의

서울 삼보선원(www.sambobuddha.org)은 매주 수, 토요일 오후 3~5시 및 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에 대현 스님의 지도로 좌선법회를 갖는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30분에는 송찬우 중앙승가대학 교수가 <벽암록>을 강의한다. (02)913-2859)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섭취대상자
-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낄때
•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이 낫는 병입니다.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 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8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제출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개강일시 : 7월 6일 (화) 오후 6시, 본대학 강의실(목탁, 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눈감고 '아빠다리' 하면서 앉아있는 거요." "불상 모양으로 앉아서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명상과 수행의 시대라는 말이 '지금-여기'를 수놓고 있지만, 학생들은 정작 명상이 뭔지 모른다. 종교기관을 통해 참선이나 묵상 등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나마 흉내라도 낼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에게 명상은 '침묵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행위'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명상을 교육에 적극 도입, 명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있다. 서울 봉천동 구암중학교의 김남선(54) 교사가 바로 그 주인공. 그는 명상아카데미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학생들에게 벌써 6년째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상태를 읽어내고 그 마음에 행복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명상만큼 좋은 방편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서울 구암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시작 전 5분 명상에 집중하고 있다.

인성교육 따로 있나요? 나를 돌아보면 확실하죠

수업시작 전 5분동안 사회이슈·친구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명상체험

학생·교사들을 위한 인터넷 명상카페 개설 2000여 회원 가입 이끌어

교육현장에 '명상' 도입 김남선 교사


김남선 교사

김남선교사는 매 수업 시작 전 5분을 명상에 할애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회이슈, 날씨나 친구 이야기 등 명상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그를 통해 김 교사가 이끌어내려고 하는 내용은 언제나 같다. 바로 '성찰'이다. 나와 타인,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마음가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통일명상반'이라는 특활반 수업을 통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김 교사는 '나를 지켜보는 내가 대상인 나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있는지' '친구를 욕하는 나는 친구의 마음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도록 지도한다.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를 찬찬히 관찰할 줄 알고 관계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건강한 심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방지축 아이들에게 이 같은 관찰과 수용이 쉬울 리 없다. 몇몇 아이들은 5분 명상 시간에 잠시 '꿈명상'에 젖어들기도 하고, 한달에 한 번 맞는 특활반 수업 역시 건성으로 대하기도 한다. 학생들로부터 이 같은 따분함을 털어내기 위해 그는 동작명상을 고안했다. 명상음악에 몸을 맡기고 몸짓을 자유롭게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 김 교사는 "참나가 활짝 드러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자기를 표현하라"고 이야기할 뿐이지만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동작은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김교사는 아이들의 욕구와 심리상태를 읽고 그에 관한 처방을 준비한다.

김 교사의 인성지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마음자람(cafe.daum.net/jarammeca)이라는 명상상담 카페를 개설해 교사와 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사이버 명상 공간을 꾸렸다. "사회에 나를 법공양으로 회향하겠다"는 그의 발원을 녹인 공간이다. 그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듯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교사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하에 명상을 돕는 글귀, 명상교육의 이론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에니어그램(성격유형의 분석을 통한 심리상담법)' 과정 지도교사 경력, 92년부터 운영한 참교육상담소의 상담 경험 등을 살려 약 2000여명의 회원 가입을 이끌어낸 것 또한 그의 활약이다.

명상교육 이외의 시간에도 진언명상과 호흡명상 등의 생활명상을 놓지 않는다는 김 교사는 "교사와 학생 모두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명상을 지속한다면 불국토가 멀지 않을 것"이라며 인성을 다스리는 명상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한국요가지도자연합 하계 수련회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회장 정강주)는 7월 17일 오후 1시~ 18일 오후 3시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하계 수련회를 연다.

요가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요가테라피와 아유르베다(유태희), 자기 정화를 위한 요가의 윤리와 계율(이형록), 바가바드기타와 요가(임승택), 서양의 대체의학과 우리의 과제(최우영)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와 함께 만트라 첸팅(chanting) 요가교실(이인승), 차크라를 통한 요가 니드라(곽미자), 가야금 명상(윤정선) 등의 실습도 병행된다.

200명 선착순 마감, 정회원 7만원 · 비회원 8만원. (02)3676-7071, yogakyta.com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결산>

지구촌의 여성 수행자들은 대부분 남성 수행자들의 통솔 또는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구에 불교가 전래되고,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부터 불교 여성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불교계 내 · 외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수행에 매진하는 한편 포교, 인권, 환경, 여성운동, 사회복지, 교육 분야 등에 매진하고 있다.

여성 수행자들은 선종, 남방불교, 티베트 밀교 등 각 전통별로 수행한 후 비구니계 등을 받고 수행센터나 불교단체를 설립해 전법에 나서고 있다.

북방불교의 선종에 속하는 여성 수행자들은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의 제자인 성향(바바라 로드) 스님, 낸시 브라운 헤지페스, 제인 맥라인 도비즈와 송광사 구산 스님(입적)의 제자인 성일(마르티네 배첼러) 스님을 비롯 서구형 선불교인 불교명상종을 설립한 지유 케넷 스님, 바하의 음악을 화두로 주는 모린 묘온 스튜어트 법사 등이 대표적이다.

포교·인권·환경·복지·교육 등

다채로운 여성운동 선봉지켜

티베트 불교전통에서는 영국 출신의 티베트 비구니인 텐진 팔모 스님과 미국 법우재단의 상임법사인 툽텐 최된 스님, <만달라(Mandala)>의 편집장이자 '자유 감옥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로비나 쿠어틴 스님이 대표적이다.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로 활동중인 르네 핸드버그 박사, 미국 툽텐 샤드럽의 상임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텐진 가쵸 스님도 주목받는 티베트 수행자들이다.

이밖에 서구의 여성 수행자들은 종파나 수행법을 특별히 가리지 않는 무종파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 가운데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이들이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묘법(헬렌 잔다밋) 스님, 통찰명상회(Insight Meditation Society)의 지도법사인 안나 더글라스, 티베트 밀교(가큐파, 닝마파)를 수행한 클라라 루즈, 미국 카르마 카규 센터 초대 지도법사인 세실리 콰이트 등이다. 상대적으로 여성 수행자의 활약이 미약한 남방불교권에서는 사키야디타 창립자인 아야 케마 스님과 미얀마의 우 바킨(U Ba Khin) 법사의 제자인 루스 데니슨이 유명하다.

한편 여성 불자들은 수행을 병행하며 자신이 처한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분야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 사회비평가로서 인종과 여성문제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벨 훅스, 참여불교 및 인권운동을 펼치는 미국의 레슬리 윌리암스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분야에서는 틱낫한 스님의 제자이며 불교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조앤 헬리팩스를 비롯해 생태학자인 조앤나 메이시, '라다크 프로젝트'의 설립자인 헬렌 노르버그 호지 등이 돋보인다.

여성운동분야에는 87년 세계비구니대회를 열고 사키야디타를 결성해 당시까지 가부장적이었던 각국의 승단을 놀라게 한 아야 케마 스님이 대표적이다. 서양 여성으로는 최초로 티베트 스님의 환생으로 인가받아 툴쿠가 된 미국인 노르부 라모, 스리랑카의 여성불자위원회 회장 찬드라 여사, 사키야디타 현 회장인 혜공(렉셔모) 스님, 20년 동안 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해온 쿤닝 카니사(여성지위향상연합의 공동 창립자), 가정중심의 불교여성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다이안 밴 페리스 스님 등도 주목받고 있다.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에서는 대만의 증엄 스님이 가장 유명하며 임종간호(호스피스)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조안 지코 헬리팩스, 태국의 사회사업가인 쿵생 스님, '불교 AIDS 네트워크'를 조직한 엔쿄 팻 오하라 등이 눈에 띈다. 이밖에 불교교육 분야에 앞장선 대만 화범(華梵)대학 설립자 효운 스님, 청소년 교화에 앞장서온 카이트리오나 리드, 평화운동에 매진해온 산드라 지슈,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제시해 온 고타미 스님 등이 선구자로 꼽힌다.

이처럼 다채로운 '불교 여성운동'이 가능해진 것은 근현대 이후 여성수행자들이 수행, 포교, 복지 등에서 비구 승단에 뒤지지 않는 위상을 보이며 나름의 영역을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성 불자들의 국제적인 연대 강화와 정보교환을 통한 수행, 포교, 교육, 복지 불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5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법(진각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학과 : 2004년 9월 7, 8,9일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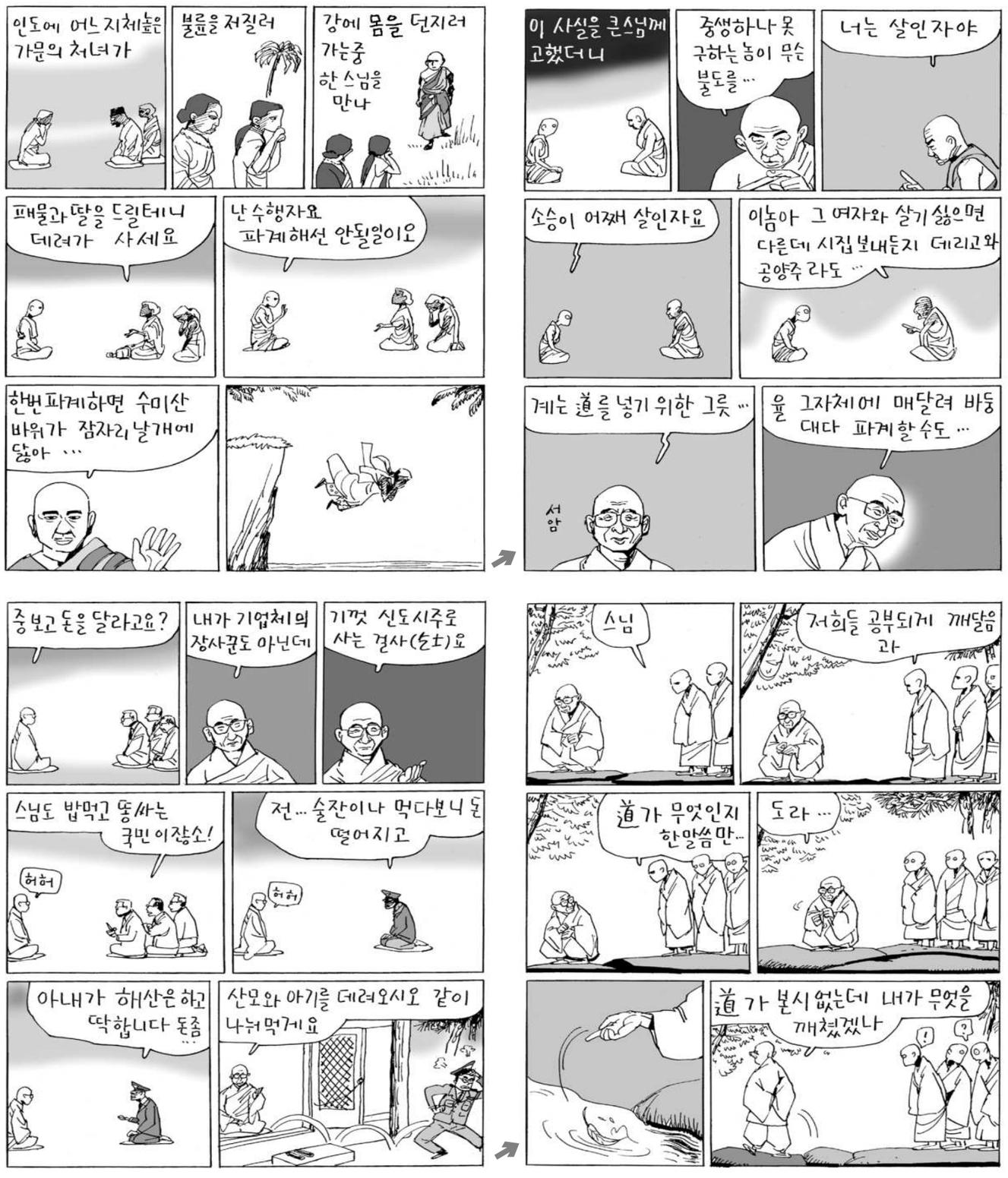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중국 실크로드 10일 ▶출발일 : 7월 2일 177만원
서안-종남산-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유림석굴)-투루판-우루무치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석굴을 답사하는 최고의 일정
특선2 인도세미 배낭여행 10일 ▶출발일 : 7월 20일 159만원
● 인도 7대불교성지순례 : 델리-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호텔,차량,식사,입장료,보험,안내자등 포함 / 인도비자대 불포함
특선3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7월 20일, 8월10일 293만원
● 일정 :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 티벳, 네팔 순례 12일 ▶출발일 : 7월 20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 수미산 순례 25일 ▶출발일 : 7월 6일 405만원

주장자따라…

㉔ 서암 스님의 '道'

조태호



서암 스님(1914~2003): 경북 안동 生. 예천 서악사에서 화산 스님 은사로 득도. 금강산을 비롯 전국 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의장, 종정, 봉암사 조실 등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사마디, 삼마파티, 디야나의 차이점은?

문 〈원각경〉을 보다가 사마디(samadhi: 정지, 적정), 삼마파티(samapatti: 정혜, 적조), 디야나(dhyana: 정려, 적멸, 선나) 등의 용어를 보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ID '초보자')

답 : 사마디 즉 삼매란 삼마지(三摩地) 삼매지(三昧地) 등과 같이 산스크리트 samadhi의 음역이다. 마음을 한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定)으로, 또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등지(等持) 등으로 의역한다. 삼마파티(samapatti) 또한 정(定)으로 번역되며 마음이 평등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등지(等至)로 의역한다. 선정(禪定)이라고 붙여 쓸 때의 정(定)의 의미이다. 디야나(dhyana) 즉 선(禪)은 범어 선나(禪那)의 약칭으로, 사유수(思惟修)라 번역하며, 신역은 정려(靜慮)라 한다. 사유수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이란 뜻이다. 정려는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다. 곧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 한다. 이러한 용어들에는 모두 지(止, 집중)와 관(觀, 관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마타(samatha)는 오직 지(止)와 정(定)의 의미만을 갖는다. (ID '서림')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㊽

교외별전(敎外別傳)- 8

역설·모순 온전히 담은 것이 곧 연기 중도 공의 이치이다

불교, 적어도 대승불교의 세계관, 존재론에서는 불일불이(不一不二, 不一不異)라는 역설이 핵심 명제이다. 그 불이라는 개념은 워낙 근본적인 역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변으로는 온전하게 헤아리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개념으로 표현하려는 세상의 진상은 불가사의(不可思議)에 해당한다. 언어문자로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역설적인 개념으로, 더욱이 이중부정(二重否定)으로 표현한 것이다.

불이라는 개념은 고대인도 종교사상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불교의 불이 개념은 근본 교리의 무아(無我), 연기(緣起), 중도(中道) 교의를 대승불교 사상에서 확장하고 변용한 명제를 담고 있다.

나가르주나(용수龍樹)라고, 공(空) 사상을 천명(闡明)한 대승불교 사상가가 있다. 흔히 유식(唯識)사상과 중관(中觀)사상을 대승불교 사상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데, 유식사상은 우리의 의식에서 무명(無明)이 일어나고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의식의 심층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밝혀내었고 중관사상은 공(空)의 이치를 치밀하게 논증하였다.

그 가운데 중관사상의 태두가 나가르주나이다. 그의 저술인 〈중론(中論)〉에 유명한 팔불중도(八不中道), 즉 여덟 가지 부정으로 중도를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불일불이'도 여기에 들어있다. 모든 것이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불생불멸不生不滅), 없는 것도 아니고 실존하는 것도 아니며(부단불상不斷不常),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불래불거不來不去),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불일불이不一不異)는 것이 여덟 가지 부정이다. 그것이 연기(緣起)의 이치라는 얘기이다. 보다시피 여덟 가지 부정이 둘씩 짝을 지어 네 개의 역설적인 명제를 이룩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아(無我), 무자성(無自性), 공(空)의 이치를 바탕으로 중도(中道)를 표현하는 명제이다. 연기, 중도, 공의 이치는 굳이 말로 담아내자면 그렇게 이중부정의 역설로나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는 역설 내지 모순이라 여기지만 그 역설 내지 모순을 그대로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것이 연기, 중도, 공의 이치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개체에 초점을 두고 보면—달리 말해 유아(有我), 분별(分別)의 입장에서 보면—모든 것이 나고 죽거나 오고 가는 존재로 보이지만, 전체 내지 보편의 장에서 보면—분별을 넘어 무아(無我) 또는 연기의 장에서 보면—그런 게 아니라는 식의 궁색한 설명이나 갖다 붙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이치는 궁극적으로 워낙 설명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과 언어습관은 늘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지만, 역설과 모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역설이 아니요 모순이 아닌 것처럼 왜곡할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갈증이 풀리고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진상에서 멀어져버리고 만다. 그 역설과 모순을 진정으로 푸는 길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데(사의思議)에 있지 않고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언어문자와 그 분별의 틀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오히려 진상을 찌그러뜨리는 결과만 낳는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연재를 마치며

바른 삶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

진실·자비로운 마음이어야 법계 들어가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를 연재하였던 지난 일년 반 동안은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다. 첫걸음을 시작하는 신설 대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로 심신이 지쳐있는 가운데, '입법계품 강의'의 원고 작성은 나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화엄경〉 '입법계품'은 사실 쉽지 않은 경전이다. '선재동자'와 '53선지식' 등 몇몇 단어만 일반인들의 입에 친숙히 오르내릴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전의 지명도에 비해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 까닭은 53선지식의 법문 내용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입법계품' 강의 연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가끔씩 보던 경전이고, 또 더러 강의도 해 보았던 터라, 이 기회에 '입법계품'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또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보자고 하는 유혹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혹은 아름다웠지만, 그 과보는 역시 극심한 고통으로 돌아 왔다. 우선 내용을 쉽게 전달해야 하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원고 마감시간을 훨씬 지나서 나 때문에 신문이 못나오게 된다고 야단인 지경에도 앞뒤가 꽉 막혀서 꼼짝 못하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늦은 밤 계룡산 자락의 교정을 배회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른 새벽에 교내 법당에 올라가 부처님께 왜 이렇게 내용을 어렵게 설해 놓으셨냐고 항의도 하고, 부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나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원고지 12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12매 안에 한 선지식의 법문내용의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곁들인다고 하는 것은 명민하지도 못하고 글솜씨가 없는 나에게는 그야말로 난감한 일이었다. 이래저래 연재가 끝난 이 마당에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는 생각하지만 참으로 미흡한 심정이다. 그리고 부처님과 독자들에게 진실로 죄송할 따름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편치 않는 심정을 가지게 된 강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입법계품'의 교설에 감동하고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선재동자의 구법이야기는 선재라고 하는 동자의 구법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법이야기로서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로서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세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법계는 중생들의 미혹한 세계와 상대되는 세계이다. '법계에 들어간다(入法界)'고 하는 것은 미혹된 세계에서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입법계품'은 선재동자의 구법이야기로써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다.

선재동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어둡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절절히 참회하며 새로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발원(發願)하는 것은 실로 감동적이다. 이 원심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이다. '입법계품'에서 이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 법계에 들어가게 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할만한 가르침이다. 보리심과 같은 원심은 빛과 빛이 오는 근원인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찬탄과 귀의를 수반하고,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부단히 법을 구하는 것은 선지식들의 가르침(법문)이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진실한 가르침(법문)은 인간과 진리를 하나가 되게 하며, 법(法)이 구체적인 인격에 구현됨으로써 여러 가지 지혜롭고 자비로운 공덕을 갖춘 인격을 출현시켜서 인간이 부처가 되게 하는 인격적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미혹됨이 없는 세계이며, 스스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참생명을 발동하는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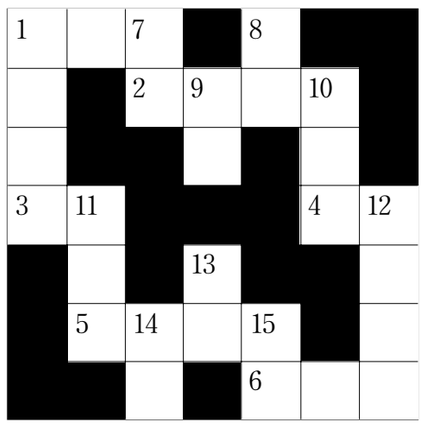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입법계품'을 비롯한 〈화엄경〉의 교설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야말로 〈화엄경〉의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써만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많은 인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의 방향을 근원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선재동자의 구법이야기도 그럴듯하게 엮어진 단순한 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입법계품'은 광대한 자비의 원을 일으켜 부단히 진실을 추구해감으로써 현실세계에서 항상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계품'을 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을 설하는 가르침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 법계는 결코 지식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열고 실현함으로써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세계인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다음주부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형조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가 연재됩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송강호가 이발사로 등장하는 영화, 효자동 OOO 2. 당간을 받쳐 세우는 기둥 3. 몸과 마음 4. 자식과 손자를 통틀어 일컫는 말 5. 죽고 삶에 상관없이 끝장을 내려 함 6. 부처님 가르침을 감로(甘露)에 비유하여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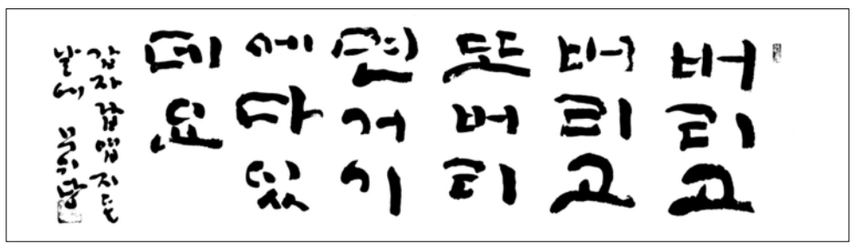
세로 1. 마음과 마음으로 뜻이 서로 통함 7.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놓은 집 8.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9.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검은 액체 10. 선사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11. 나옹스님이 입적한 절, 경기 여주 봉미산에 있음 12. 손무가 지은 병법책 13.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14. 삶과 죽음 15. 단단하고 단맛이 나는 감.



좁쌀 한알
최성현 지음 | 도솔 | 9,800원

보잘 것 없는 좁쌀 한 알 생명운동의 싹 틔우다

장일순 선생 서거 10주년 기념 추모집 나와



장일순의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면 거기에다 있데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닦습니까?"
"주로 혼자서 걸어요…
길가에 풀이 나서 자라는 걸 보는데,
그 풀들이 저를 일깨우지요."

<한겨레 21>의 정재숙 기자가 살아생전 장일순에게 물었다."선생님은 어째서 '조 한 알 '이라는 그처럼 가벼운 호를 쓰십니까?"

장일순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나도 인간이라 누가 뭐라 추어주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내 호는 그런 마음을 지긋이 눌러주는 화두 같은 거야. 세상에 제일 하잘 것 없는 게 좁쌀 아닌가. '내가 조 한 알이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르는 거지."

<좁쌀 한 알>은 이처럼 '한국 생명운동의 대부'인 무위당(조 한 알) 장일순(1928~1994)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숱한 일화에 그가 남긴 글씨와 그림을 곁들인 책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아마도 여기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살아생전 발자취와 향기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움'이란 명사(名詞)로 자리매김 된다. 이 책이 바로 장일순 선생의 서거 10주년을 기리는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에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펴낸 그리움의 소산물이다.

저자는 2002년 겨울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친 많은 인터뷰를 통해 리영희, 김지하, 박재일, 임재경, 이창복, 김정례, 김민기 등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인물들이 기억하는 장일순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았다.

그러면 젊은 세대에겐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장일순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교육자이자 서예가이며 재야운동가였던 장일순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탁발승들과 밥을 얻어먹으며 진리를 설하던 붓다를 떠올리게 한다. 평생을 강원도 원주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숱한 당대의 재야 정치가와 사상가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됐던 그의 삶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보통사람으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이웃사랑은 지역 주민은 물론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준다. 시인 김지하의 스승이고 <녹색평론>의 김종철 대표가 단 한 번 보고 반했다는 말을 할 정도다. 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 명지대 교수는 장일순과는 어디를 가든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함께했던 인물에게는 그와 비례하는 일화가 남는 법이다. 장일순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열거된 그의 발자취를 애써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몇 가지의 일화만 읽어보면 그의 인간됨과 살아생전 의모습이 펼쳐진다. 그 중에서 두 개의 일화를 소개한다.

#일화 1

이화여대 정현경 교수가 장일순에게 물었다. "불교에서는 좌선을 하고, 기독교에선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닦습니까?" "주로 혼자서 걸어요… 길가에 풀이 나서 자라는 걸 보는데, 그 풀들이 저를 일깨우지요. 풀은 땅에 뿌리를 박고 밤낮으로 해와 달을 의연히 맞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못미치지요. 부끄럽지요. 마음을 씻는 거지요."

#일화 2

하루는 한 시골 아줌마가 찾아와 딸의 혼수 장만에 쓰려던 돈을 기차 안에서 몽땅 소매치기당했다며 그 돈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장일순은 그날부터 원주역으로 가서 여러 날 노점상들과 소주를 마시며 탐문수사(?)를 한 끝에 문제의 소매치기를 찾아냈고, 그를 달래서 받아낸 돈에 자기 돈을 합쳐서 아주머니에게 돌려줬다. 그 뒤로도 가끔 원주역에 나가 그 소매치기에게 밥과 술을 샀는데, 그때마다 훈계나 꾸중은커녕 "자네 영업을 방해해서 미안하다. 용서하시라"고 말하곤 했다.



장일순은 평소 서화작업하는 것을 즐겼다. 특히 그에게 글과 그림을 달라는 청탁이 들어오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하나 더 있다. 1991년 그는 위암 선고를 받았지만, 병과 싸우지 않았다. "투병이라니 뭐하고 싸운단 말인가, 암세포도 내 세포 아닌가. 잘 모시고 의논하면서 가야지."

그는 그렇게 암과 편안하게 3년 동안 놀았다. 자기의 목숨을 갉아먹는 암세포 앞에서도 그는 자신을 위한 방어막을 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의연함과 올곧은 정신은 나약한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각인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트로이
수잔 우드포드 지음 | 김민아 옮김 | 루비박스 펴냄 | 11,900원

멋진 배우 브래트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책 내용과는 다른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터키의 고대 도시 트로이는 원래 한 학자의 집념으로 발견됐다.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신화 속 도시로만 여겼던 트로이를 찾아 헤맨 끝에 19세기말 히살리크 언덕에서 9개의 도시가 겹쳐진 고대 유적을 발견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트로이가 신화의 안개를 헤치고 역사 속으로 걸어나온 순간이었다.

트로이의 목마, 아킬레스 건, 파리스의 심판, 가니메데스 신화….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우리가 트로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참 많다. 트로이 전쟁의 전모는 모르더라도 그리스가 군대를 숨긴 목마를 트로이의 성 안으로 침투시켜 승리했다는 목마 전략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것이다. 또 트로이를 공격한 그리스군의 선봉장이 아킬레우스였다는 건 모르지만 어머니 테티스가 스틱스 강에 아

트로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신화·역사·미술사 넘나들며 상상력 자극

들 아킬레우스를 담궈 아들에게 불사(不死)를 안겨주려 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때 테티스의 손이 감쌌던 발목만 강에 닿지 않았고 아킬레스 건은 치명적 약점을 뜻하는 관용어구로 굳어졌다.

이런점에서 런던대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수잔 우드포드가 쓴 <트로이>는 듬성듬성 알고 있는 트로이에 대한 조각 지식을 짜맞춰 그림 한장을 만들기에 더 없이 좋은 지침서다. 기초 상식이 전혀 없더라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게 구성됐다. 전쟁의 원인 제공자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남자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했던 '불화의 신'에리스였다. 화가 난 그는 축제에 '가장 아름다운 미녀에게'라고 쓴 사과를 던져 놓고 갔는데 이 사과는 누가 최고의 미녀인가를 놓고 여신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제우스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아프로디테와 헤라, 아테나 중에서 미의 여신을 뽑는 심판을 맡긴다. 르네상스 시기 루벤스와 렘브란트도 소재로 삼았던, 유명한 '파리스의 심판'이다. 당시 파리스는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약속한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주게 되고 이 사건은 10년을 끈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 된다. 파리스가 그리스 메넬라오스의 부인이 된 헬레네를 꼬드겨 트로이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저자는 일단 기둥 줄거리를 세워두고 신화와 역사, 미술사를 종횡무진하며 에피소드와 해석의 가지를 쳐나간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와 에우리피데스가 등장하고 로마의 모자이크화와 벽화, 그리스 물병, 암포라(저장용 단지), 폼페이 회화, 로마 석관의 부조 등이 출몰해 당대의 역사와 신화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재해석한다.

특히 사건의 시작부터 발단, 연합군의 형성과 원정의 시작, 트로이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신화와 함께, 관련된 시각 이미지들이 풍부하게 덧붙여져 읽는 재미를 더한다. 영화 속에서 미진했던 고대 문화의 감성과 낭만,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만나볼 수 있어 유익하다.

■**이동환** (의정부고 국사 교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수행자로 사는 보람과 기쁨, 스승과 도반들과의 따뜻한 인연 등이
정운 스님 특유의 맑고 정감 어린 문체에 실려 잔잔하게 표출된
이책을 읽노라면 문득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종교는 내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향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까 싶다."

—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중에서



스님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여시아문)는 지묵 · 효림 · 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경남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큰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영어로 본 금강경 머리에 '쏙쏙'

▮저자 인터뷰 이대성 씨



영어와 <금강경>.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이다. 하지만 현직 영어교사인 이대성 교사(서울 대신고 · 59 · 사진)가 <금강경>을 영어로 풀어 쓴 <영어로 생각하는 금강경>을 읽어보면 두 단어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영어로 풀이한 <금강경>은 한문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경전보다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뜻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을 '영어로 읽는'이 아닌 '영어로 생각하는'으로 붙인 것도 각 구절을 음미하며 그 속에 담긴 뜻을 좀 더 새겨 읽어보자는 뜻입니다."

책에서는 영어 원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어구 풀이, 단어와 숙어 해설 등을 차례로 담고 있다. 학생들이라면 경전을 읽으며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책 뒤편에는 독송을 할 수 있는 한문과 한글 <금강경>과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 '인도불교의 선정설' 등도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것은 청정심이 결여된 탓"이라는 이 박사는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청정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펴냈다"고 말한다.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은 추천사에서 "영역본과 한역본 <금강경>을 유려한 한글로 번역하고 해설까지 곁들인 것은 물론 독송용 한문과 한글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수행에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향림사 주지인 상원 스님의 속가 동생이기도 한 지은이는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책의 판권을 상원 스님께 드렸다. 그러나 상원 스님은 책을 출간해 판매하지 않고 불자들을 위해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

"모든 경전 중에서 최상의 경전인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부처님의 '더없이 완전한 지혜'를 증득하는 동시에 '큰 사랑의 길'을 실천해 우리 모두 행복한 부처님의 세계를 성취하기 바랍니다." (062)375-7600 여수령 기자



영어로 생각하는 금강경
이대성 지음 | 향림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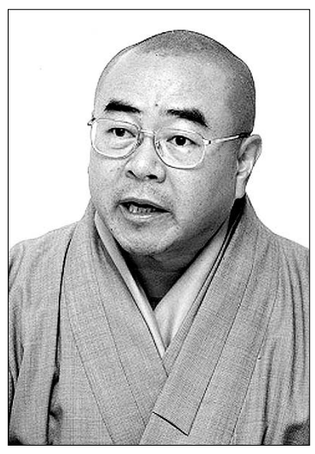
선어록의 진수 '무문관' 뿌리를 캐다

'선어록 총서'를 펴내고 있는 한국선문화연구원장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 사진)이 지난해 <육조단경>과 <임제록>에 이어 선어록의 진수로 평가받는 <무문관>의 해설서를 펴냈다. (한국선문화연구원, 2만원)

<무문관>은 중국 송대의 무문혜개(1183~1269) 선사가 1700여 칙(則)의 공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48개의 공안을 가려 화두 참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불교 경전은 거의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어록 역시 일종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독 불가능한 문자'가 아닌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어록에서 구체적인 불법의 수행방향과 방법 등을 체득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선어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생각에 '선어록 총서'를 펴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은 <마조어록>과 <황벽어록> 등 30여 권의 선어록 해설서를 펴낼 예정이다. "선어록 해설의 관건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꿰뚫는 안목과 용어해설, 선종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스님은 '선어록 총서'를 펴내는데 있어 주해(註解)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원문을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뜻의 '뿌리'까지 밝혀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스님이 직접 용어와 개념 등을 정리해 놓은 카드 5만장을 토대로 주해를 하고 있다. 또한 책의 원고를 토대로 선문화연구원 회원들과 세 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문관>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해설과 역주를 자세히 읽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뜻을 헤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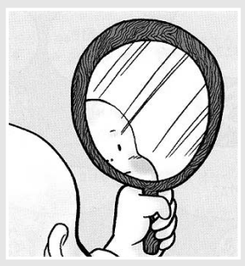
처음 접해도 어렵지 않게
원문 번역에 머물지 않고
해설 · 역주 상세히 기록

"간화선이란 당대 선승들에 의해 이루어진 선문답(대화)을 읽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입니다. 법을 토대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바는 많은데 이를 체계화하지 못합니다. 구슬은 많은데 꿸 실이 없는 것이죠. 경전은 바로 이 불법의 씨줄과 날줄을 형성하는 것으로, 경전을 읽음으로써 불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을 닦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깨달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을 체득하기 위해 경전을 읽으며 스스로 사유할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수행자 스스로 '무엇 때문에 수행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단의 양적 팽창만이 불법 중흥이 아니라 올바른 불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불교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선문화연구원은 <무문관>을 교재로 6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연구원 법당에서 특강을 연다. 참가비 5만원. (02)765-6539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본지 연재 명상만화





지친 물고기 내 안에…
호시우보 지음
대현문화사 | 9천원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되는 걸 원한 적 없다는 사실을."('참나' 1)

지난해 본지에 연재한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중 일부를 엮은 명상만화 <지친 물고기 내 안에 쉬어 가라>가 나왔다. 책을 엮은이는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의 시선으로 보고, 소의 걸음으로 걷다'라는 뜻으로 한정우, 한정욱 두 만화가의 필명이다.

책에는 동자승 우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을 사랑, 참나, 행복, 지금 여기, 삶 등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지은이는 "지쳐 쉬어 가고 싶을 때 이 책이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교법사가 쓴 신행 길잡이

부처님 만남은 기쁨이어라 고우익 · 현익채 지음 | 무량수 | 1만원



현익채 금정중학교 교법사가 포교 일선에서 함께 해온 고우익 교법사와 함께 <부처님 만남은 기쁨이어라>를 펴냈다.

<불자신행의 길잡이>의 2편에 해당되는 이 책은 '크나큰 가르침의 문을 열며' '참나를 찾아서' '부처님 따르는 마음' 등 6장으로 나눠 부분마다 불교교리, 불자상식, 예불문, 기도문, 참회 발원, 일상기도 발원, 경조 발원, 평생의례 발원 등의 발원문과 가정 예불, 가정 기도, 특별기도 의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불련 부산지부장과 전국 교법사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지은이는 그동안 <부산시 대학생불교연합회 10년사> <부산불교안내 1, 2호> <부산불교총람> 등을 펴내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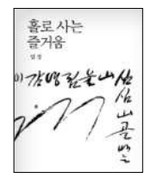
무량의경 해설서 나와

무량의경 해설 1, 2 김현두 지음 | 도서출판 아나 | 각권 1만8천원



부산 아나법화연수원에서 불교강의를 하고 있는 김현두 씨가 펴낸 <무량의경해설>은 <무량의경>을 번역하고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책이다. 지은이는 책에서 기존의 법화3부경에 <반야심경>을 더해 '법화4부경'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1권 1장 '법화4부경에 대한 고찰'에서는 <반야심경>과 <무량의경>의 원문과 뜻을 비교하고 2장 '무량의경'에서는 <무량의경>의 개요와 대의를 설명한다. 지은이는 앞으로 <묘법연화경>과 <관보현보살행법경> 등의 해설서도 펴낼 예정이다.(051)723-2261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지음 | 샘터 | 9천8백원

홀로 있음으로 함께 있는 스님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당신은 행복한가' 中)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이 <오두막 편지> 이후 5년 만에 산문집 <홀로 사는 즐거움>을 펴냈다. 법정 스님은 올해 초 '맑고 향기롭게' 및 서울 성북동 길상사 회주에서 물러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속 오두막에서 '침묵의 수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하는 '홀로 있다'는 의미는 외떨어져 혼자 사는 단순한 의미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홀로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스님은 명상가 토마스 머튼의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말을 인용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이다."

책에 담긴 글을 2001년부터 매월 '맑고 향기롭게' 회지에 쓴 글을 모은 것이다. 개울물을 길어 밥을 하고 장작을 패 땔감을 만들고, 달빛이 방 안에까지 훤히 스며들어 잠을 깨기도 하는 스님의 일상을 볼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3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청정도론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6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7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8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9	불교가 좋다	가와이 하야오	동아시아
10	육조단경	청화 스님	광륜출판사

도서 안내 :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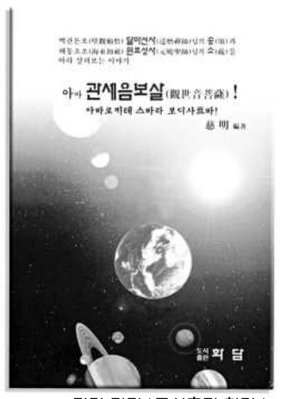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법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료로는 칠판과 괘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담임법사님들께서 교보재로 활용 하시면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섭법 11. 삼법인 17. 십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완삼매론
■ 기획 : 예백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그대들이 진정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시는가?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金科玉條)와도 같은 그 제1계"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인 이 오탁악세
(五濁惡世)에 ...


자명 편저 / 도서출판 화담 / 신국판 137쪽 / 값 10,000원
"관세음보살"은 정녕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반야(般若) · 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와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참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 보급처 : 불교서적 총판 법우당 02)994-4437
● 문의처 :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 행복한 길로 초대합니다 ◆
연린선방 불교대학

반야심경을 알아차리고 체득하는 데에는 남녀노소, 지식, 지혜, 지능은 무관합니다.
고민되는 삶에서 길을 찾아 오직 오롯한 믿음과 수련 수행으로 정신건강, 몸건강, 돈건강 찾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마하반야바라밀
황토법당 백마사 주지 정산, 법성 합장
● 반야심경 설법 특강 & 수행안내

1차	7월 3일 오전 10시 ~ 4일, 5일 오후 3시	대학생
2차	7월 10일, 11일, 12일	대학생
3차	7월 18일, 19일, 20일	사부대중
4차	7월 24일, 25일, 26일	가족&일반
5차	7월 31일, 1일, 2일	선생님&일반
6차	8월 7일, 8일, 9일	가족&일반
7차	8월 14일, 15일, 16일	가족&일반
8차	8월 21일 오전 10시 ~ 22일, 23일 오후 3시	가족&일반 &학생

※ 2박 3일 특강 수련수행정진에 동참하시어 큰 뜻 이루소서!
◆ 참 가 비 : 4만원(매회차 25명 - 공양간 도우미 4명 무료)
◆ 온 라 인 : 농협 237075-52-065685 예금주 : 백마사
◆ 준 비 물 : 간편한 복장, 침구, 세면구, 필기구 지참
◆ 신청접수 : 031)674-7188, 017-203-9400
◆ 교통안내 : 양지I.C ~20여분 / 일죽I.C ~10여분 / 안성I.C ~25여분 소요
황토로 지은법당 백마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125번지



관경16관변상도(158x244cm).





열반도 부분(240x200cm).

"탱화는 오늘 우리의 초상"

해인사서 특별불화전 여는 김의식 씨

금색 선묘와 진채(眞彩)의 세련된 조화
현대적 감각으로 대중적인 불화 재현
8월 중국, 11월 일본 전시회 참가 예정

고려불화가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다. 물론 철저한 전통적 기법위에서다.

불화가 김의식씨(46)가 작가 인생 30년을 결산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 불화전(6월 30일까지)'에 가면 김 씨만의 독특한 화풍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 전시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감상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 색다른 느낌이 든다.

30년 작업 결산 의미 담아…30일까지

성보박물관 지하 전시실에 걸려 있는 40여점의 불화들은 대웅전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후불 탱화를 연상케 한다. 불화는 역시 사찰 주변에 머무를 때 더 제 맛이 난다는 증거다. 김의식씨가 화폭에 펼쳐내는 고려불화에는 그만의 세련된 기교가 잘 담겨져 있다. 특히 법의(法衣)의 장엄한 표현이라든가 화려한 금색(金色)과 섬세한 선묘(線描)에 고려불화적 중간색 진채(眞彩)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만 봐도 그만의 해석이 돋보인다. 여기에 편채(식물성), 석채(광물성), 수간(흙물감), 호분(조개가루)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다는 것도 김의식 불화의 또다른 특징이다.

"탱화를 단순한 불교미술로 한정해 종교적인 의미만 부여한다면 설땅을 잃게 됩니다. 특히 불교미술 자체를 탱화로 단정짓는 경우가 많은데, 탱화는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 미술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들이 탱화를 집에 걸어두어도 되냐고 물으면 이는 우문(愚問)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고려불화는 고려시대 당시 귀족들의 장식물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탱화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오늘의 우리들 초상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찰에서 봉안하는 불화와 작가적 창조력을 가미해 그리는 불화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그가 사찰이 아닌 갤러리에만 선보이는 불화를 그리는 것은 아니다. 서울 길상사, 전남 화순 불암사, 충남 공주 영평사 등 전국 20여 사찰에 그의 불화가 장엄돼 있다.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들은 일반인들도 불화를 사찰이 아닌 전시장에서 편안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전통적 기법에 바탕을 두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한 것이다. 그래야 탱화가 단순한 불교미술이 아닌 우리미술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수월관음도'다. 예를 들면 수월관음도 원본의 상호(얼굴)가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이라면, 김 씨의 수월관음도는 부드러운 여성적 느낌이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수월관음도 같은 작품은 사무실 등에 걸어놓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30여년전 계룡산의 '심우정사'에서 봤던 불화의 강렬한 감동 때문에 붓을 들기 시작했지요. 다른 그림과 달리 불화는 일념으로 하지 않으면 완성은 엄두도 못냅니다. 서울과 해인사 두 차례의 전시회로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여행을 잠시 떠날 계획입니다."

'수월관음도' '영산회상도' 등 大作 선보여

제 1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과 '제 13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 했던 김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월관음도', '삼세불회도', '열반도', '관경 16관변상도' 등 2m가 넘는 대작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가로 158㎝, 세로 244㎝ 크기의 '관경 16관변상도'. 전통불화의 안료인 석채와 은은한 색감이 조화를 이룬 이 대표작은 현대적 미학을 고루 갖춘 고려불화의 재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황금색 바탕에 은은한 향기가 돋보이는 '영산회상도', 부처님의 열반을 사부대중은 물론 미물까지도 슬퍼하는 모습을 장엄하게 펼친 '열반도' 등 도 눈여겨 볼만하다. 김씨는 또 8월 12일부터 중국 위해시 박물관에서 열리는 '한중 예술교류전'과 11월 25일 동경의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동국미술인회 일본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055)934-0988

글 · 사진=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홈페이지 :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문양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5>



불량만두에 분노하는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의 자투리를 만두, 야채찐빵 등의 재료로 식품업체에 납품한 악덕 업자에 관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유사한 행위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만두소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두소 제조업자 이모 씨는 단무지 제조업체에서 단무지를 만든 다음 생기는 폐기처리용 자투리를 가져다 만두소 원료로 썼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두소는 중국산 단무지의 자투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둔갑해 지난 99년 말부터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5년 동안 국내 25개 유명 만두 및 제빵업체에 납품됐다. 경찰은 문제의 만두소로 만들어진 만두와 야채찐빵은 학교급식, 군납, 대형 할인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분식점 등 전국적으로 유통됐다고 전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다 보니 전국민이 쓰레기 원료로 만든 만두를 한두번 정도는 먹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릇되게 돈을 버는 범죄 행위에 정말 분노하게 된다.

음식은 많은 생명체를 희생시킨 결과물
"먹는 행위는 외아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다"

연일 쏟아지는 쓰레기 만두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접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소비자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의 경전(자육경, 子肉經)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 지를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다. "비구는 음식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비유하면 어떤 부부에게 사랑하고 늘 생각하며 보살펴 기른 외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넓은 광야를 지나려고 하다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림의 고통이 극에 달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부부는 '이젠 너무도 사랑하는 외아들만 남았다. 만일 그 아들의 살을 먹는다면 이 험난한 곳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세 사람 모두 죽게 할 수는 없다' 고 의논하였다. 이렇게 의논한 뒤에 곧 그 아들을 죽여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그 살을 먹고 광야를 벗어나게 된 경우와 같다. 어떠한가? 비구들아, 그 부부는 아들의 살을 함께 먹으면서, 과연 그 맛을 취하고 그 맛의 좋음과 즐거움을 탐하며 맛보겠느냐?"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부처님이 물었다. "비구들아, 부부가 억지로 그 자식의 살을 먹은 것은 광야의 험난한 길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닌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마땅히 그와 같이 관찰하라. 그와 같이 관찰하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을 줄 알 것이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을 줄 알고 나면 5욕의 대상에 대한 탐애(貪愛)가 곧 끊어질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는 다소 잔인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식을 죽여서라도 육신을 보존한 것은 광야를 건너가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여기서 광야란 생사 윤회의 세계를 의미한다. 음식을 먹고 육체를 보존하는 이유는 색욕 등 오욕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회의 세계를 넘어가기 위해 건강한 육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육체는 붓다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붓다의 가르침을 담는 그릇, 즉 법기(法器)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겉모양은 훌륭한데 그릇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탐욕, 분노, 무지로 가득차 있다면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그릇에 개밥을 넣는 것과 같다.

음식을 먹는 것은 육신의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수행에 알맞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식탁 위에 올려지는 음식물은 많은 생명체의 희생이 깃들어 있다. 고기 반찬은 돼지나 소, 닭 등 동물을 희생시킨 것이며 신선한 생선이나 회는 물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를 죽인 것이다. 야채도 살아 있던 채소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여 우리 식탁에 올린 것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킨 결과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외아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라 하셨다. 자식의 살을 먹으면서 맛을 즐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아들의 희생을 가슴 아파하며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하여 더욱더 정진할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지도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이 불량 만두소 제자업자에게 화만 내고 있다면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마다 무엇을 위해 음식을 먹고 있는 지 반성하라고 오관게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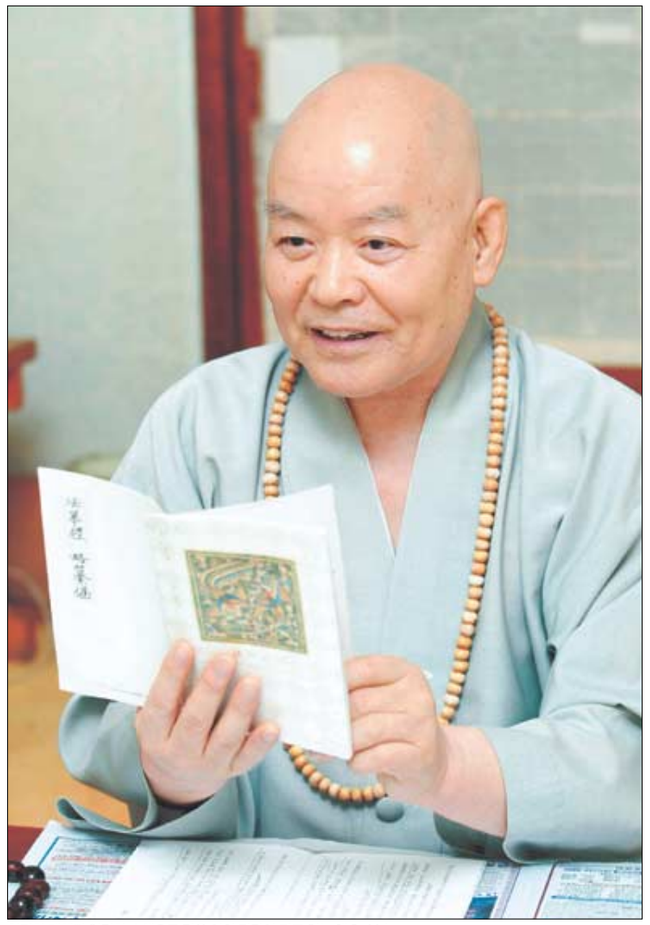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지상 백고좌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6월 14일 제16세 태고종 종정으로 추대된 혜초(慧草) 스님은 철저한 계행으로 수행자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태고종 법맥의 큰 줄기를 형성해 온 전 종정 대륜 스님과 덕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어 태고종 종도들의 사표가 되어 왔다. 종정 추대에 즈음해 혜초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청해 들었다.



철저한 계행과 엄격한 수행으로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는 혜초 스님.

분별심 사라지면

바른 믿음은 수행의 근본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중생(衆生)입니다. 공업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합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공업중생을 이룰 수 있는 조화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조화로운 세계는 분별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분별심을 버리면 처처가 부처일 따름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때마다 청정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좋은 생각과 성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 했습니다. 순간순간 청정할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것은 업장이 무거운 소치입니다. 자신이 뭘 배웠고 어느 절에 다니고 어떤 스님을 만난 것은 전혀 이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을 대단한 경력인양 으스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큰나무가 되기도 전에 조그만 바람에도 쓰러지는 뿌리가 얕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큰 나무가 됩니다. 신심이 돈독하지 않으면 사법(邪法)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엄경>에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源功德母) 장양일체제선근(長養一切諸善根)"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가 되어 모든 선업의 뿌리를 키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일 때라야 여래의 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수행의 근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나 움직이는 주인공을 보라

모든 일에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우선합니다.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선악도 있고, 감정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나를 위주로 모든 것이 시작되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땅, 물, 불, 바람 4대가 나일까요? 아니면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이 나입니까?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몸뚱이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를 움직이는 그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살피고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수행을 통해 스스로 깨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찾지 못하면 헛고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것이 인간의 일만은 아닙니다.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오고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것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오르니 그것을 낮이라 하고, 저 너머로 기우니 밤이라 할 뿐입니다. 그 태양의 오고감을 두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오고감으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곧 여래의 오고감입니다. 제행(諸行)이 무상(無常)하지만 본래면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불미생전(古佛未生前)
응연일상원(凝然一相圓)
석가유미회(釋迦猶未會)
가섭기능전(迦葉豈能傳)
옛 부처 생기기 전에
일원은 뚜렷이 밝았도다.
석가모니도 말하지 못했거니
가섭이 어찌 전할손가.

몸이 편하면 道 못 깨달아

요즘 젊은 스님들은 힘들게 수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쉽게 성취하려고만 합니다. 겉핥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평상



size : 1500×820 ×400 가격 150,000 할인가 130,000
1800×1030×480 가격 220,000 할인가 190,000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폴리프로필렌은 반영구적이며 촉감이 어린이 살결과 같은 느낌을 주며 조립식이라 이동이 간편 하고 또한 얼마든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 스며 들지 않아 비온 후 바로 앉을 수 있는 평상, 그릇 씻는 다이, 채소 등등 다이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상. 봄 여름 가을에 자연과 더불어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휴식공간.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아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실용신안 제0305212
의 장 제0300518
전화 주문시 무료배송 지역 대리점 모집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재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예거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수련회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참선수행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참선수행은 왜 필요한가?' 를 주제로 기초참선에서부터 화두드는 법까지를 정리하여 생활 속에서 참선이 이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대 상 : 대학생이상 일반인 남녀 35명 선착순
2. 일 정 (3박 4일)
◎ 1차 : 7월 11일(일) ~ 7월 14일(수)
◎ 2차 : 7월 16일(금) ~ 7월 19일(월)
◎ 3차 : 7월 23일(금) ~ 7월 26일(월)
◎ 4차 : 7월 30일(금) ~ 8월 2일(월)
3. 장 소 : 홍천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선문장)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4. 참가비 : 6만원
5.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운동화
6. 접 수 : 온라인 접수 (농협 : 303040-51-017583 예금주 : 손수열)
전화접수 (서울 금강선원. 홍천 참선수련원)
접수마감 : 6월말
8. 문 의 : 서울 금강선원 02-445-8484 FAX 02-445-8043
홍천 선문장 033-433-5845 ~ 6 FAX 033-433-5847

대한불교조계종 金剛禪院

"부처님 등불"
수공예양초

기원 전기촛불 수공예 양초 (색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빨강 외 다수)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장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장인정신을 담아 손으로 정성껏 제작한 수공예양초입니다.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옥색) 소원성취(핑랑) 선혼기원(자주)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광고협찬 : 불교용품점
문의 전화및 취급점 상담 | 서울 02)734-1383 이화불교사(조계사 옆) | 대구 053)354-7880 만평불교사

계행 철저…禪敎 겸비한 태고종 역사 산 증인

혜초 스님의 행장

40년간 주석해 온 법륜사 총무원 청사 부지로 기증

혜초 스님은 스승인 전 종정 덕암 스님과 함께 청정비구의 몸으로 태고종에 남아 한국불교 제2종단으로 일군 태고종 역사의 산 증인이다. 1950~60년대 불교계가 '비구-대처' 분규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금강산 유점사 서울포교당인 사간동 법륜사에 남아 종권 수호를 위해 뛰어다녔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철저한 지계와 수행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수십년간 법륜사 주지로 있으면서도 "물질을 가까이 하면 나태함이 찾아든다"며 재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금도 매일 새벽 2시 <석문의범>에 있는 행수해와 사성례로 일과를 시작해 <금강경> <원각경> '보안장' '법화경 약찬게' '화엄경 약찬게'를 차례로 독송한 후 예불을 올린다. <아미타경> 독송과 참선 수행도 빠뜨리지 않는다. 스님이 태고종 스님들의 사표로 존경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인사 전문강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에서 수학하고 해인사, 선암사 선방에서 안거를 성만해 선교를 두루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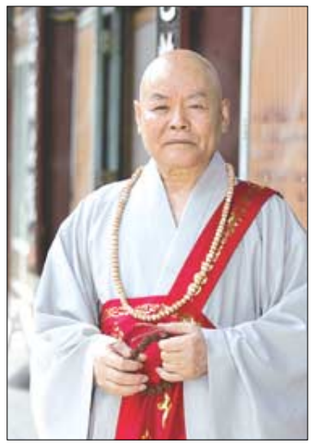
스님은 평소 종단 내외 큰스님에 대한 각별한 공경심으로 말없이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일흔 살이 넘은 나이에도 스승 덕암 스님이 원적하는 순간까지 곁에서 모셨다. 또 최근에는 40여년 동안 주석해 온 법륜사를 태고종 총무원이 입주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부지로 기증하는 등 직접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혜초 스님은 이후 태고총림 선암사 종정원에 주석하면서 가르침을 내린다.

혜초 스님은 종정 추대를 수락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어를 내렸다.

일묵천하무이법(一默天下無二法)
태고청풍개화만(太古淸風開花滿)
월인천강경수청(月印千江鏡水淸)
청천백운만리통(靑天白雲萬里通)
일묵천하무이법이여
태고청풍이 활짝 피었구나
천강에 비친 달이 거울속의 물결까지 맑히니
푸른 하늘 흰 구름이 만리에 통했도다.



혜초 스님은 찾아오는 모든이에게 차별없는 가르침을 내려준다.



6월14일 태고종 제16세 종정으로 추대된 혜초 스님.

조화로운 세계 열린다

기 공부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선 신심이 깊어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심이 돈독하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고 중노릇 제대로 하질 못해요. 또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증은 신해행을 모두 갖추었을 때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또 절에 여비 받으러 다니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토굴에서 만행 나왔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맘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이래서는 불교계에 희망이 없습니다. 만행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안 겨예요. 만행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탁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탁발이 스님들 배불리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발도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만행과 탁발은 수행의 연속인 거지요. 수행을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고행을 즐거워해야 비로소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편하면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고행을 근본으로 삼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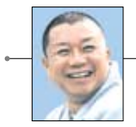
출가자, 계율 제 몸처럼 여겨야

불교의 생명력은 지계(持戒)에 달려 있습니다. 계율은 1600년 불교를 지탱해 온 힘이예요. 출가자는 계율을 제 몸처럼 여겨야 합니다. 지계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한 터닦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은 곧 도입니다. 그렇다고 지계가 출가자만의 의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재가자도 10계는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불교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에서 살면서 부처님 덕에 밥 먹고 사는 것을 양잿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스님노릇 잘 하라는 말입니다. 참선으로 도를 이루든지, 경전공부를 잘해서 후학을 양성하든지, 의식을 잘해서 중생을 감화시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풀이라도 뽑아 도량을 깨끗이 하든지, 제대로 된 스님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출가자는 인과를 잘 알아야 합니다. 출가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행자는 바른 안목과 식견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과 스승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부처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른 생각, 바른 행을 지닐 수 없습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영 스님(2)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희생자의 영령을 천도하는 49재 의식이 서울 영화사에서 월주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내가 큰절로 월주 스님께 인사드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도영 스님은 월주 스님의 맏상좌인데, 은사스님인 월주 스님은 도영 스님을 보자 반가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도영 스님과 눈을 맞추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얘기하시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 이야기며, 당신께서 하고 계신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이시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곁에서 지켜보니 도영 스님은 은사스님이 신이 나서 하시는 말을 너무나 편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은 주위사람도 편하게 만들었다.



그림 · 문병성

월주 스님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도영 스님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려고 하면, "어이, 도영, 도영" 하면서 애틋한 애정을 보였다. 그러한 월주 스님에게서 나는 저절로 다정다감한 도영 스님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어른을 모시고 살다 보면 남는게 인내심 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종단 어른들은 30대 초반부터 조계종의 어른 노릇을 해 오시던 분들이다. 그러니 어른이 어른을 모신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영 스님은 열아홉에 금산사로 출가했다. 지금의 금산사는 본사 사격을 갖추고 있고 산사의 분위기도 충만한 사찰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출가하기 전인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만 해도 금산사에 가보면 농촌의 깊은 산속에 방치돼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부안과 김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독교 교세가 활발한 지역이다.

사춘기를 갓 넘긴 이목구비 수려하고 키가 훤칠한 청년이 금산사에 입산해 금산사의 모습도 잘 생긴 당신의 모습처럼 바꾸어 놓았다.

금산사 도량의 곳곳을 보살피면서 당신 손 안 간곳이 없을 만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낙후되고 버려진 도량이 오늘날엔 귀족풍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늘 자비스런 모습으로 주위까지 편안하게 해주시는 도영 스님을 볼 때마다 스님의 위의가 얼마만큼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보제존자 나옹 선사의 발원문에,
問我名者免三途 (문아명자면삼도) 見我形者得解脫 (견아형자득해탈) 라는 구절이 있다.
나의 이름만 들어도 삼악도를 면하고, 나의 모습만 보아도 해탈을 한다는 말씀이다.

사십을 넘으면 불혹(不惑)이라고들 하는데 40이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그동안의 행과 습관의 결과에 따라 겉모습이 형성되어지게 마련이다. 부처님말씀에 의하면 업(業)의 산물인 것이다.

도영 스님을 보면 그 말이 실감이 난다. 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표현 같다. 일평생을 나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도영 스님은 쉽지 않은 그 일을, 남이 보기에는 쉽게 해 오셨다.

남 이기려하지 않고 늘 지고 사는 수행자

나는 영화사 회주이신 월주 스님과 맏상좌 도영 스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부러웠다. 나의 은사이신 혜암 스님에게도 도영 스님과 같은 상좌만 있었어도 당신이 했던 공부의 절반이라도 사회에 회향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월주 스님은 참 상좌복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 월주 스님께서 저렇게도 상좌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니 종단이나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사람의 원력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을 해내는지를 나는 그동안 만난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그중의 한 분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다.

도영 스님은 "평생 남을 이기지 않고, 남이 나를 이기려고 하면 언제든 지고 살았다. 그것이 편하다. 또 이긴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늘 지고 산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쿵 했다. 젊은 혈기에 남에게 싫은 소리를 조금만 들어도 벌컥 화를 내기 좋아하는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했다. 남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다고 흉보고, 욕심이 많다는 등 비판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나도 남에게 지고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좋은 어른을 옆에서 모시고 사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요즘 다시 실감한다.

■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약석은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음이온이 발산되고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활성탄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북한에선 입부고위층만 사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천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오염된공기,수맥파,OA기기,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훼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의 뜻으로 금강염주를 별도로도 추가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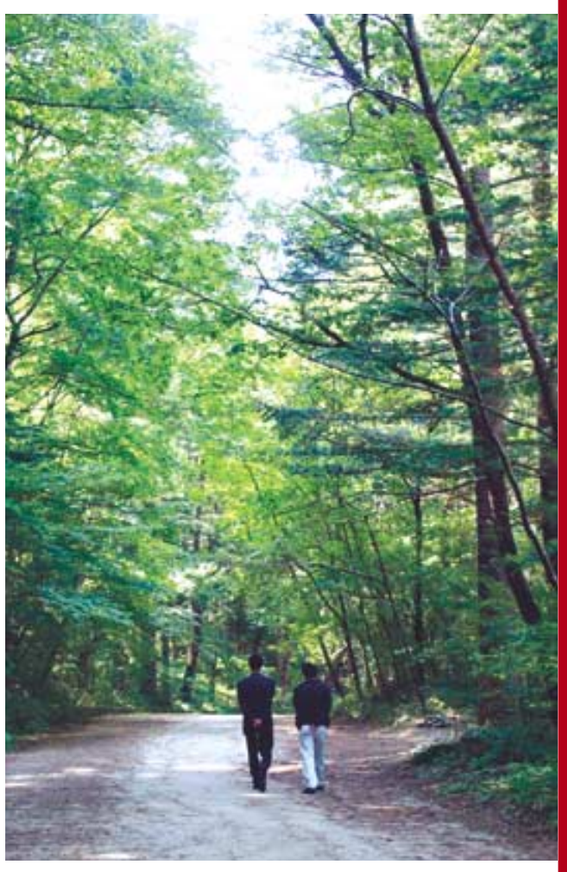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 별도가격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주말마다 가족끼리 이색체험

피로 싸~악 활력 쑥쑥



최근 숲 체험행사가 새로운 주말 여가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월정사의 '천년의 대나무 숲길'.



'팜스테이'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 행사다. 온가족이 모여 쇠스랑질을 하며 땅을 일구고 있다. 주말농장 제공

농사짓기·숲길 걷기·차 만들기 프로그램 인기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갈까?" 여가 시간이 늘면서 주말 시간 활용하기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번 둘러보는 식의 여행보다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장소에 머물며, 깊이 있는 경험을 하는 각종 '체험행사'가 도시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말에 가족끼리 다정하게 경험할 수 있는 팜스테이, 슬로우 푸드 체험, 차 체험, 숲 체험 등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팜스테이= 1박 이상 하며 농사 체험을 하는 '팜스테이'는 주말농장을 확대한 개념이다. 현재 불교계에서 팜스테이 프로그램을 갖춘 곳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구 관음사 감포수련원 등이고 재가연대와 정토회, 영남불교대, 내원시니어클럽도 주말농장을 운영 중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손모내기 황토염색 곤충채집 별자리 찾기 등을 하는 '생태농업 4계절 체험행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열고 있다. 감포수련원은 법당, 농장, 도자기 공장 수련장 등을 갖추고 있어, 주말에 1박을 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 불교귀농학교와 귀농전문학교를 잘 활용해도 친환경 유기농업을 배우고 농촌 체험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팜스테이 마을 150여 곳, 농림부의 녹색체험마을과 농촌진흥원의 전통 테마마을 40여 곳도 좋은 농촌 체험 공간이 될 것이다.

#숲 체험= 해남 대둔사의 '새벽 숲길', 오대산 월정사의 '천년의 대나무 숲길' 등은 이미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통사찰에 문의하면 숲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남해시의 편백 휴양림, 소백산 옥녀봉 휴양림, 고흥 팔영산 휴양림, 가평 축령산 자연휴양림, 대구 근교 비슬산 자연 휴양림 등을 찾으면 한동안 잊고 살았던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차 체험=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어 먹는 과정까지 즐기는 것이 바로 차 체험 행사. 광양 백운산 야생차 체험장, 다압면 다압농협, 해남군 설아다원, 보성군 징광다원 등은 수제차의 제조 과정, 생활다례교육, 제다공방 견학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한다업의 보성다원과 화개제다의 전국 차 시음장을 이용해도 그윽한 차향을 느낄 수 있다.

전국 주말 이색체험장

종 류	단 체	연락처
팜스테이	인드라망생명공동체	02)733-1884
	감포수련원	(053)473-5802
	정토회	(02)587-8990
	재가연대	(02)764-6230
	내원시니어클럽	(051)262-0691
	농협	nature.nonghyup.com
	농촌관광포탈사이트	www.greentour.or.kr
	주말농장닷컴	www.jumalnongjang.com
숲 체험	대흥사	(061)534-5502
	월정사	(033)332-6661
차 체험	백운산 야생차 체험장	(061)797-3324
	다압농협	(061)772-4006
	설아다원	(061)533-3083
	징광다원	061)857-5064
	화개다원	(055)883-8355
	보성다원	061)850-5225
슬로 푸드 체험	수도사	(031)682-3169
	터사랑	(02)725-1284
	산촌	(02)735-1900
선무도 체험	골굴사	(054)744-1689

#슬로 푸드 체험= 패스트 푸드의 반대말인 슬로 푸드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는 평택 수도사를 비롯해 사찰 음식점 산촌 등 채식 전문식당이 있다. 이와 함께 터사랑 등 답사단체들이 마련하는 매실, 된장 체험도 사람들이 붐비는 주말 여행 코스다.

#선무도 체험=선무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경북 골굴사가 있다. 골굴사는 선무도 고수 적운 스님이 지도하는 주말 정기 선무도 수련회를 열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공연

나왕 케촉과 함께하는 명상캠프

7월 3~4일 보성 대원사



티베트 불교 음악 공연을 하는 나왕 케촉.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 나왕 케촉이 한국을 다시 찾아왔다.

보성 대원사는 7월 3~4일 티베트 불교 음악가 나왕 케촉, 추키라를 초청한 '하늘 호수 연꽃 명상캠프'를 연다.

나왕 케촉과 추키라가 함께 하는 하늘 호수 위의 촛불 명상음악회를 비롯해 대원사 주지 현장 스님의 연꽃 피는 소리 명상 등 다양한 명상 기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나왕 케촉이 사인한 포스타가 증정되며 대원사 티베트박물관도 견학할 수 있다.(061)852-1755

전시

'앙코르와트 사원' 신비의 세계로

29일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앙코르와트 보물전에서 전시되는 우마와 시바상.

"크메르 문화, 그 신비를 찾아서."

서울역사박물관은 6월 29~9월 12일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소장 국보급 문화재 102점을 전시하는 '앙코르와트 보물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의 보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앙코르와트 사진전'을 열어 앙코르와트 사원을 직접 본 것과 같은 체험도 할 수 있다. 앙코르와트 사원은 9세기 이후 전성기를 맞이한 앙코르 왕국의 수리아바르만 2세가 세운 건물이다.

극장가

나두야간다 / 코미디 / 106분



개봉예정일: 6월 25일 **감독:** 정연원
출연: 정준호, 손창민, 전미선, 정소영, 권용운 등
등급: 15세 이상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오던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불러온 생의 반전. 거대 조직 보스 '만철'과 삼류 소설가 '동화'가 만났다. 조폭을 소재로 한 영화다. 넘버3 이후 액션, 코메디 등 다양한 곳에서 그려왔던 조폭의 모습이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다.

아는여자 / 코미디, 로맨스 / 107분



개봉예정일: 6월 25일 **감독:** 장진
출연: 정재영, 이나영, 오승현, 장진, 임하룡 등
등급: 15세 이상
'킬러들의 수다'를 만든 문화게릴라 장진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로맨틱 코메디 영화 '아는 여자'. 10일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했을 만큼 장진 감독의 모든 열정과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 <아는 여자>는 그가 여태껏 해보지 않은 '사랑'에 관한 단상이 담겨져 있다.

대단한 유혹 / 코미디 / 108분



개봉예정일: 6월 25일 **감독:** 장 프랑소아 풀리오
출연: 레이몽부샤르, 다비드부탱, 브누아브리에르, 피에르꼴랭 등 **등급:** 연소자 관람가
영화 <대단한 유혹>은 한 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순박한 사람들이 꾸며낸 기발하고 동화적인 일종의 사기극이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120명이나 공범이 된 대형 사기극!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한 사람에게, 그것도 낯선 이방인에게 달려있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11:10 행복 스튜디오
12:20 백팔가요
14:05 전국은 오늘
18:15 유쾌한 저녁길
20:05 다시 듣고싶은 노래
21:30 BBS 초대석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7일 09:2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8일 08:30 생활 속의 아함경 강의
9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10일 11:30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
11일 15:50 건강하게 삽시다
12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13일 08:30 화엄경 강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명상음악(6월 26일 토요일 오후 11:25~12:00)- 명상음악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관조함으로써 마음의 정화를 이끄는 시간. 다양한 장르의 명상음악을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진다.

■**불교텔레비전**: 박범훈의 불교음악 <8회>, 오케스트라 아시아 '불향'(6월 22일 08:20~09:20)-지난 5월 2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불향' 실황공연을 방송한다. 한·중·일 삼국의 민족악단이 모여 만든 오케스트라 아시아는 삼국의 불교음악을 '불향(佛香)'이라는 제목으로 연주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관음도 족자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운 미소가 담겨있는 관음도 족자. 불교미술가 조중일 씨가 현대적 기법을 활용해 표현한 작품으로 현재 일본에서 5만엔에 시판되고 있다. 불교미술 대중화를 위해 국내에서 특별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가로 42cm×세로 60cm. 가격 1개 3만 5천원, 50개이상 구입시 개당 1만원 추가할인. (02)732-1520



게시판

함께 해요

동산아미타합창단원 모집 서울 동산불교대학은 각종 불교행사에서 찬불가 공연을 할 동산아미타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동산아미타합창단은 8월 18~22일 일본 홋카이도 오타구와 양원사에서 열리는 한일찬불가교류공연에 참석할 예정이다.(02)732-1206

제주불교대학 체육대회 제주불교문화대학 총동문회는 6월 27일 제주관광산업고 체육관에서 '제주불교문화대학 한마음체육대회'를 연다.(064)722-2829

범주 스님 선서화전 범어사 해외포교당 괌 관혜정사는 6월 28일까지 서울 조선일보사 미술관에서 선서화가 '범주 스님 선서화전 및 고승 선묵전'을 개최한다.(016)667-2238

실버합창제(사진)일산노인복지관은 6월 24일 오후 4시 수원 삼성노블카운티 생활문화센터에서 '제1회 실버합창축제'를 연다.(031)919-8677



선학원 장학승 모집 재단법인 선학원은 7월 10일까지 스님 대상의 '선학원 장학금 신청 공모'를 받고 있다. www.seonhakwon.or.kr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02)734-9654

석왕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부천 석왕사는 6월 25일 제 4기 불교대학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9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032)663-7771

부모 역할 강좌 서울 신길종합복지관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강당에서 건강한 자녀 성장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좌를 실시한다.(02)831-2755

증심사 음악회 광주 증심사는 6월 26일 오후 7시 문화광장에서 일본 사토유께를 초청한 음악회를 연다.(062)226-0107

즐겁게 떠나요

우포늪 답사 답사모임 터사랑은 6월 2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늪지 창녕 우포늪으로 떠나는 생태답사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전 7시 서울 안국역, 참가비는 3만 8천원(02)722-9747

한려수도기행 답사모임 '옛돌'은 6월 25~26일 아흔아홉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인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으로 무박 2일 섬 여행을 떠난다. 출발은 저녁 11시 서울 지하철 압구정역.(02)953-1313

공부합시다

철야용맹정진 보림선원 서울지부는 6월 26일 저녁 10시 서울 보림사 선방에서 토요일 철야 용맹정진을 실시한다.(02)914-6187

요가 수련 특강 대구 동화사는 7월 2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오후 2시 30분 통일대불전에서 2개월과정의 요가 제3차 수련특강을 진행한다.(053)982-0101

최봉수 교수 초청 특강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6월 28일 오후 7시 대법당에서 최봉수 교수를 초청한 불교특강 '깨달음의 본질'을 실시한다.(042)624-6555

노인 취업교육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6월 24~25일 센터 3층 강당에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한다.(031)455-0551

요가 지도자 과정 속리산 산피와남 요가수련원은 제6기 요가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7월 1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1년 이상의 수행체험자. 요가 경전 원문 강좌를 비롯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043)544-4406

기체조·요가 강좌 남양주 혜인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기체조, 요가반 수행 지도 시간을 갖고 있다.(031)551-2107

길상사 정기수련회 서울 길상사는 6월 26~27일 주말 정기수련회를 연다. 불교 좌선, 예불, 공양 등 불교의 기초를 배우는 기회.(02)741-4696

20면 상식 퍼즐 정답

이	발	사		하		
심		당	간	지	주	
전			장		장	
심	신				자	손
	륵		판			자
	사	생	결	단		병
		사		감	로	법

신행수기

무봉탑(無縫塔) 〈상〉

김봉환 (43·충북 진천)



'무' 자 화두는 나무를 다루는 일에 몰두하거나 일상생활 중에서도 떠나지 않았다. 사진속 인물이 필자.

'무(無)…'

없을 무(無), 허무(虛無)의 도로 떠오르는 '무'라는 화두가 어느 순간 내게로 왔다. 이때까지는 화두를 구할 엄두는 물론, 접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근기가 수승한 스님네 들만 접하는 이 '무'자 화두가 왜, 내게로 온 것일까. 갑작스레 다가온 화두는 마치 벼르고 벼른 끝에 나를 찾아온 것 마냥, 잠시도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나, 속을 비울 때는 물론이고 눕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나 매한가지였다.

실은, 이전까지 나는 나무를 다루고 있었다. 아무리 거칠고 볼품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내 손을 거치고 나면 찻잔이 되고, 도자기가 되고, 웅장한 탑이 되기도 하였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 과정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도의 한 방편인 셈이었다.

이 와중에 잡힌 '무'라는 화두는 나무를 다루는 일로 인한 그 어떤 감흥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전까지 그토록 열정과 보람을 느끼던 나무와 관련된 모든 일이 그토록 허망하고 쓸모 없게 다가올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 한가운데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이 '무'자 화두와 끝이 보이지 않는 담판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 편으론 달래보기도 하고, 얼러 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혼란한 마음을 다스려 보았지만 가슴은 더욱 답답해지고 있었다. 그에 편승이라도 하듯, 하단에서 시작된 기운은 상기가 되어 머릿속을 온통 실지렁이 같은 복잡 미묘한 감정만 꼬아놓을 뿐이었다.

'주체할 수 없는 미혹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마음은 과연,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무… 무…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나는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어떤 파장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창문 가에 놓아 둔, 나무로 만든 '탑'이었다.

이전까지는 그저 몇 번의 내 손놀림 끝에, 다듬어진 조각 정도로만 느껴지던 탑이 살아있는 생물체보다도 더 신비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 한 자로 떠오르는 화두와 탑에서 전해오는 파장의 경이로움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백회 부위의 경혈이 '뻥' 뚫리는 느낌에 나는 적잖이 고무될 수밖에 없었다.

無자 화두 왜 내게 왔을까? 탑 쌓으면 풀릴 것 같은데…

어쩌면 화두에 대한 궁극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방편으로 괜히 탑을 한 번 쌓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답을 얻었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눈에 띄는 대로 탑을 쌓을 만한 재료들을 모아, 아무 생각 없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단층의 탑이, 어느새 내 키를 훌쩍 넘어 천장까지 닿을 정도가 되었다. 순간, 내 몸의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전율이 내 몸과 영혼을 하나로 이어주는 대 환희심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 바로….'

이제는 '탑'이라는 유형의 실체가 화두이자 실상의 도(道)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를 잊을 수 있었지만 그 경계 넘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무엇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웬지 모를 허전함이 늘 잔상으로 남아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터라 탑으로 인해 다가온 위와 같은 감동은 불 보살님이 내게 주신 대자대비의 공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닌 꿈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탑을 쌓고 있었다. 주변에 널린 이름 없는, 인연 없는 돌들, 그 모두가 오직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중에는 몇 천년이 된 돌도 있었고 몇 십 년이 된 돌도 있었다. 허나, 그 돌들 모두엔 하나같이 깊이를 알 수 없는 한(恨)이 전해져 왔다. 그런 돌에 내 손이 닿자, 돌은 영혼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돌의 영혼은 그 답례로 나를 들어 올렸지만 나는 따라 올라 갈 수 없었다. 나에게는 피를 나눈 혈육이, 정을 나눈 이웃이, 한 민족이라는 인간의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상에 남겨진 나는 영혼이 빠져나간 뒤의 빈 껍데기 같은 돌을 안아 들었다. 돌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토록 가슴 벅찬 희열로 다가올 줄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다. 순간,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형언할 수 없는 천상의 음악이 허공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로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던 돌의 영혼이 눈이 부실정도의 금빛 후광을 띤, 불보살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와 한 층, 한 층 탑이 되고 있었다. 그 원대한 공덕으로 인해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론, 구천을 떠도는 길 잃은 영혼들이 일순간에 법열에 드는 최상의 공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주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희열로 인해 나는 꿈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후, 나의 몸과 영혼은 온통 탑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 보살의 경계를 경험 할 수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공덕이 있을까. 하지만 나의 근기는 그 이상 더 나아갈 수 없었다. 탑을 쌓아야 한다는 일념만 있을 뿐, 언제부터 어느 곳에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막막할 뿐이었다. 피가 마르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과정이 이어졌다. 꿈에서 본 한 많은 영혼들이 특히 이 나라, 이 겨레를 지켜온 호국영령들의 피끓는 애국심이 내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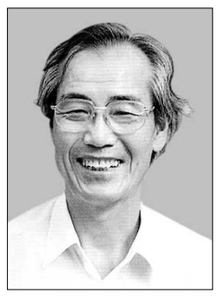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윤철환
시인·한국화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깨칠 수 없다" 불교방송과 참선 하루의 시작과 끝

어제 밤 자정이 넘도록 원고정리를 하느라 일을 한 탓일까, 아침 5시만 되면 깨워주는 불교방송의 방송개시 신호도 모른 채 7시가 넘어서야 깨어났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의 '경전공부'와 '고승열전', 그리고 '불교강좌' 청취를 놓치고 말았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11시에 서울 봉천동에 있는 임제선원에서 법요식이 있어 참석했다. 법요식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영화가 다 보장되었건만 이를 박차고 출가하여 고된 수행으로 배가 등에 붙은 부처님의 고행상을 떠올리며 그 위대성에 눈물이 났다.

법요식이 끝나고 법현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그 중에 부처님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이야기. 즉 석가모니가 탄생 직후 한 손으론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론 땅을 가리키며 일곱 발짝을 걷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며 사자후 했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한 운문문언 선사의 혹독한 독설 말이다.

운문문언 선사는 말했다. "내가 당시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일격에 때려죽여 몸뚱이 살을 개먹이로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했다.

실로 타종교 같으면 파문을 당하기 알맞은 독설이다. 자기가 신봉하는 교주에 대하여 이토록 불경스런 언사를 쓰는 종교가 또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게 불교의 특성이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과연 '부처님을 때려죽이겠다'는 말은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대로 육신으로 현존하는 부처님을 때려죽이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일이냐 말이다. 물론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상, 즉 온갖 고정관념과 망상, 그리고 분별심을 깨부수기 위한 것이리라.

비슷한 이야기로 임제 선사의 '살불 살조(殺佛 殺祖)' 이야기가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것이다. 역시 이 말의 이면에 깔려있는 뜻은 무엇이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깨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내가 속한 문학단체에서 동인들과 함께 테마기행을 했다. 그 때 내가 입고 있던 조끼에 새겨진 '무불(無佛)'이라는 로고에 대해 어떤 시인이 물어왔다. 무슨 뜻이냐고. 그 로고는 내가 강남의 신사동에 있었던 '무불선학대학원'에 다닐 때 법우 중에 의류업을 하고 있던 각명 거사가 수학여행을 겸해서 중국의 선불교 유적지를 탐방할 때 보시로 나눠준 것이었다. 나는 그 조끼를 입으면서 언젠가는 그런 질문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해 왔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 질문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 질문을 받자 짧은 시간에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답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나는 '왜 무불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일도 있지 아니한가. 얼떨결에 "수행자는 어떤 우상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으나 그것을 질문한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쓰고, 평소대로 반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선을 했다. 마음이 고요해져 좌복에서 일어나 살불살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이해시키기 쉬울까 하고. 문득 김호성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즉 비(卽非)의 논리가 선문(禪門)이 될 수 있다는…. (계속)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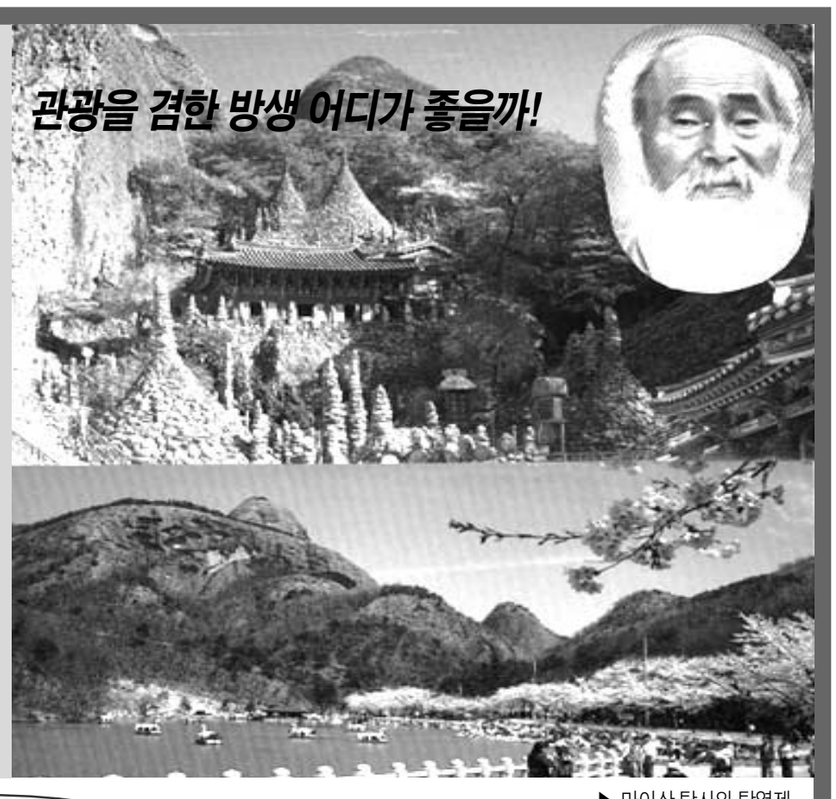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4년 6월 25일 ~ 8월 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4년 5월 20일 ~ 6월 25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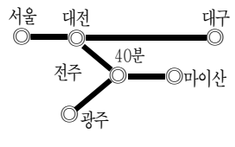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한·일 茶문화 한자리

논문 발표 비롯 일본 전차·궁중다례 시연

한일수교 40주년을 한해 앞두고 양국의 차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 · 일 차(茶)문화 식문화 교류전'이 6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명원문화재단, 일본민족예술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일전통문화교류협회 조만제 회장, 종정다례원 이정애 원장을 비롯한 차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후에는 일차암(一茶庵) 14대 이에모토(家元, 한 유파의 정통을 잇는 가문) 쯔쿠다 이까(佃一可) 씨의 일본 전차(煎茶)시연과 명원문화재단의 궁중다례시연이 펼쳐졌다. 특히 쯔쿠다 씨는 강화 정수사의 약수를 떠와 전차 시연에 사용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눈길을 끈 두 편의 논문 요지를 소개한다.







명원문화재단의 궁중다례시연(왼쪽)과 일본 일차암의 전차시연 모습.

다서(茶書)와 다정(茶亭)-한일의 비교 관점에서

니시가키 아비코 교토대학 교수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문화를 형성해 온 일본과 한국은 차문화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의 차문화에는 다옥(茶屋)의 전통이 있었다. 다실(茶室)이 폐쇄적인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다옥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주위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19세기 초 전차실 조성 활발 다옥 형태
한국- 같은 시기 다정 번성 교유관계 위주

그러나 황자가(黃紫家)의 매다옹에 의해 전차가 유행하게 된 1800년대 전반부터는 많은 다서가 쓰여지고 전차실(煎茶室)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에도시대 말경에 조성된 전차실은 여러 동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옥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오랜 차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도 같은 시기인 1800년대 전반에 초의 선사, 정약용, 김정희 등의 교유관계에서 전차가 번성하여 다서가 쓰여지고 다정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다정도 주위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 많은데, 그곳에서 문인들은 차를 즐기고 시를 읊었다.

이와 같이 전차의 유행과 다서의 발간, 다정의 조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한일 양국에서 동시대에 유행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의례에 있어서의 다례

권태원 충남대 명예교수

신라시대에 유행한 차문화는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계 선승과 더불어 왕실, 귀족사회에서 널리 성행했다. 특히 고려 말에는 당시 대표적 유학자와 승려들간에 다도를 통한 교유가 이루어졌다. 이때 불교의 진다(進茶) 의식이 유교

불교의 진다(進茶) 유교제례의식에 영향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에 술, 감주 등 대신

제례의식에 영향을 주어 다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초기까지 이어져 조상의 사당과 묘소에 차를 올리는 문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문화가 쇠퇴하게 되자 왕실과 사대부 및 민가에 이르기까지 제례에 차를 대신해 술과 감주, 숭늉 등을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9세기 초 신라 흥덕왕 때 대렴에 의해 차종이 옮겨진 지리산 일원과 남도의 민간에서는 작설차 등이 전해지고 있었고, 조선후기 유학자인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혜장 선사와 초의 선사와의 교유는 잊혀져 가는 차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됐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비구니회관, 다도강좌 수강생 모집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문화센터에서는 다도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명선차인회 이사장 혜성스님(강화 백련사 주지)이 차의 역사와 다서(茶書) 강독, 다도 등을 강의하는 이번 강좌는 6월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다.(02)3411-8106

김창배 화백 '차한잔의 명상' 펴내

'선과 차'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담원 김창배 화백이 <차한잔의 풍경>과 <차한잔의 인연>에 이은 세 번째 다화(茶畵)집 <차한잔의 명상>을 펴냈다. 소설가 한승원 씨는 "김 화백의 그림과 글씨는 원만하여 막히는 데가 없고 사랑과 자비로움만 가득한 원융한 세상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고 평했다. 차인들의 모습과 차 마시는 풍경을 담백한 묵선으로 펼쳐온 김 화백은 출간 기념 초대전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여대 미술관에서 열 계획이다. (02)736-7445

무등청소년회 차예절 경연대회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무등청소년회가 주최하는 '제6회 무등청소년문화예술제(www.wawatv.net)'가 6월 27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전국 초 · 중 · 고교생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차 예절 경연대회도 함께 열린다. 참가분야는 어린이 다례와 생활다례이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참가신청서 1부를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6월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062) 224-5525

우리 사찰 차 모임 —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과

'다도 포교사' 양성 영근다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과는 지난해 12월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일 찬불가 교류대회'에서 헌다례를 펼쳤다.

지도자 과정 이수시 '다도법사' 품수
매학기 한과목 집중 교육 전문성 키워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는 중앙대 박전열 교수의 '일본다도' 강의가 한창이다. 40~50대가 대부분인 20여 명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 한 마디라도 놓칠 새라 열심히 필기를 하며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었다.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과는 2003년 3월, '다도 포교사' 육성을 목표로 문을 열었다. 전통 차문화 계승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온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차문화 육성에 힘을 쏟지 못하는 오늘날, 차를 매개로 포교활동에 앞장서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3년 과정의 기본과정 이수자는 '불교다도포교사'로,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2년 과정의 지도자과정 이수자는 '불교다도법사'로 품수해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창립취지 덕분에 다도학과에는 이미 다른 차회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다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차를 통해 불교 포교에 앞장서고 싶어" 이곳을 찾게 됐다고 말한다.

한국차인연합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조연희(55) 회장은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다도학과에서는 지난해 우리의 전통 차문화사와 중국 차문화, 유럽의 홍차문화를 거쳐 이번 학기에는 일본 차문화를 배우고 있다. 매학기마다 한 가지 교과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언제 입학해도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장실습도 빼놓을 수 없는 행사다. 매년 5월 경남 하동으로 제다실습을 떠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대만 등지로 차문화 답사를 떠나기도 한다.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이 전국의 사찰 등에서 '다도포교사'로 활동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말한다.

다도학과는 9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강하는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02)732-1206.

인터뷰 — 조연희 회장

茶, 포교활동에 훌륭한 매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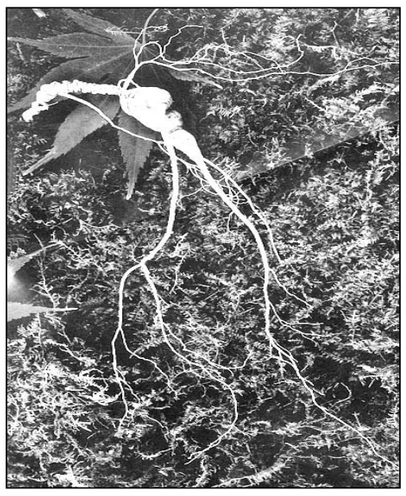
"차 한 잔 나누는 것만큼 효과적인 포교활동은 드물 겁니다. 저를 비롯한 다도학과 학생들은 차를 통한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싶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7년 전 차를 처음 접했다는 다도학과 조연희 회장은 "차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며 "앞으로 지도자과정까지 열심히 배워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수행에 매진할 수 있는 차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보이차는 어떠십니까?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는 곳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 · 茶人들이 즐겨 찾는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인급,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청차,말차
괘목 다반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자성을 믿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무겁게 살아가세요!

478호에 이어서

▲질문자9: 감사합니다. 한 가닥 접어서 생각하면은 하나도 질문할 것이 없고요. 또 한 가닥 접어서 생각하면 질문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기회에 제가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저는 선원에 한 다섯 번째 정도 나왔지만 절을 다닌 지는 한 20여 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음은 확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외숙이 목회자였습니다. 저를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고 했는데 아무리 애써도 전혀 믿음이 오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들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거부감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르라." 하시면서 가셨던 게 좀 마음에 스몄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에 쭉 다니면서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 크게 오지를 않았는데 한 2개월 전에 스님의 법어집들을 좀 봤습니다.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아, 대행스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내 생활하고 어쩌면 이렇게 같은가.' 하면서 좀, 동감이 가고 '아, 이랬었구나!' 하면서 더듬어보면 '그 마음자리로 살아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은 지금도 확오지를 않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절에도 한 번씩 나가고 또 선원에도 한 번씩 나오면서 조금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종교를 갖지 않고 무신론자들도 마음만 내고, 적극적인 마음만 내면 그 신비로운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과 불교와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한마음 공부와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마음으로는 그런 모든 내 마음을 내가 내려다보면서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공부하는 데는 주저주저하면서도 내가 한마음이나 선원이나 불교에 매달리지 않고 생활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혼돈이 와서 믿음이 잘 안 오는데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님: 아휴! 참. 이런 종교인을 다 봤나, 하하.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 쳐놓고 아, 세상의 생활하고 불교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떨어져?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야. 우리가 말하고 돌아가는, 이 같은 마음으로써 말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야. 일체 만법의 생활이 그대로 불법이야. 우리 인간들의 법이란 얘기야. 그런데 뭐가 따로따로 있다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겠소? 그대로가 한마음의 근본이며 진리다 이거야. 불교가 어느 한 쪽에 국한돼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니야.

▲질문자9: 그렇죠. 그러면 절에 안 나오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잘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한마음으로 그냥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불교이긴 불교인데 그것도 옳은 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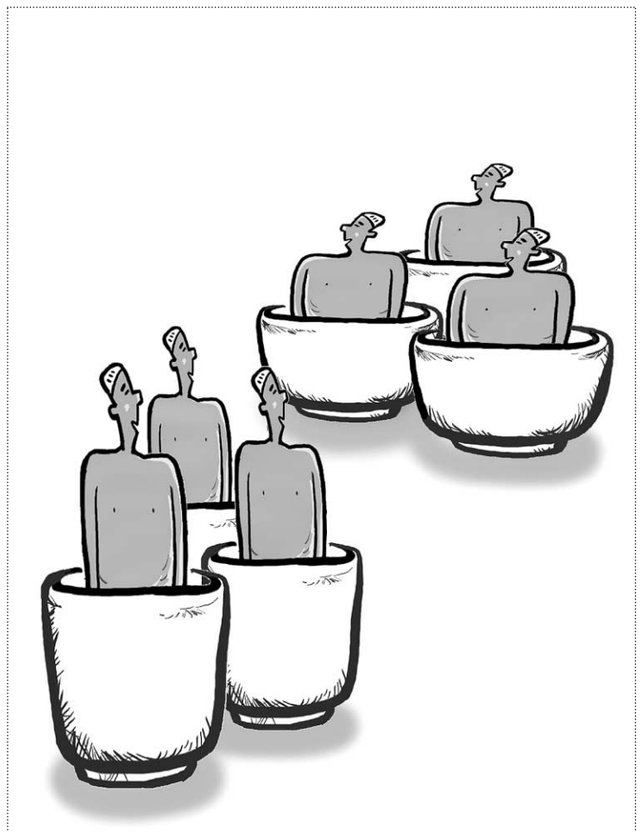
▲스님: 어허, 이거 봐요. 왜 당신네 자녀들을 당신네들이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지 왜 학교에 보내요?

▲질문자9: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스님: 허허허. 하여튼 모두 다양하게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니까, 모두 주변에서도 듣고….

▲질문자10: 저는 세 번째 찾아왔습니다. 먼저 스님을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미래에 백년해로할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 탓인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믿고 관(觀)하면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지요.

▲스님: 그렇게 한마음이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잘 해서 잘 분간을 해야 돼. 내 그릇이 얼마만한 그릇인가? 그쪽 그릇은 얼마만한 그릇인가? 잘 봐서 같은 그릇으로써 인연을 맺는 게 좋겠지. 그거를 봐야 하고, 또 그렇게 봐서도 그 경로가 마음이 잘 통하지 않고 그렇다면, 통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무 엄청나게 기울어진다면 통할 수가 없겠지, 자연적으로 그건.


그림 · 최주현

항상 감사함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과거의 업보가 홀연히 녹아집니다

▲질문자10: 지금 군인입니다. 장교로 있습니다. 삼사 출신으로 가서요. 그런데 성격 탓인지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되든가 안 되든가 그건 당신만이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고 거기다가 맡겨요. 알았어요?

▲질문자10: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성격이 날카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목에 갑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거든요.

▲스님: 그것도 내 주인공만이 낫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 놔요. 성질이 올라오거나 성질이 나는 것도 거기서 나는 거니까, 성질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라고 믿어요.

▲질문자10: 감사합니다.

▲스님: 성질을 자꾸 내지 말아요. 성질을 내면 내요, 몸이 첫째 망가져요. 왜 망가지느냐? 내가 성질내는 대로 속에 의식들도 다 성질을 내거든. 그러니깐 몸이 망가질 수밖에. 나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허허허.

▲질문자10: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스님: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알리는 주지스님에게)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좋고 좋은 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리…. 멀고 먼 데서도 찾아왔는데. 아, 그러면 갔다가 와! 그거 뭐 걱정할 거 없다, 갔다가 와! (대중 웃음) 갔다가 와! 아냐, 갔다 와!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자기 발로 자기가 갈 거라고.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안 갈까, 갈까?' 이거 생각 안 한다고. 그냥 갈 수 있다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변소가 없나 뭐가 없나, 뭐?

▲질문자11: 우리 애가 가끔 가다가 쓰러집니다.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해보십시오. 너무도 괜찮은 도리입니다.

▲질문자11: 예. 저 멀리 경북 청송군에서 어제 왔습니다. 그러니 스님, 저의 애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스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좋은 도리입니다. 광대무변한 도리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본인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질문자11: 본인도 왔습니다. 나이도 스물아홉 살이에요.

▲스님: 항상 감사함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과거의 업보가 홀연히 녹아집니다.

▲질문자12: 스님, 하도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스님을 뵙고 간 뒤로 제 딸이 졸업도 안 하고 좋은 데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얼마 많지 않은 첫 월급이지만 스님께 올렸습니다. 또 제 소원은요, 막내란 놈이 광주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작년에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시 재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실력이 좀 부족한 탓인지 시험은 쳤어도 저는 항시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참 마음이 정직하고 그런데 빚을 좀 많이 졌습니다. 시골에 논이 좀 있는데 통 매매가 안 돼요. 매매라도 돼서, 어서 하루속히 빚을 좀 갚았으면 싶어서, 하도 걱정스러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스님: 예, 그것이 바로 인생살이의 본 마음이죠. 그거를 싫다 할 사람 없습니다. 또 싫다 할 부처님 안 계십니다. 그러니 열심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서의 그 줄을 잡았으면 그 줄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그 줄도 나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질문자13: 아래층에 있다가 용기를 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온 식구들이 다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당뇨로 눈도 안 보이시고 수술도 하시고 병석에 오래 누워있어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몇 달 전부터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인슐린도 안 맞고 병원에서 약 타오는 것도 안 하고, 어머니도 마음을 내서 약을 안 먹고 해서, 그전까지는 방에서 옆방으로 움직이는 것도 잘 못했는데 주인공 공부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다 하고 딴 사람들에게도 주인공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엊마 전 밤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우리 공부 시키는 것이다. 주인공한테 놓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꾸 엄마가 고통스러워하시니까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것인지, 맡기는데 맡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님: 못하는 게 아니라요.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죽는 거든 사는 거든 양면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죽는 거를 살리려고만 애쓰면 저울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깐 죽는 거든 사는 거든 양면을 다 놓으셔야 빛,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광명이 탁! 번쩍 일어나죠. 예? 죽는 거를 두려워하고 살리는 것만 애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 도리를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르게 양면을 다 놓으시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자13: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열심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질문자13: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자14: 스님, 저는 맏이인데요. 막내 시동생이 스물일곱 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른한 살인데 애들도 어리고 아직도 젊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파서 주인공 공부를 배운 뒤로는 늘 지극하게 마음을 내서 계속 관(觀)을 합니다마는, 제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아직 낫지를 않고, 또 그 시동생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스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네 가슴속에 함께 계시다. 밖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해도 안으로 하라.' 고 제 나름대로 말을 하긴 하지요. 그래도 낫지를 않고 그래서 오늘은 이 법회 오기 전에 광주에서 생각하니까, 내 아들 딸이었다면 스님한테 진작 먼저 달려왔을 터인데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용기를 내서 스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가면 스님 앞에 꼭 말씀을 드릴 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스님: 부처, 태양은 즉 말하자면 똥구덩이라고 태양이 비춰주질 않고 또는 똥구덩이가 아니라고 비춰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빛을 가리고 있으니깐 태양이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지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여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뒹쳐지는 그 마음, 한마음 내서 이끌어가는, 그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몸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길 인도하는 나를, 길잡이를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인한테 몸나을 때까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보십시오.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생명 아닌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불교가 따로 있고 기독교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렇게 마음들을 좁게 쓰니까 그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질문자15: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보살입니다. 전번에 스님 친견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심장을 많이 다쳤는데 정신이상이 돼서 스님한테 한번 공부하는 도중에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 후에 또 11월 달에 정기법회에 왔다갔는데 꿈에 스님이 공부하는 도중에 저한테 줄을 하나 던져주셔서 줄을 받아 쥐었는데, 줄이 아니고 토큰이었어요. 토큰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 숙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겠습니다.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한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진실해야

☞29면에서 계속

▲스님: 이 마음을, 죽는다 산다를 그냥 놓고 작업하는 것이 둥글리는 겁니다, 모가 나지 않게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죠, 뜻을 본다면요.

▲질문자15: 네.

▲스님: 그러니까 이 오온(五蘊)의 진리가 그대로 인간의 마음에 모두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직결돼 있는 그 자가 발전소에다 모든 걸 놓으세요. 거기다가 맡기시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정코 가져보세요.

▲질문자15: 그래서 저번 첫째주 법회에 와가지고 스님께 두서없는 글월을 올렸습니다. 총무스님께서 몇 자 적어놓고 가라 해서 적어 올렸는데 전화도 몇 번 올렸고, 행여나 토큰이라서 차를 타고 오면 약이 있을까 해서, 심장을 많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스님: 걱정 마시고요, 어서 그렇게 해보세요.

▲질문자15: 네, 감사합니다.

▲스님: 부처님도 죽고 사셨는데, 이 몸뚱이야 늦게 가나 빨리 가나 가기는 일반입니다. 하지만 벗을 때가 되면 벗는 거고 또 나을 때가 되면 낫는 거죠, 뭐, 열심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질문자16: 스님, 저는 심장판막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동생을 통해서 스님 친견을 한 결과 "수술은 하더라도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란 얘기를 듣고 나서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가 스님 말씀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숨이 차고 윗배가 불러서 무척 힘이 듭니다.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스님: 수술을 해서 오히려 망가뜨리는 수가 있고 수술을 안 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사 박사님들도 보이지 않는 데 50%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35%밖에는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65%는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판막증이라면 다른 기능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그렇게 되죠.

▲질문자16: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부분은 다 깨끗하고 판막 하나만 메꿨다고요. 나팔로 해서 거기를 넓혀줬거든요. 혈관 따라서요.

▲스님: 그거를 그렇게 넓혀줬다고 하더라도 세 포 하나하나에 그 의식들이 기능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깐 공부 열심히 해요. 한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면 괜찮아질 테죠.

▲질문자17: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어린애를 못 낳아서, 말씀 좀 들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스님: 그런 말 들어보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말 들어보는 데가 아니라, 그 말을 들어보지 않고도 자기가 리드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그런 데입니다.

▲질문자17: 결혼한 지가 한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는데 밤낮 시집에서는 기다리고….

▲스님: 여기는 공부 가르치는 데고 길을 인도하는 데니깐, 나와서 길을 인도받으라고 그러세요.

▲질문자17: 여기 나왔습니다. 전라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중 웃음)

▲스님: 허허허, 열심히, 열심히 말입니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일체제불과 같이 한데 뭉쳐 있는 자체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다 한마음으로 뭉쳐 있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누가 말을 하면 한눈 팔지 마시고, 본인더러도 그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라고 그러십시오.

▲질문자17: 감사합니다.

▲스님: 이거 뭐, 허허허. 아니,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질문자18: 스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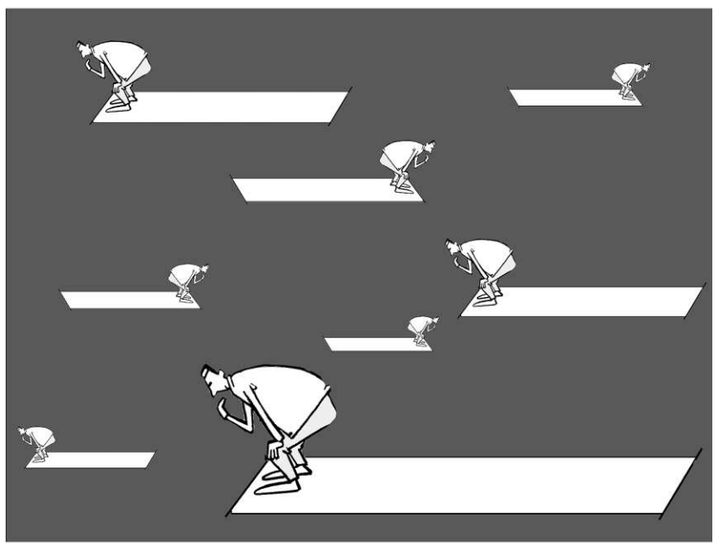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이 모두가 그러그러하니까 그저 그러그러하게 여여한 마음으로써 마음을 턱 놓고 인생살이를 해봅시다!"

▲사회자: 마음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스님: 그저 아주 낮고 중간이고 제일 위고, 삼합이 다 맞아서 돌아가는 이치니까 내버려두자. 허허허. (대중 웃음과 박수)

▲질문자18: 스님! 감사합니다. 먼저 대구에서 사위 때문에 온 보살입니다. 천도재 이후에 유방암이 골수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새록새록 살아나는데 아픈 거를 저렇게 못 견디니까 답답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스님: 나야 뭐, 의사가 아니니 무슨 다른 말을 해주겠습니까?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까와 같이 세포 하나하나에 그 의식들이 기능을 해준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내 발목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왼쪽 목을 가리키시고) 목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굳어져서 병원에서 뚫었는데도 뚫은 자체도 움죽거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게 됐다고 붙들고 우는 겁니다. 가질 못하게 하니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진정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육체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린애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 그게 그냥 그날부터 움죽거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빼도 아무 탈 없이 그냥 말하고 그냥 먹고, 그래서 상까지 받았죠. 무슨 상이냐 하면은요, 감사하다는 상요. 허허허. 무언의 무심(無心)의 상 말입니다.

▲질문자18: 저번 토요일날 그날 한 세 번 일어나서 밤을 새웠어요, 하도 아프다니깐요. 그런데 그날 꿈에 스님께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젯밤 꿈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니깐, 뭐 최씨 성을 가진 사람 발목을 잡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허황된 꿈인 줄은 아는데 스님께 여쭈고 싶어서요.

▲스님: 꿈이 허황된 것도 아니고 안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생시가 꿈이고 꿈이 생시니깐 말입니다. 이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마음을 먹고 꿈도 꾸는 거고, 꿈을 꾸는 것도 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음으로써 당당하고 담담하게, 믿는 마음으로써 당당하고 무겁게 두시면서 해보십시오. 그게 발목 붙드는 얘깁니다.

▲질문자18: 본인도 열심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음 주 법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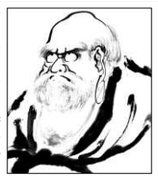
▲스님: 세상이 모두가 그러그러하니까, 그저 그러그러하게 여여한 마음으로써 마음을 턱 놓고 인생살이를 해봅시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와 우주 천지도 없으며
사생(四生)과 사제질도 없으며
동서와 시간도 없으며
공(空)한 것도 없으며
없는 것조차 없는데
곳곳마다 바람과 물 없는 곳 없고
꽃 안 피우는 곳 없고
두루 푸르지 않은 곳 없으니
앞산 뒷산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며 화(化)하여 나투는데
발은 발대로 있고 손은 손대로 있더라
어찌 광대무변하다 아니 하리.

(게송을 읊으신 후 법좌에서 내려오심)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1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굿을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서로 같이 살면서도 고통속에 살며 자식이 결혼운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가 장사가 안되고 매매가 안되 궁금하신 분
-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시험결과, 사업의 시작과 끝 즉 자신의 사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궁금하신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실성하고 헛소리나 행동을 하는 사람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당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조상천도 낙태아천도 병고를 가져오는 객귀물이를 돈이 많이 들어 망설이시는 분 연락주시면 보시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봉행 하겠습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 사주통변비법과 기공과 명상으로 영가천도를 하는 영력천도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알립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아늑한 산속 기도도량입니다.

천년된 입체미륵 석불이 땅속에서 나투신 영험믿는 기도도량을 준비하는 관계로 이제서야 개방함을 알립니다.

조계종스님으로 강원 및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법력10년이상된 엘리트스님 6분을 모십니다. 보시금은 최고대우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에 자신 있으신 공양주보살님 2분도 함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또한 삼사순례 주지스님께서는 미리연락주시면 점심공양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양인원은 5백명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께서는 통나무 하우스에서 무료숙식 가능하오니 누구라도 기도효험을 받아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주지 삼밀 합장
031-884-4883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 여주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 → 장호원방면으로 8km가시어 전동면 소재지에서 미륵사를 찾으십시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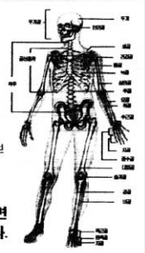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비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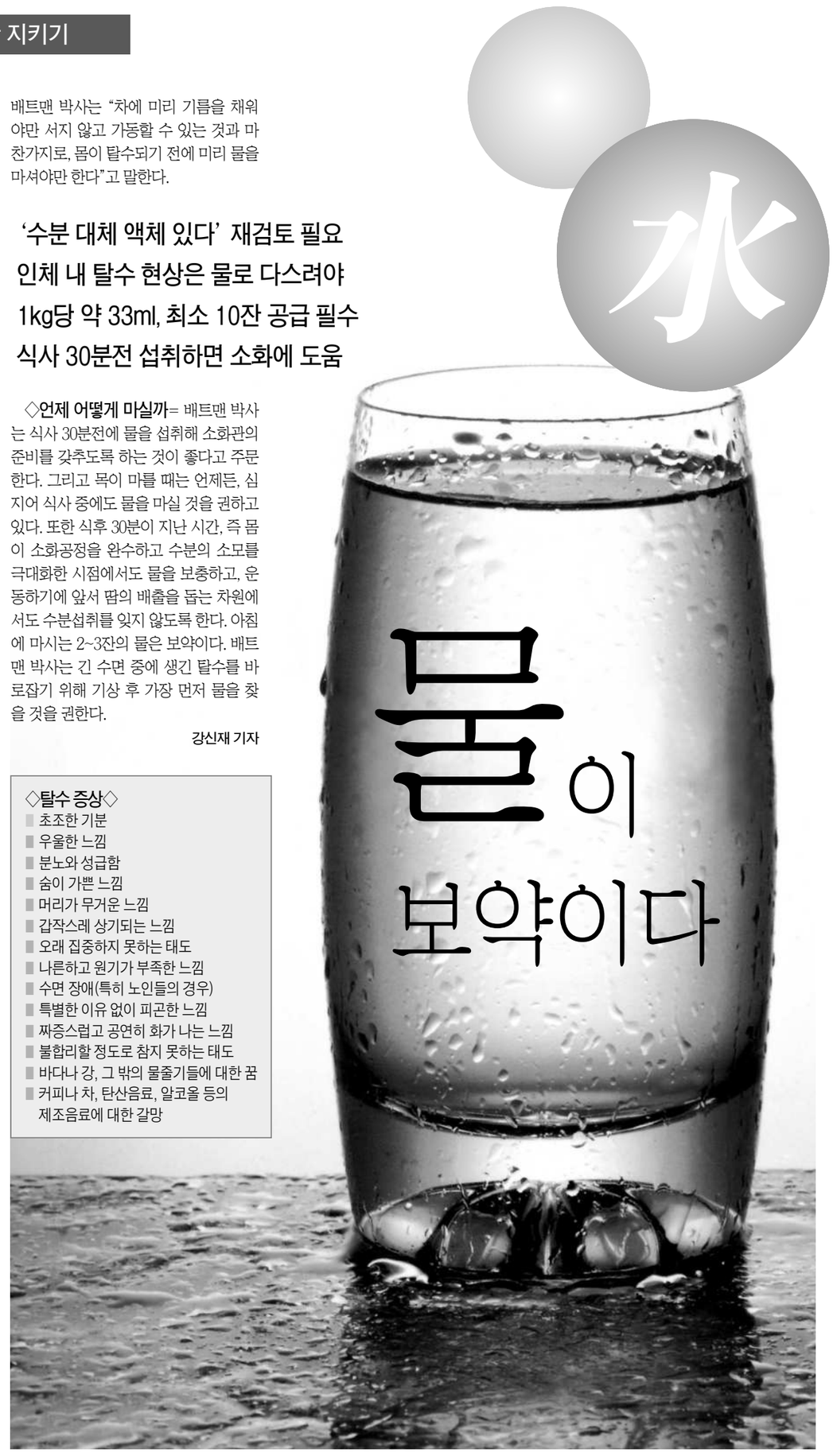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삐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에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물로 건강 지키기

물이 보약이다



‘수분 대체 액체 있다’ 재검토 필요
인체 내 탈수 현상은 물로 다스려야
1kg당 약 33ml, 최소 10잔 공급 필수
식사 30분전 섭취하면 소화에 도움

“대부분의 질병은 체내의 수분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천식과 각종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변비, 요통 등 각종 질병은 ‘탈수’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배트맨겔리지(F.Batmanghelidj)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를 통해 “사실은 아픈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이 부족한 것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전세일(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원장의 감수아래 번역 출간된 배트맨 박사의 저서 <물, 치료약 핵심이다>(물병자리)에 소개된 물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본다.

◇물에 대한 오해= 배트맨 박사는 “의학사상 최대의 비극은 입안이 마르는 증상(구강건조)을 체내 수분 부족의 유일한 신호로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강건조 현상은 탈수를 나타내는 가장 마지막 증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인체는 다양하고도 정밀한 신호를 통해 수분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신호는 의료계가 만들어낸 질병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인체가 평생 수분 섭취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오해, ‘특정한 액체로 인체의 수분 결핍을 대체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인체는 물이 부족하면 이상반응을 나타내 보이기 마련인데 그 증상의 퇴치는 반드시 물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물과 건강의 관계= 배트맨 박사에 따르면 몸은 매 24시간마다 4만 잔의 물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재순환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몸은 하루에 6잔 내지 8잔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필요량은 필수적인 기능에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양을 섭취해야 한다. 몸무게 1kg당 약 33ml 이상, 최소한 10잔 정도의 물을 매일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배트맨 박사는 “차에 미리 기름을 채워야만 서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탈수되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야만 한다”고 말한다.

◇언제 어떻게 마실까= 배트맨 박사는 식사 30분전에 물을 섭취해 소화관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한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마실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식후 30분이 지난 시간, 즉 몸이 소화공정을 완수하고 수분의 소모를 극대화한 시점에서도 물을 보충하고, 운동하기에 앞서 땀의 배출을 돕는 차원에서도 수분섭취를 잊지 않도록 한다. 아침에 마시는 2~3잔의 물은 보약이다. 배트맨 박사는 긴 수면 중에 생긴 탈수를 바로잡기 위해 기상 후 가장 먼저 물을 찾을 것을 권한다.

강신재 기자

◇탈수 증상◇
- 초조한 기분
- 우울한 느낌
- 분노와 성급함
- 숨이 가쁜 느낌
- 머리가 무거운 느낌
- 갑작스레 상기되는 느낌
-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
- 나른하고 원기가 부족한 느낌
- 수면 장애(특히 노인들의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
- 짜증스럽고 공연히 화가 나는 느낌
- 불합리할 정도로 참지 못하는 태도
- 바다나 강, 그 밖의 물줄기들에 대한 꿈
- 커피나 차, 탄산음료, 알코올 등의 제조음료에 대한 갈망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㉒

건강하려면 감각을 다스려라



감각의 올바른 사용법

앞서 말한 요가의 4가지 체위를 열심히 실행하다 보면 건강에 큰 도움을 받는다. 이것들은 배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와 신진대사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피타에 의한 소화력을 강화시킨다. 이렇듯 아유르베다 요가에서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보다는 3가지 기본 운동인 ‘비아야마’에 더 역점을 둔다. 비아야마의 이 3가지 기본 운동들은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타의 기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조절한다. △강하고 건강한 입맛과 소화를 유지하도록 돕는 피타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내분비 기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감각기관의 기능을 순화시키고 향상시킨다.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신의 창조적 활동을 증가시킨다. △림프와 혈액의 순환을 향상시키며 혈액과 영양소의 신진 대사를 증진시킨다.

비아야마 운동으로 몸 · 마음 균형 유지
지나친 감각작용은 감정의 독소 형성

이들 운동으로부터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명상 전에 3가지 운동, 즉 태양에 대한 인사, 하타 요가, 코로 숨쉬기의 순서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엔 감각 운동을 알아본다. 주의력은 감각과 감각기관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에서 나온 인식은 감각의 대상으로 되돌아간다. 만약 주의력의 대상이 우리를 별로 자극시키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혹은 해독적으로 자극할 때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고 직 · 간접적으로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감각 기관들이 활동하는 방법은 이를테면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만약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면 신체 조직들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몸은 급격히 쇠약해져 갈 것이다. 반대로 너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소화력이 지나치게 혹사되어 그 부위에 이상이 생기고 독소가 쌓일 것이다. 이런 유사한 과정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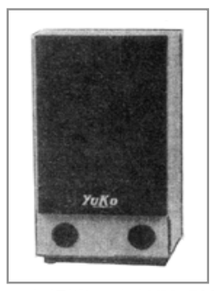
부적합하거나 좋지 못한 감각자극을 받았을 때 감정의 독소가 형성되면서 마음의 기능이 손상되는 게 그 예다. 가령 폭력적이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난 후 우리는 잠드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잠이 들었다 해도 악몽에 시달리거나 잠을 설치게 된다. 그 결과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무기력해짐은 물론 마음까지 무뎌지거나 흥분 상태가 됨을 경험한다. 이러한 예는 감각이 몸과 마음의 평형에 끼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감각은 우리를 보호하게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우리 마음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비하라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 건강과 행복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써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포천 중문의대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7월7일 7기생 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정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당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갱년기 장애
· 고혈압, 고지혈증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제4기 역학 상담 전문가 과정 강좌개설
미래 상담 역리사 양성 목적
타고난 운명과 다가올 인생 여정에 대하여 상담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고달픈 생활을 비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운셀러! 전통의 "동양역학 전문지식"전수로 불확실한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양성과정"
주요 교육 내용
◆ 우주 창시론, 역학의 기원, 운명과 사주, 음양오행, 생극제화, 사주구성
◆ 대운,세운,합,충,파,해,십이신살,십이운성,육친론,지장간,격국,용신
◆ 성격,직업,건강과질병,재난,부부,자녀관계,부귀빈천,간지체성론,궁합,택일
참가 대상
◆ 기관 기업체 퇴직자 및 주부, 일반인, 대학생으로 평생직업으로 전환하실 분
◆ 부동산중개업, 결혼상담인, 심리적성을 상담하여 성공하실 분
▣ 특 전
• 한국역리사자격 검정관리협회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부여
• 수료후 합격자 전원 전화상담사 및 일반 상담요원으로 취업보장
▣ 중요교육내용 ※ 개강 날짜 문의 바람

과목	시 간		강 사	수 업 료
명리	토요일(오후2시~6시)	일요일(오후2시~6시)	유방현	25만원(5개월 완성)
육효	월요일(오후7시~10시)	보충수업가능	유방현	25만원(4개월 완성)
육임	수요일(오후2시~5시)	보충수업가능	정수언	25만원(3개월 완성)
자미두수	화요일(오후2시~5시)	보충수업가능	장정림	25만원(4개월 완성)
원문	목요일(오후7시~10시)	원문 해독	박종천	12만원
관상	금요일(오후2시~5시)	이론과실재 병행	신장근	20만원(3개월 완성)

※ 각 과목 최고 강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 교육 장소
KTA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교육원 전철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남동방향 30m
▣ 신청 및 문의처
02)929-4646 / 4643, 018-350-7150
주관 KTA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교육원

여름불교학교용품 지상 기획전

사찰 수련회 및 여름불교학교용품을 마하몰에서 준비하세요

단체

여름불교학교 T-셔츠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20수 아동 이중 라운드티
5,200원


아동 폴로티
20수 8,500원, 30수 6,500원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배색라운드 티셔츠
6,000원


20수 2선 나그랑 라운드티
6,000원


20수 나그랑 라운드티
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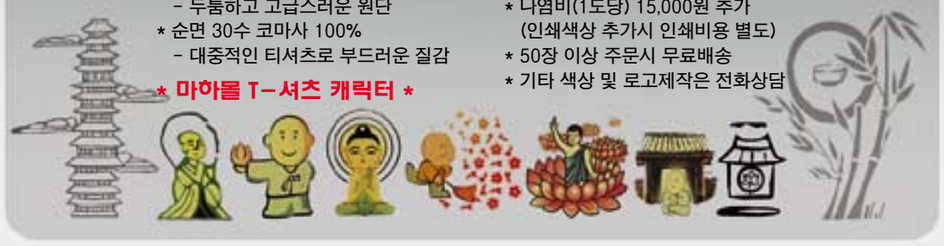

20수 이중 라운드티
5,500원


동자 라운드티
5,000원(아동), 6,000(일반)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


2선 반바지
6,000원
(일반),
5,500원
(아동)



불교학교용품

* 1안



* 2안



* 3안



여름불교학교 현수막(실사)
6m 60,000원, 7m 70,000원, 8m 80,000원 / 높이 90cm


법회노트
500원


색칠놀이북
2,000원


편선지세트
1,000원


동동이노트
각3,500원


동동이 손수건
2,000원


세면도구세트
6,000원


사물놀이걸망
4,500원


뿔발우(5합)
15,000원


법구경카렌다
1,500원


캐릭터 열쇠고리
개당 2,000원


선심이 필통
개당 10,000원


연꽃저금통
2,500원


동자저금통
4,000원


코끼리저금통
4,500원


풍경 차걸이
4,000원


황금달마 핸드폰줄
15,000원


자외선차단 썬캡
6,000원


성인용 썬캡
3,000원


아동용 썬캡
3,000원


카드썬캡
개당 1,800원(다량구매시 할인)
단체명 및 로고 인쇄 시 1도당 50원(개당) 추가

* 펼치면 멋진 썬캡으로 변신
* 접으면 명함 싸이즈로 보관이 간편
* 무게 16g 초경량
* 원하는 로고 및 이미지 삽입 가능



추천상품


전통문화 꼬마캐릭터 상품
첨성대, 수표, 측우기, 풍기대
각 5,500원


휴대용 앙부일구(해시계)
25,000원
보물재현상품(34*56*15)

연꽃받침향꽃이
10,000원

투각단지촛대
12,000원

연꽃향꽃이
12,000원

개인용 백자향로
12,000원

청자칠보투각향로
정상가 : ~~49,800원~~
특판보급가 : 39,800원
높이15.3cm
고려시대 청자향로
국보재현품
고급오동나무케이스 증정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152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국민은행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 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